

오대산 선재길을 걷다

강릉·동해 옛길을 걷다



서울 역사길을 걷다

2022, 2023 강원교사 인문학여행: 걷는 독서

DMZ편지를 들레길을 걷다

마장터 옛길을 걷다

구룡령 옛길을 걷다

#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2

내설악 옛길을 걷다

남한강가 폐사지를 걷다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2017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인문학거점센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과 연구 아젠다의 공유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인문자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개소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난 25년 간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출판, 일본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인문학국플러스지원사업으로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아젠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2



## 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인문 여행’이라는 그림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강원도, 인문학을 품다’라는 어젠다를 내걸고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연구만 하다가 지역과 함께 인문학을 실천하고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던 당시는 미지의 세계에 일단 발부터 들여놓고 방향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방향을 잡아가며 배우고 느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

고민의 종점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강원도에는 무엇이 있던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 강원도라는 사실, 천혜의 대지를 가진 곳이 강원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강원도에 사는 우리가 있다. 물론 잘났다고 자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데올로기’라는 마물의 볼모가 되어 유일한 남북한 분단 지자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의 삶에 접목해서 대자연의 힘에 경탄하고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동하는 사람의 마음 또한 존재한다. 결국 대지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인문학의 출발점인가 하는 생각에 도달해서 지금의 어젠다가 완성되었다. 강원도라는 대지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경작해서 풍년을 맞이하는 노력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려고 뒤에서 일조하는 일이 지역인문학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홀로는 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함께이면 되는 ‘우리의 힘’을 말이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고, 마지막 연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간행되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인문 여행’이라는 그림은 대지 위에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자연과 문화이, 풍경과 마음이, 경탄과 탄식이, 아름다움과 숨 막히는 감동이 화음을 내고 있다. 일본학연구소 소장이기 전에, 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이기 전에,

---

여타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조그마한 삶을 열심히 영위하는 일개 생활자이자 사람으로서 고마움과 보람을 느낀다. 세상에는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 보기 힘들어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교단에서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과 함께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지구를 함께 보고 느끼기를 바라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 사실은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이 책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 그래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반짝반짝 빛나는 글을 쓰신 선생님들께 배운 제자들이 더 자라서 이 책을 접하고,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을 때, 선생님도 지역인문학센터를 위해 열심히 일한 우리도 "참 잘했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선생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많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인문학센터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보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멋진 감성으로 멋진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에게 배운 아이들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연구소와 지역인문학센터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기꺼이 해주어 이 멋진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지금은 연구소를 떠난 심재현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멋진 글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신 유명화 <여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2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

서정완

오대산 선재길을 걷다



강릉·동해 옛길을 걷다



서울 역사길을 걷다

2022, 2023 강원교사 인문학여행: 걷는 독서

DMZ펀치볼 들레길을 걷다

마장터 옛길을 걷다



구룡령 옛길과 평안옛길을 걷다



내설악 옛길을 걷다



남한강가 폐사지를 걷다



##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을 걸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2020년 봄, ‘함께 읽기’를 실천하며 책으로 맺어진 교사들이 책 밖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실을 핑계 삼아 도외시했던 대자연의 숲길을, 마을을 넘나들던 고갯길을 걸었다. 비로소 주변과 이웃의 삶을 세심하게 느끼며 자신의 삶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 걷는 독서’의 시작이었다. 4년 동안 강원도의 옛길을 찾아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공간의 길을 함께 걸었다. 그 길은 오래된 시공간, 오래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람과 사람, 삶과 삶을 이어주는 길이었다. 오늘을 진단하며 내일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했다.

지구촌의 가난과 분쟁의 현장에서 사진 기록으로 평화운동을 이어가는 박노해 시인의 저서 《걷는 독서》는 우리의 주제도서가 되어 길을 걸을 적마다 길 위의 질문 하나씩을 품고 돌아왔다. 그 질문들이 씨앗이 되어 수기들을 한 편씩 모았다.

2020~2021년 두 해 동안 6차에 걸쳐 함께 걸은 이야기와 글들을 모아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1집을 펴냈고, 다시 2022~2023년 두 해 동안 10차에 걸쳐 더불어 함께 열었던 길 위의 이야기들을 엮는다.

2022년 4월 양구 옛길인 DMZ펀치볼 돌레길~박수근 화백의 삶의 길을 걸었다. 5월엔 고성 건봉사터~인제 마장터 옛길, 6월엔 백두대간 흥천 구룡령 옛길과 양양 선림원지길에 어린 이야기를 담았다. 특별히 7월엔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 워크숍을 겸하여 전남 순천 여순항쟁길을 거쳐 남해의 미륵도~만지도~연대도 바다와 섬길을 걸었다. 통영의 세병관에선 다시금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겼다. 9월 초가을 햇살 계곡물에 옥빛으로 부서지는 내설악 옛길을 걸으며 우리 마음도 가을볕에 말끔하게 말리고 온 듯했다. 10월 늦가을의 누그러진 햇살 비친 남한강 유역 폐사지에서는 허허로운 별판에 남은 돌탑과 부도탑에 서린 이름 모를 석공들



---

의 마음결도 떠올리고, 흥원창 너른 강가에선 뗏목꾼들의 노래도 상상하며  
오래전 역사와 문화재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듯한 그윽한 사색의 길을 걸  
었다.

2023년 봄엔 평창 오대산 선재길~천년숲길을 다시 걸었고, 여름과 가을엔  
강원 지역의 삶과 역사가 이어지는 서울 성북동 예술인들의 삶이 어린 문화  
의 길~종로와 정동의 근현대사길~남산자락의 국치터와 사라진 기억의 길~  
이회영기념관을 답사했다. 11월 초에는 강릉 바다부채길로 이어진 해파랑  
길을 걸어 묵호항의 오래고 오랜 기억 속 논골담길과 등대길 그리고 만추의  
노추산 모정탑길을 다시 걸었다.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서 오래된 옛길들을 걷다가 어둠이 깔리는 원창고개  
를 넘어서면 그제야 우리는 다시 현재 삶터로 돌아오곤 했다. 언제나 떠남은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기도 했다.

왕복 서너 시간이 넘는 긴 버스 여행길에서 함께 감상한 필름의 장면들도 스  
쳐간다. 분주한 일상에 밀려, 더러는 상업영화에 밀려 놓쳤던 좋은 필름들을  
버스영화관만이 누릴 수 있는 아늑함과 몰입도로 감상하고 다채로운 감동  
과 느낌을 나누기도 했다.

교단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  
마음을 비우며 그저 걷다 보면 느닷없는 마주침과 만남의 순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하여 우리는 함께 길을 걷는 동료 선생님들과 더 속 깊은 만  
남으로 나누고 모이고 마주하며 오래된 시간, 오래된 장소, 오래된 삶 속으  
로 걸어 들어가 '앞선 과거'로 돌아 나오는 길을 찾아나선다.

---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 박노해, 501쪽

아직도 우리가 나아갈 가르침과 배움의 길은 아득하고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앞만 보고 바삐 걷는 삶을 멈추어 서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는 여러 고 작은 것들의 힘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는다. 나와 그대가, 우리가 되어 오 늘도, 내일도, 어디라 할 것 없이 묵묵히 함께 걸어야 할 이유이다.

지난 두 해 동안 가끔, 기꺼이 길잡이가 되어 길 위에서 열강을 펼쳐주신 역 사학자 박준성 님, 섬연구소 강제윤 소장님, 역사재생총감독 서해성 작가 님, 강원교육연구소 김효문 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또한 언제나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을 따듯이 지원하고 격려해주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강원 지역인문학센터 서정완 소장님 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남춘천여자중학교 수석교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인문교육연구회VISTA 대표  
한명숙

- 002 인사글
- 005 감사의 글

---

**2023 인문학여행 01**  
**오대산 선재길을**  
**걷다**

- 
- 018 선한 마음이 생겼다
  - 019 참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신 있게 살라
  - 020 천년 숲길을 다녀와서
  - 021 봄에 걷는 선재길
  - 022 나를 만나러 가는 길
  - 023 초록만으로도 아름다운
  - 024 바람이 부는 날
  - 025 선재길, 깨달음과 치유의 길!
  - 026 '선재'길을 따라 지혜를 찾다
  - 028 천년 옛길을 걷다
  - 030 경이(驚異)와 동행한 하루
  - 031 내 삶에 십표를
  - 032 나도 더 산뜻해져야지, 꼭



---

## 2023 인문학여행 02 서울 역사길을 걷다(1)



- 038 민주화의 역사는 이어져 오는 중
- 040 역사를 기억하라!
- 042 서울 지역 근현대사를 돌아보다
- 044 역사를 기억하다
- 045 역사적 진실이 기록되고 복원되길
- 046 우리는 기억한다
- 048 우리의 책무를 깨닫다
- 050 새롭고, 오래된 만남들
- 051 신들과 함께 있기를
- 052 6·10 민주항쟁 기념일, 역사에 말을 걸다
- 054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하는가?
- 056 기억, 함께 걷는 길 위에서
- 058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언제든 있다
- 059 '백석'과 '이은숙'을 만나다

---

## 2023 인문학여행 03 서울 역사길을 걷다(2)

- 066 정동길 300M 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다
- 068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침묵한다
- 070 상실 시대의 유감
- 071 서울 정동길, 근현대사 역사 현장을 걷다
- 073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 074 처음으로 다가온 서울 역사길
- 076 서울 역사길, 인사이트투어를 마치고
- 078 흐름
- 080 사라지다

---

## 2023 인문학여행 04 강릉·동해 옛길을 걷다

- 086 정동진 바다부채길을 걷다
- 088 독해(讀海)
- 090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 092 다시 힘을 내는 걷는 독서
- 094 늦가을에 만난 바다부채길과 모정탑길
- 097 오랜 기억을 거닐다

---

**2022인문학여행 05**  
**DMZ편치볼**  
**둘레길을 걷다**



- 
- 104 도솔숲길을 걸으며
  - 105 가칠봉을 마주하다
  - 106 나무(木)
  - 107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 108 독지(讀地)
  - 110 가야 길이다
  - 112 그림인문기행 1
  - 114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116 비무장지대 생태 환경 둘레길을 다녀와서
  - 118 평화의 길을 걸으며
  - 120 연둣빛 봄, 평화의 길에서
  - 122 얼레지꽃에 대한 엘레지(Elegy)
  - 124 가장 낮은 곳에서 봄이 오네
  - 125 봄이야, 질문하는 꽃들
  - 126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 128 노랑제비꽃 하나가 되기 위해
  - 130 꽃 피어 오는 너를 위하여
  - 132 내 삶의 푸른 십표
  - 133 기억, 0416! 걸으며 생각하며
  - 134 꽃 지뢰

---

**2022인문학여행 06**  
**마장터 옛길을**  
**걷다**



- 
- 140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길에서
  - 141 노동의 발자취가 서린 길
  - 142 건봉사지에서
  - 143 노동-마장터
  - 144 문화유산은 공공자산
  - 146 독목(讀木)
  - 148 자연과 인간의 공존
  - 150 팽나무 같은 희망을 품고 서어나무 세상으로
  - 152 물 치고 나는 새처럼 사뿐히
  - 154 걸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 156 작은 것들 서로 져서 봄이 되듯이
  - 158 5월의 푸르름 속으로
  - 160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길
  - 162 새이령 옛길에서
  - 164 5월은, 걷는 독서의 달

**2022인문학여행 07**  
**구룡령 옛길을**  
**걷다**



- 170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 171 산이 수목화처럼
- 172 이 '옛길'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174 편파성은 당연하다
- 175 백두대간 운무와 문지기 할아버지
- 176 돌 하나 품고 흐르는 저 강물처럼
- 178 단단하게 얽히고설킨 삶을 떠올리며
- 179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는 길 위에서
- 180 구룡령 옛길, 대간(大幹)에 서서
- 182 그림인문기행 2
- 184 구름 속의 산책
- 186 안개 숲 너머 풍경을 그리다
- 187 밥이 하늘이다
- 188 오래 오래 설렘이 있는 길
- 190 다시 걷고 싶은 길
- 191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
- 192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되니
- 194 박달나무

**2022인문학여행 08**  
**내설악 옛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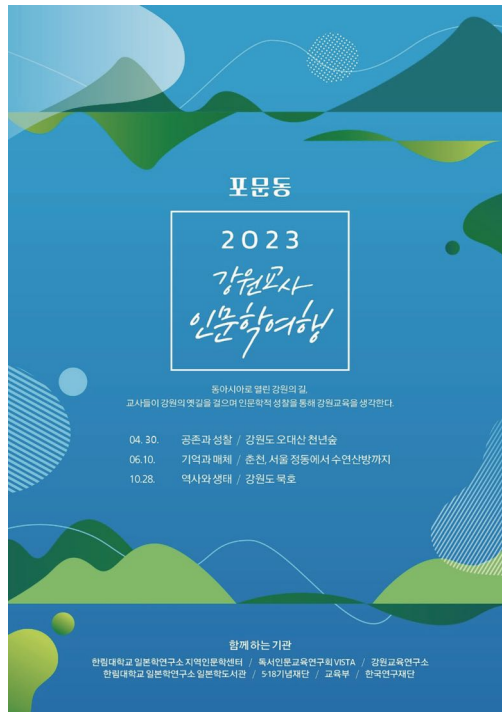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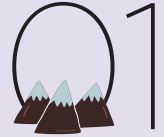
- 200 인제 내설악, 작은 도토리
- 201 백담사에 홀로 머물다
- 202 정점(頂點)과 정점(靜點)
- 203 한용운의 길 따라 내설악을 걷다
- 204 내설악에서 사유하며 '무아(無我)'를 꿈꾼다
- 206 설악, 오늘의 우리는
- 208 가을 마중-영시암 가는 길
- 210 '끝도 없이'가 아닌 '지금 완전히' 걷기
- 211 내설악 백담사, 영시암
- 212 가을 문턱에서 내설악 품에 안기다
- 213 내설악에 깃들다, 돌 셋!



2022인문학여행 09  
남한강가  
폐사지를 걷다

- 220 세월은 흘렀지만 역사적 자취는 남아
- 221 만추를 걸으며 내 영혼이 깊어졌다
- 222 남한강 폐사지를 걷다
- 224 그 쓸쓸함이 고요하고 아름답다
- 226 '들꽃이 되어', '잔돌이 되어' 걷기
- 228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다
- 230 폐사지, 과거로의 시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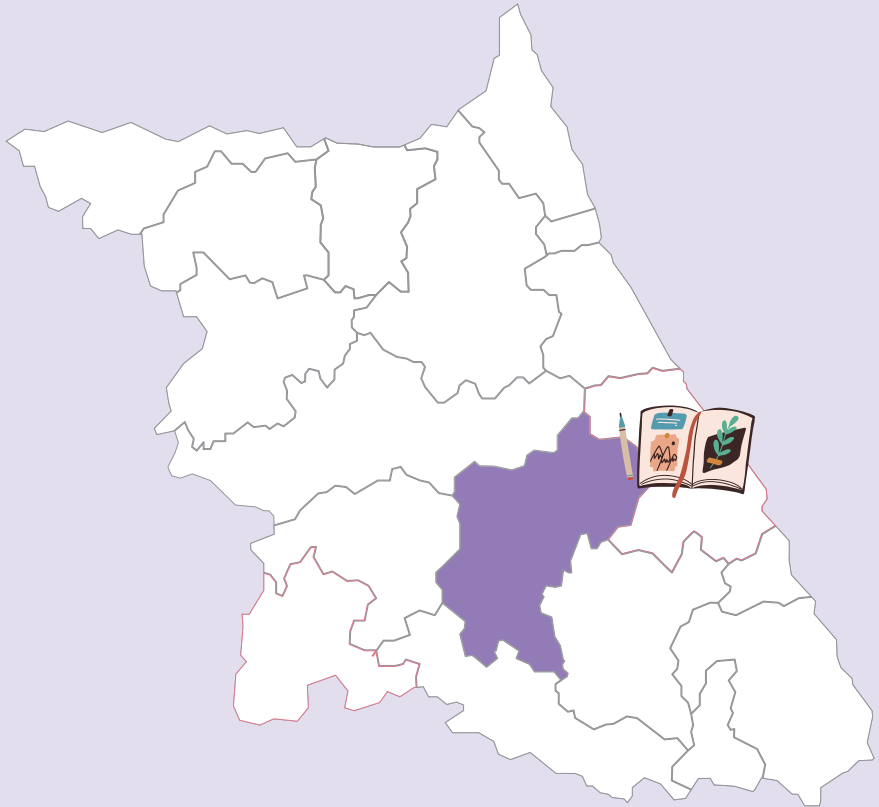


2023 인문학 여행

오대산



선재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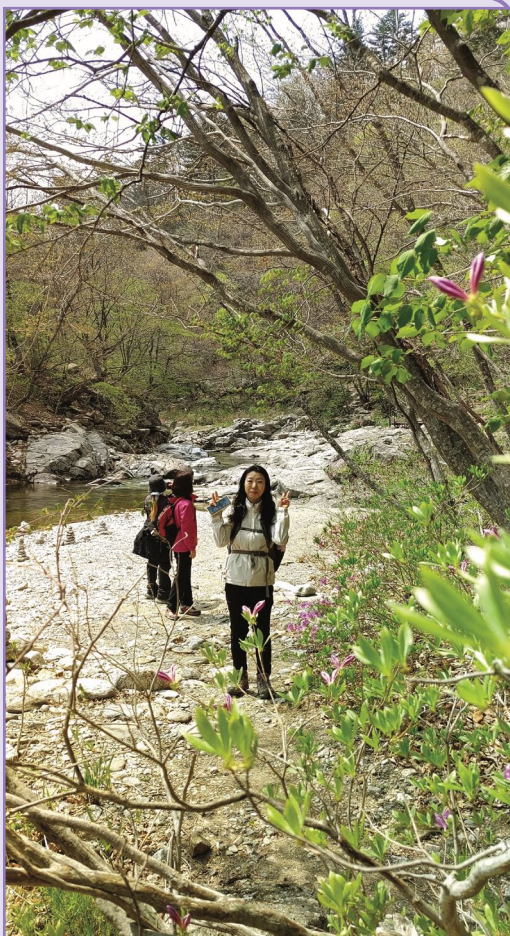


 4월 29일

평창 오대산



상원사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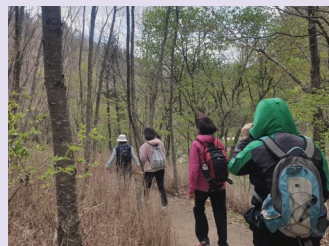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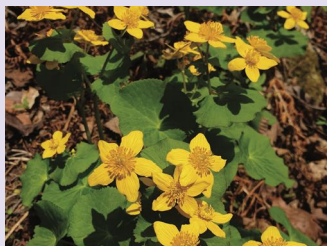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033-332-6417
- 선재길 코스: 월정사~동피골 구간(5.4km), 동피골~상원사 구간(3.6km)으로 이루어짐. 숲과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까지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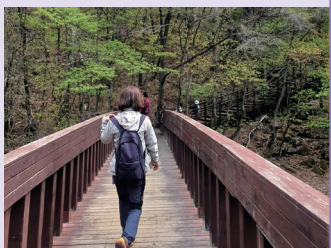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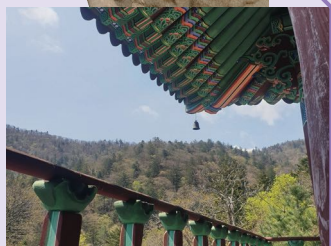
야생화생태숲

섬다리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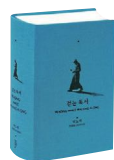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35쪽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마음의 눈을 뜨고 미리 보는 봄. 149쪽

밖으로 터지는 감탄의 힘이 있고  
안으로 올리는 감동의 힘이 있다. 503쪽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밤하늘의 별들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773쪽



# 선한 마음이 생겼다

고미정(봉의중학교 교사)

세상 어떤 가르침이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있을까? 신이 인간에게 실천하라는 선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월정사 경내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나무소원 등에 오래도록 눈길이 머물렀다. 누군가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낮고 소박한 목소리들, 따뜻했다. 깊었다. 선한 마음이 생겼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과 햇볕, 계곡물 소리와 수많은 들꽃 그리고 18명의 수호천사와 함께 한 9킬로미터 선재길. 내 마음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자주 향했다. 비 오다 맑게 갠 오월의 어느 쾌청한 하루, 불자가 아닌 내게도 분명 깨달음과 치유의 시간이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오래오래 해나가면 그렇게 되어간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걷는독서》, 541쪽

# 참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자신 있게 살라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올해 1월, 1박 2일로 명상마을에서 숙박하며 오대산 선재길을 걸었다. 겨울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명상하며, 때로는 세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걷던 선재길을 4월 말에 다시 찾았다. 밝은 햇살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가득 피어난 들판을 바라보며 연신 탄성을 지르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입안 가득 오이를 베어 물고 우적우적 씹으니 싱싱한 행복이 차오른다.

산나물비빔밥으로 점심 식사 후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세 분의 스님 중 탄허 스님이 내 가슴속에 와닿았다. 대학 시절 국문학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분을 사진으로나마 처음 보았다.

22세에 오대산 월정사에 출가하였으며, 7년간 동국대학교 대학 선원 원장을 맡았고, 불교의 교리는 물론 다양한 한학 방면에도 조예가 깊어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학문을 본받기 위해 양주동 박사가 직접 절로 찾아가 그분에게 장자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탄허 택성 선사 범어 중 맨 마지막 글이 내 눈앞으로 확대되어 다가온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참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자신 있게 살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허스님도 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던 최승순 교수님도 가셨지만 나는 이곳에 남아 그 두분을 추억하며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가르침을 닦아가려 한다.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걷는 독서》, 35쪽

# 천년 숲길을 다녀와서

김재순(춘성중학교 교사)

저질체력으로 근근히 버티는 나는 휴일이면 주중에 못한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까지는 쉬는 게 너무 좋지만 휴일이 끝나가는 저녁에는 할 일을 미루고 멍청히 시간을 보낸 나에게 화가 나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런 내가 걷는 독서를 알게 된 건 크나큰 행운이다. 모든 일정을 준비해주신 수석님 덕분에 패키지여행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상원사에서 출발하여 선재길을 따라 월정사까지 걷는 동안 연두 연두한 잎들과 푸르른 하늘은 그것만으로도 힐링하기에 충분했고 가끔 불어주는 바람마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상원사의 문수보살은 어떤 모습일까?’ 추측하며 만난 문수보살은 여성인 듯 남성인 듯 성을 구분할 수 없는 우아한 모습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반짝반짝 빛나 인상적이었다. 월정사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달린 연등들도 너무 예뻐 셔터를 누르게 했고, 삶에 지쳐 심이 필요한 나에게 편안함을 선사했다. 이 모든 것이 준비해주신 수석님과 좋은 동행자가 있어 가능했다. 말재주, 글재주가 없어 의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싫지만 또 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벌써 다음 여행이 기대된다.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멀지 않은 법이다.  
-《걷는 독서》, 519쪽

# 봄에 걷는 선재길

김희선(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기온도 적당한 가을에는 단풍까지 꽃보다 아름다워서 좋았다. 반백 년을 지나면서 좋아하는 계절이 바뀌었다. 겨우내 삭막하던 들판이 초록으로 물들면서 새 생명으로 가득 차서 볼 게 많아지는 봄을 느끼게 된 것이다. 올해 봄은 선재길을 걸으며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느낀 것 같다.

신라 선덕여왕 당시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월정사 주변 선재길. 고려시대 충렬왕 때 전소됐다가 재건, 다시 조선시대 순조 무렵 불에 났고, 현종 시절에 재건, 한국전쟁에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는 과정을 반복한 월정사의 예전 모습도 보이는 듯하다.

절 주변에 스님들이 오가던 선재길은 깨달음, 치유의 천년 옛길인가보다. 유럽에서는 철학자들이 산책하며 영감이 떠오르기도 했다는데, 스님들도 선재길을 걸으며 걷기 명상을 하셨나 보다.

선재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학기 초 분주한 업무에서 벗어나 생각을 가라앉히게 되고,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 유익한 봄나들이였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마음의 눈을 뜨고 미리 보는 봄.

-《걷는 독서》, 149쪽



# 나를 만나러 가는 길

라상숙(춘천고등학교 교직원)

꽃보다 아름다운 초록색 잎사귀가 싱그럽게 돌아나는 4월 마지막 날, 깨달음과 치유의 천년 옛길 선재길을 걸었다. 이번 여행은 출발부터 설레었다. 행사를 진행하신 한명숙 선생님께서 한 장씩 나눠주신 조그만 쪽지에는 하루 동안 수행할 수호천사 미션 3종이 적혀 있었다. 미션 1. 버스 승차, 모든 이동장소 동참 확인! 미션 2. 기념사진 둘이 혹은 다 함께 추억 담기! 미션 3. 언제, 어디서든 친절과 배려의 눈길로 수호천사의 역할 다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숲길을 걸으며 꽃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참 좋았다. 물소리 바람 소리에 내 안에 쌓여 있던 모든 잡념이 깨끗이 쓸려가고 어느덧 함께한 선생님들의 웃음소리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좋은 사람의 수호천사가 되어 서로 손맞잡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너무나 좋았다. 월정사에서는 나무마다 걸려 있는 소원 등을 보며 불자가 아니어도 함께한 모든분의 안녕과 작은 소원 하나씩을 빌어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한 깨달음과 치유의 산행이었다.



오직 인간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존재다.

희망은, 인간의 영원한 불치병이다.

-《걷는 독서》, 792쪽

# 초록만으로도 아름다운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눈이 부시게, 초록만으로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에 선재길을 걷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전날의 비로 촉촉한 오솔길에 먼지 한 점 없는 청안한 날씨까지, 행운도 함께한다. 나는 선재길의 행인(幸人)이 되어 마치 발가벗은 사람인 양 오감을 열고 걸어간다. ‘행(幸): 다행, 행복, 운이 좋다, 바라다. 희망하다’ 정확한 뜻을 찾아보려고 자판을 치니, 깜박하고 영어로 두드리고 있었다. god.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오늘 처음 알았다. 한글 ‘행’을 영어 자판으로 그대로 치면 ‘god.’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오늘의 선재길을 걷는 나의 행복을 ‘하늘’이 도운 듯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이 초록과 햇살과 상쾌한 바람과 물소리, 푸른 하늘 아래 폭신한 오솔길에 자리한 작은 봄꽃들의 인사까지, 다른 샅된 것이 떠오르지 않는 시공간은 분명 하늘도 도운 것이겠지. ‘행(行): 불교에서는 모든 변화하는 존재, 무명(無



名)으로부터 몸·입·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이른다. 또는 승려나 수행자가 정하여진 업(業)을 닦는 일, 특히 고행(苦行)을 이른다.’ 적어도 선재길을 걷는 오늘은 ‘행(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행의 업을 짓지 않은 것 같다. 고행은 아니었지만, 맑은 수행의 마음을 엿본 듯하다. 하나 더 기록하고 싶다. 함께 길을 가던 도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취나물의 향에 대하여, 가지취의 향에 대하여. 취나물의 향이라니, 맛있게 먹기만 했던 취나물 향이 새삼 코에 맴돈다. 백석의 시 <여승>에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짙은 봄의 향기, 씹싸래하면서도 비에 젖은 짙은 나무 향 비슷한 취나물의 향은 분명 절의 향내를 닮았다. 여승에게서 나는 향냄새를 가지취의 냄새로 떠올리며 시를 썼을 백석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마음의 눈을 뜨고 미리 보는 봄  
 -《걷는 독서》, 149쪽

# 바람이 부는 날

신영숙(장학초등학교 사서)

나도,  
너도,  
우리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랑살랑~  
바람 불어 바람 소리 따라  
술술~  
살랑살랑~ 술술~  
바람이 분다.  
오늘 따라,  
나도 따라, 바람 따라.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내 영혼은 달려 나간다.  
어디로든, 어디로든,  
그리운 네가 있는 쪽으로.  
-《걷는 독서》, 685쪽

# 선재길, 깨달음과 치유의 길!

윤선미(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오대산 상원사에 도착! 버스에서 내려 선재길 입구에 들어서는데 순간부터 걷는 내내, 그리고 선재길 산행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 순간까지 봄비 내린 후 쏟아지는 바람을 실컷 맞으며 걷고 또 걸었다. 정말 상쾌한 바람이다.



사연을 만들어낸 조상들의 재치 있는 변명이 참으로 귀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선재길이 걷기에 힘든 길은 아니었으나 9킬로미터라는 길이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천년 옛길! 선재길을 끼고 오대산 맑은 계곡물 소리와 연둣빛이 짙

선재길 산행은 상원사를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한국전쟁 때 한암스님이 죽기를 각오하며 지켰다던 상원사의 최대 명물은 당연히 국보 제36호로 지정된 상원사 동종! 에밀레종보다 더 앞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종이며 조각 장식이 빼어나게 아름답다거나 소리가 빼어난 통일신라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은 관심사는 안동에 있던 종을 상원사로 옮길 때 죽령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떼어냈던 종유의 빈자리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그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한참을 살살이 뜯어보다가 찾았다! 진짜로 있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의 신기함과 그

어가는 숲길을 걷노라니 수줍게 피어 있는 들꽃들이 너무 정겹고 아름다워 걷는 동안 지루할 새도 다리가 아플 새도 없이 어느새 도착해 있었다. 특히 선재길 걷는 내내 쉽 없이 불어대던 바람에 걸맞듯, 산길 중간중간에 피어 있는 비슷한 듯 다르게 생긴 다양한 이름의 바람꽃들이 너무 소박하고 아름다워 잠깐씩 발길을 멈추며 들여다보곤 했다. 하염없이 걸으면서 역사를 배우고, 마음을 비우고,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 산나물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고, 왜 선재길이 깨달음과 치유의 길인지를 충분히 느끼게 된 귀한 하루였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안달하기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좋은 삶을 살아 보이기.

-《걷는 독서》, 285쪽

# ‘선재’길을 따라 지혜를 찾다

정미자(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상원사, ‘선재’길을 따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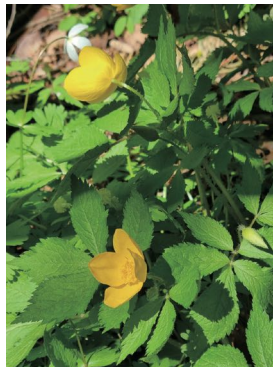
푸른 하늘, 맑은 강, 아름다운 꽃과 풀 그리고 지혜를 담으며.

인생은 잘 살아도 되고,  
인생은 그냥 살아도 되고,  
인생은 못 살아도 되지.

부족하다 생각되면 지금부터 하면 되고,  
충분하다 생각되면 욕심을 버리면 되지.

평범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때를 살다 보면  
어느 날, 50이 되어 인생(人生)을 알게 되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혼한 비극이다.

자기마저 모르는 삶은 더한 비극이다.

-《걷는 독서》,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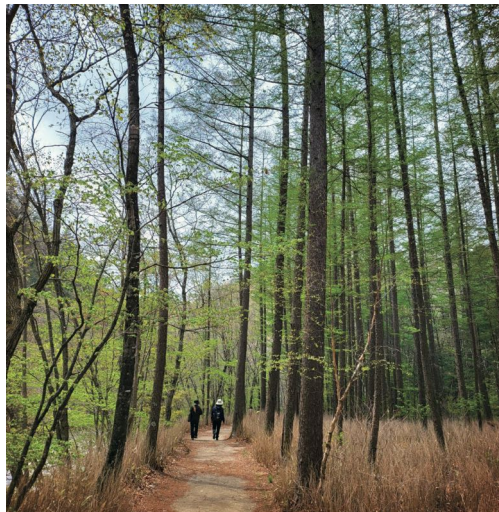
# 천년 옛길을 걷다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어제는 비가 내려 하루 종일 하늘이 흐리더니 하늘이 맑게 개었다. 걷기에 딱 좋은 날씨이다. 버스 안 뒷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아! 너무 좋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산을 보니 이제 봄꽃들은 다 지고 푸른 소나무들 사이로 활엽수 어린 잎들이 상큼한 빛깔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상원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걷기로 한다. 선재길은 깨달음과 지혜를 찾아 나섰던 선재 동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난겨울 화엄경을 잠깐이나마 배울 수 있었는데 선재길의 유래를 듣고 나니 왠지 반갑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꽃에 비유한 경전이다. 중생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不二思想)과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유심사상(唯心思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내 마음 깨달으면 부처고, 내 마음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잊고 있던 화엄경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선재길 초입에는 하얀 산들배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걷다 보니 길 옆으로 야생화도 보인다. 앞서 걷는 한명숙 선생님께서 야생화의 이름과 특



징을 알려주신다. 현호색, 바람꽃, 나도바람꽃, 휘리바람꽃. 이름도 꽃만큼이나 예쁘다. 계곡을 따라 물소리를 들으며 계속 걷는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연둣빛의 고운 나무 빛깔을 보며 걷는 이 순간이 고요하니 평안하다. 조용히 혼자 걷고 있으니 내 뒤를 따라오는 두 분 선생님의 정겨운 목소리도 들린다.

드디어 월정사에 도착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내 나무마다 각자의 발원을 담은 발원문이 달려 있다. 발원문이 색색의 연등과 함께 바람결에 휘날린다. 봄날의 평온한 풍경이다. 늦은 점심을 먹고 성보박물관으로 향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인 석조공양보살좌상을 보았다. 보살의 온화한 미소가 중생의 고통과 시름을 다 잊게 만들 것 같다. 내 마음을 잘 살펴야 진리를 이루고 부처를 이룬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본다. 천년 전 선재 동자가 걸었다는 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밤하늘의 별들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걷는 독서》, 773쪽



# 경이(驚異)와 동행한 하루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최근 읽은 소설 에필로그에서 작가가 인용한 메리 올리버의 시 <죽음이 찾아오면>의 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삶이 끝날 때 나는 말하고 싶어, 평생 나는 경이와 결혼한 신부였노라고…….” 걷는 독서는 생명의 신비와 마주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날은 나도 경이와 결혼한 신부가 된다.

온몸을 감싸 안는 밝고 힘차고 따뜻한 햇볕. 숲을 흔들며 피부에 와닿는 상큼하고 맑고 시원한 바람. 마음까지 파랗게 물들일 것 같은 연초록 나뭇잎들. 구슬봉이, 귀룽나무, 매화말발도리, 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피나무, 동의나물과 만남. 마음 깊은 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온다.

선재길이 담고 있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상원사의 동종이 안동에서 오대산에 오기까지, 세조가 상원사에서 참배하고 문수동자를 만나 피부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한국전쟁 때 한암스님이 상원사를 불태워 없애려는 국군에 대항하여 절을 지킨 이야

기…….

상원사에서 오전에 시작한 길은 정오를 훌쩍 넘어 월정사에 도착했다. 월정사 적광전 앞에서 잠시 적광(寂光)의 의미를 새겼다. 고요한 빛으로 존재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보수 중인 월정사 팔각 9층석탑을 살펴봤다. 지금은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석조보살좌상이 본래는 이 탑을 바라보며 공양하는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찰이다. 오늘, 내 눈앞의 세상을 가슴에 안으며 세계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간, 경이와 동행한 참 좋은 날이다.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걷는 독서》, 773쪽

# 내 삶에 썬표를

함광연(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대학 때 들었던 고전문학 강의가 30여 년 뒤에 깨달음을 준다. 탄허스님도 교수님도 돌아가셨지만 강의 내용이 떠오르며 대학 강의실로 돌아간 20대의 나를 발견한다.

지난 30여 년, 발령, 결혼, 육아, 아이들 진학에 매여 나를 잊고 살았다. 책, 영화, 산, 여행을 좋아했는데……. 마음도, 시간의 여유도 없었던 듯싶다.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돌아본다.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고 싶다. 좋아하는 걸 좀 더 오래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려면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내 삶의 썬표. 내일이 기다려진다.



썬표가 없는 악보는 노래가 될 수 없다.

내 삶에 푸른 썬표를.

-《걷는 독서》, 631쪽

# 나도 더 산뜻해져야지, 꼭

황현정(동내초등학교 교사)

파란 하늘 위 떠오른 아침 햇살, 산뜻해  
 버스를 따라오는 구름 조각들, 산뜻해  
 낙엽 조각들 밟으며 폭신평신킨 걷는 길, 산뜻해  
 재잘재잘 속삭이는 동무들의 목소리, 산뜻해  
 초록 이파리 힘껏 밀어 올린 그 살아 있음, 산뜻해  
 노랑~ 노랑 하양~ 하양 분홍~ 분홍 흔들리는 꽃들, 산뜻해  
 와아! 와아! 눈 반짝이며 감탄하는 얼굴들, 산뜻해  
 알록달록 연등 아래 어깨 맞댄 그대 숨결, 산뜻해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묻는 바람의 말, 산뜻해

나도산뜻  
 더산뜻  
 산뜻해산뜻  
 저야지산뜻  
 꼭산뜻



밖으로 터지는 감탄의 힘이 있고  
 안으로 울리는 감동의 힘이 있다.

-《걷는 독서》, 5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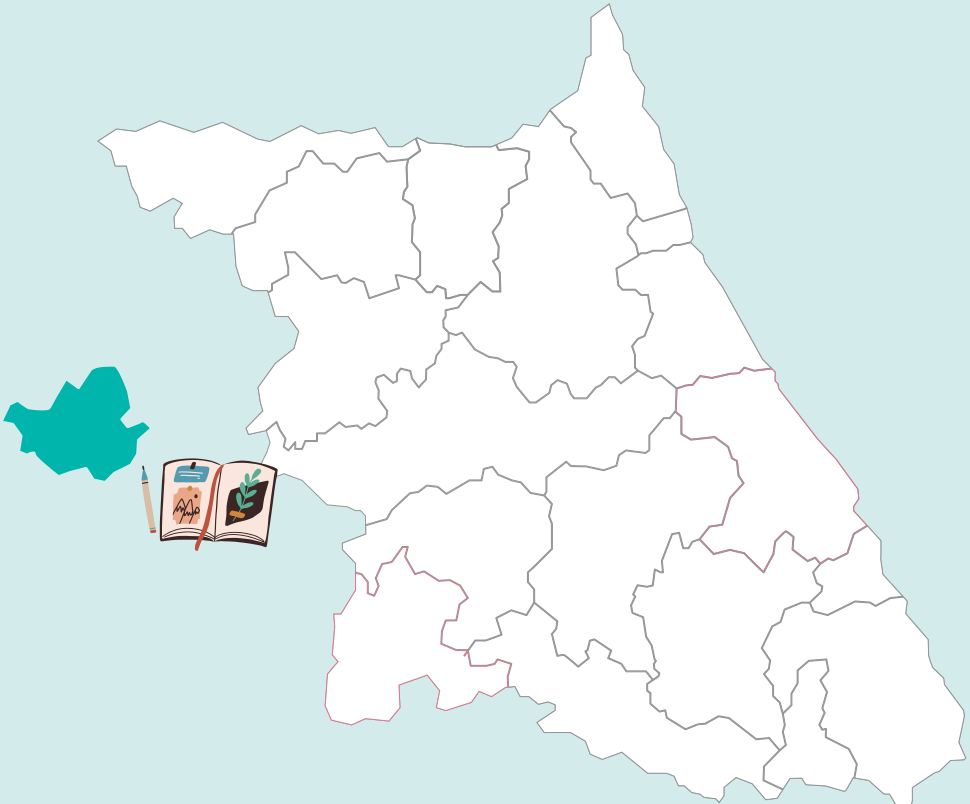


2023 인문학 여행

# 서울 역사길을



# 걷다(1)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6월 1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심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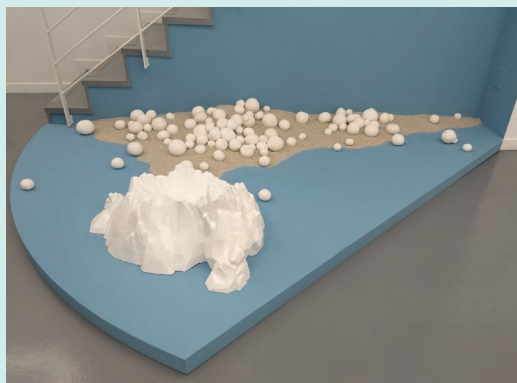




북정마을 성곽길

수연산방

성북구립미술관





김의기 열사 의거터

오월결상

김상옥 열사 순국터

## 오월결상

‘오월결상’은 1980년 5월 30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진행 중일 때 종로 기독교회관 6층에서 투신한 당시 스물두 살 청년 김의기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의 후원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 김정민



남산길 국치터



이회영기념관



### 이회영기념관

‘벗집’에 여러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신흥무관학교 개교기념일(6월 10일)에 맞춰 강원도에서 스물한 명의 교사들이 막 시작된 무더위를 헤치고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다. 교사들은 이회영과 손을 잡고 나란히 섰다. 이제라도 우당의 벗이 되겠다는 뜻이었다. 이회영 선생 아호 友堂(우당)은 풀어쓰면 ‘벗집’이다. 벗집이 벗으로 가득 찼다. 다들 여름 옷을 입었는데 선생만 겨울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이 한 장밖에는 없는 까닭이다. 언젠가는 한 번쯤 여름 모자를 씌워드리고 싶다. 오늘 함께한 선생님은 스물한 명이지만 다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므로 술한 청년 학생들이 다시 이내 우당과 벗이 될 터이다.

- 서해성(작가, 역사재생총감독, 연출기획자)





# 민주화의 역사는 이어져 오는 중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6월의 화창한 토요일에 서울 5·18 답사를 다녀왔다. 달리는 버스영화관에서서는 영화 <제비>를 상영했다. 내가 대학을 입학하던 1983년,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가면 민주화의 열기로 온통 학교의 분위기가 시끌시끌했고, 강의실 칠판에는 ‘휴강’이라고 쓰여 있었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대학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아픔을 과거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정신을 담아냈다.

대학가 운동권인 연인 제비와 은숙 그리고 은숙을 사랑하는 프락치 현수, 후에 은숙의 아들 호연에 의해 40년 전의 비밀이 알려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서 주체적이고 리더십 있는 여성 은숙과 그의 친구 진경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기독교회관 건물 앞에서 서해성 작가님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앞장선 김의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월 결상에 앉아보며 마음이 숙연해졌다. “오월을 위해 한 생을 살다 간 청년 김의기의 이름으로 여기 한 개 결상을 놓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는 ‘이회영 기념관’에서는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간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가문의 6형제도 훌륭하지만,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여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 당당한 한 독립운동가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존경스럽다.

민주화의 역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김의기 의사, 기생 출신 현계옥에서부터 독립운동가의 명문 집안, 간송 전형필 같은 재산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았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교육현장에서 나의 몫을 생각하는 하루였다.



막막한 날도 있어야 하리.  
 떨리는 날도 있어야 하리.  
 그래, 꽃피는 날이 오리니.  
 -《걷는 독서》, 47쪽

# 역사를 기억하라!

김재순(춘성중학교 교사)

서울 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버스 안에서 5·18 관련 영화 <제비>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됐다. 민주화를 위해 누군가는 그렇게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책을 쓰고…….

걷는 독서는 유적지에서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 역사를 되새기는 모임인데도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췄던 나에게 이번 여행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애쓴 흔적을 되짚어보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분들의 노고와 업적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서해성 작가의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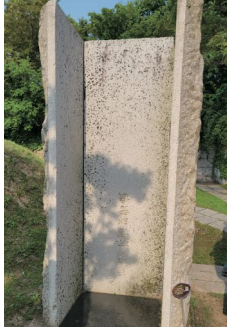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겁박하여 을사늑약(1905. 11. 7)을 강요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하야시 곤스케에게 그 공을 인정하여 일제는 남작 작위를 내리고, 대한제국이 국치를 당한 한국통감관저에 남작 하야시 곤스케 동상을 세워줬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흩어진 동상 잔해를 모아 거꾸로 세워 욕스러움을 기린 거꾸로 세운 동상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발상의 전환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날의 치욕스러움을 잊지 말아야겠다.

또한 여섯 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광복군을 양성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사랑하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걷는 독서》, 861쪽



이회영 독립운동가 가족의 가계도를 볼 때는 혼자도 힘든 독립운동을 어떻게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 존경스러웠고 그 후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 후손들이 조상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나라에서 대우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회영 기념관에서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봤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온다. '역사에 말을 걸 때만 돌과 시멘트도 외쳐 답을 해줄 것이다.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역사가 침묵하는 것이다'라는 글귀는 평상시 역사에 무관심한 나를 질책하는 느낌이었다. 바쁜 현재에 살지만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겠다. 지금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분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



# 서울 지역 근현대사를 돌아보다

김희선(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새로운 두 여인을 만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그것이 녹아든 성북동을 거닌 하루였다. 아침 일찍부터 근현대사 답사를 위해 먼 길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만난 <제비>라는 영화 속 첫 번째 은숙. 1983년 뜨거웠던 학생 운동에 앞장섰던 제비와 그의 연인 은숙, 좋아하던 은숙을 지키기 위해 프락치가 되어 버린 현수, 40년 뒤 이들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숙의 아들 호연 이야기를 담은 <제비>라는 영화에서 은숙을 만났다. 그 은숙과 같이 성장한 느낌이 든다. 답사 일정 마지막 이회영 기념관에서 만난 두 번째 은숙은 《서간도시종기》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쓴 유일한 육필본을 남긴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이시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은숙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답사를 다녀온 뒤 알게 된 성북동은 한양 도성 밖에 위치한 곳으로 세종 때 석성으로 성곽을 지으면서 성저십리라고 성곽에서 10리 이내는 사람이 살지 않게 보존하였는데, 영조 이후 군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둔전을 두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라고 한다. 산골짜기라서 농사짓기가 어려워 마전(삼베와 모시를 표백하는 일) 독점권을 주었다고 한다. 메주 만드는 일까지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복숭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고, 경치가 좋아져 권세가들의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1930년대 이후 풍광이 좋아지자 작가

이태준을 비롯한 문인들이 많이 기거하면서 문인촌이 형성되었다. 1934년 이후에는 일본인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다.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지어 정착하면서 북정마을이 형성되었다. 1970년에 삼청터널과 북악스카이웨이가 개통되면서 성북동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때 분위기를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 큰 저택과 30여 곳이 되는 대사관들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돌 축대 공사가 끊이지 않으니 비둘기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나 보다. 문인촌 형성과 판자촌 마을, 고급 주택가 세 분야로 형성된 성북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압축한 대표적 동네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근현대 역사문화지구로 선정하게 되었다. 성북동의 처음 답사 현장은 대원각 요정에서 고급 음식점을 거쳐 길상사로 변신한 곳으로 향했다. 대원각 소유주 김영현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 1997년 시주로 바친다. 다른 절과 달리 천왕문도 없고, 극락전의 ㄷ자형 구조로 전통 사찰의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이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길상사에서 자야와 백석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로 백석 시인의 진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님에 대해 돌아보고, 성북구립미술관에서 박수근, 윤중식, 이중



섭을 만나고, 성북예술창작터에서 현대 예술가들의 영감을 느꼈다.

민주화 운동의 발판이었던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5·18 김의기 열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오월 결상에서 그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대각선으로 건널목을 건너니 김상옥 열사의 최후의 은신처에서 총격전을 벌였던 장소가 있었다. 열사의 혼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을 것 같은 허름한 골목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료주의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장소는 신흥무관학교 개교 110주년을 맞아 개관한 이회영 기념관이었다. 조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 암울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온 가족이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참여하자 아내이자 동지였던 이은숙 선생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주체적 독립투사로 독립자금을 조달하면서 항일투쟁의 기록을 남긴 이은숙 선생과 가족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로 그 옆으로 중앙정보부 6국 터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중앙정보부 공간들이 있었다. 몇 년 전에 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건물이 예전 중앙정보부 본관 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 남산의 밝은 모습만 보고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던 내용을 답사에서 알게 되며 새로운 역사를 아는 뜻깊은 하루였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다.

# 역사를 기억하다

라상숙(춘천고등학교 교직원)

초록이 싱그러운 6월,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떠난 서울 답사는 아픈 역사의 현장 속으로 초대된 여행이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만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길상사에서는 시인을 사랑한 한 여인의 삶과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길상사의 새소리, 바람 소리를 뒤로하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 마주한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돌 깨는 산울림에 떨어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는 시의 한 구절처럼 교과서에서 배웠던 <성북동 비둘기> 시가 쓰여 있는 담벼락은 마지막 남은 서울의 달동네 풍경을 설명해주는 듯했다.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김의기 열사의 투신 장소와 김상옥 열사의 최후 결전이 펼쳐졌던 장소가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허름한 건물 벽에 솟대 그림이 누군가를 기

다리는 간절함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남산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사람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동안 서울 남산을 방문할 때 그 무시무시하던 남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했는데 무심히 지나쳤던 곳들이 다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었다. 예장공원 내 이회영 기념관에서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역사의 순간을 기억하고 지키고 후세에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숙제다. 잊힌 역사가 아니라 기억하는 역사, 살아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걷는 독서》, 50쪽

# 역사적 진실이 기록되고 복원되길

박병두(강원교육연구소)



답사 여정은 대략 삼각산 길상사, 만해 심우장, 한양도성 성곽길, 성북구립미술관, 선동보리밥집, 성북창작소 터, 김의기 열사의거 터, 김상옥독립운동가 전쟁터, 중앙정보부 터, 이회영 기념관, 국치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상당한 체력 안배가 요구되는 알찬 기행이었다.

길상사에서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 시인 백석, 김영한(자야), 박병삼 그리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주로 거론되었다. ‘사적 소유가 무소유를 지나 사회적 소유로 자리 잡아 가는 길목에 길상사가 있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해 심우장(尋牛莊) 주변에는 밤나무에 밤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불가에서 소는 ‘인간 본성’을 뜻하고, 심우는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의미라고 한다. 이런 글이 눈길을 끌었다. “잃을 소 없건마는 찾을 손 우습다. 만일 잃을 씨 분명타 하면 찾을들 지닐 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선동보리밥집에서부터는 서해성 작가가 안내를

맡았는데, 역사를 재생하는 데 탁월한 감각과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열변을 토했다. 그나마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그냥 맥없이 묻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 기록되고 복원되어 역사가 이어짐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성북창작소 터, 김의기 열사의거 터, 김상옥독립운동가 전쟁터, 중앙정보부 터, 이회영 기념관’에서의 후기는 마음속으로 하고, 답사길 마지막 여정인 ‘국치길’에서는 ‘거꾸로 세운 동상’이 있는데 가장 돋보인 기획이었다.

그리고 국치길을 걷는 동안 길바닥에 ‘ㄱ’자 형태의 동판이 있었는데, ‘한글 첫 자음의 ‘ㄱ’이고, ‘국치’의 ‘ㄱ’이자 그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ㄱ’이기도 하다는 안내를 읽었다.

나에게는 2박 3일의 만만찮은 답사를 마치고 일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보금자리에 도착하니, 밭에서는 보리와 밀과 양파와 마늘이 얼른 수확해주시기를 긴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애타게 손짓하고 있다.



# 우리는 기억한다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6월 10일 이른 아침, 서울로 향했다.

새벽 공기를 맡은 때문인지 범정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길상사에서든,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에서든 웬지 한걸음 뒤쳐져 발걸음을 따르고 싶은 날이었다. 길상사 진영각 작은 툇마루에 앉았다. 스님께서 앉으셨던 작은 나무 의자를 옆에 두고 나도 한번 따라 앉아보고, 심우장에서는 방 한쪽 앉은뱅이에 앉아 다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명록도 정독해보았다.

한적함에서 느껴지는 평화, 같은 시공간 속의 일행들. 성곽길을 오르며 답소를 나누고, 소나무 그늘 아래 서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오늘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우리들. 성북구립미술관에서 만난 소소한 문화적 풍요를 만끽하는 시간. ‘오늘 하루 행복하다. 평화롭다. 여유롭다. 살만하다. 좋다.’

보리밥을 먹은 후 서해성 선생님과 함께 6·10 민주 답사는 계속되었다. 혼자서는 찾지 않았을 곳. 김의기 열사의 의거 터와 김상옥 의사 순국 터, 중앙정보부 터와 국치 터인 통감관저 터, 이회영 기념관까지 오늘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지냈을 곳들을 하나하나 걸어보았다.



아름다운 것들에는 치열함이 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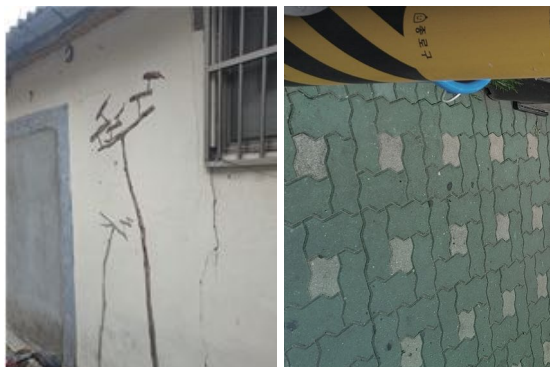
아름다움은 치열한 앓음에서 탄생한다.

-《걷는 독서》, 296쪽

우리가 느끼는 ‘오늘 하루의 행복과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7세의 나이 어린 황후로 한일강제조약에 맞서 옥새를 치마폭에 숨겼던 윤비, 홀로 일본 경찰 수백 명에 맞서다 순국하신 김상옥 의사,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엄군을 피해 몸을 던진 김의기 열사. 그리고 중앙정보부터에서 자행된 고문과 많은 이의 희생까지. 그 위에 내가 오늘 느낀 평화로움과 행복함이 놓여 있다.

부끄러움. 김상옥 열사의 순국 터인 작은 골목에 방치된 쓰러진 오토바이와 잡동사니같이 오늘의 우리는 ‘치열했던 우리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다. 작은 골목 옆에 그려진 솟대처럼 ‘치열하게 앓았던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평화로움을 지켜준 것임을 잊고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평화’만 누리려 했다.

연대. 우리는 오늘 다시 손을 잡아본다. 그리고 기억한다. 아름다운 것들에 치열함이 어려 있다는 것을.



# 우리의 책무를 깨닫다

심금순(서상초등학교 교사)

“옛날 고대도시를 찾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알아보려면 서울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서해성 작가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된다. 우리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과거 청산도 하지 못했다. 근현대사의 어떤 역사는 왜곡되었고, 독립운동사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다.

김의기 열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을 목격하고 그달 30일 오후 5시경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기독교회관 6층에서 떨어져 유명을 달리 하셨다. 당시 김의기 군이 피를 쏟으며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당시 계엄군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기보다는 그가 뿌린 유인물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줘는 데만 정신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는 항쟁이 진압된 이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을 거두었다. 그가 숨을 거둔 기독교회관에는 추모비가 세워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고 알리고자 노력한 분들 덕분에 김의기를 기리는 결상이 만들어졌다. 40년 만의 일이다. (사)5·15민주화운동 서울 기념사업회 및 김의기 열사 오월 결상 건립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김의기 열사는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다.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분들의 노력에 새삼 감사하다.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준 분이 또 있다. 우당 이회영의 아내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은숙 열사이다. 우당 이회영을 포함한 6형제의 독립운동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6형제는 가산을 정리하고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떠났다.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중국 곳곳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남산 예장 공원 지하에 있는 이회영 기념관에서 <나는 이은숙이다> 특별전을 보았다. 특별전의 주인공은 남편

과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은숙이다. 그가 육필로 쓴 자서전을 직접 보았다. 빼곡하게 쓰인 글씨가 정갈해 보였다. 그가 육필로 쓴 《서간도시종기》는 독립운동에 관한 기록물이자 우리의 역사이다. 그동안 이은숙 선생은 이회영 선생의 부인으로 거론될 뿐 주체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이 그러하듯 우리 역사는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로 간주한 것이다.

“이은숙 선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했던 어머니, 부인 등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 투쟁을 벌여온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몇 분을 제외하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지금껏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발굴해서 조명해야 한다는 책무가 생겼습니다”라고 하신 서해성 작가님의 말씀이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다.



# 새롭고, 오래된 만남들

장만순(창촌중학교 교사)



## 하나, 새로운 만남

하얀 등이 있었다. ‘극락왕생’, 이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어 아무런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극락왕생’ 글귀의 하얀 등에 담긴 염원이 전해졌다. 6월 10일에 걷는 독서에서 만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그분들’ 모두가 그러하길 염원한다. 이은숙이 있었다. 처음 가본 벚들의 모임터(우당) 이회영 기념관에서 처음 만난 분이다.

‘배끓는 서간도 긴 겨울밤…… 짝이 안 맞는 장화 한 켤레를 사주어야 했지만, 똑바로 걷고자 하는 생각이 더 굳게 된 건 고난이 내게 일러준 노선이 었다. 나와 내 지아비와 동지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다.’

-《서간도시종기》중에서

이상하게도 다시 읽어도 때마다 감동과 눈물이 함께한다.

오월의 결상, 기억6전시관, 기억의 터, 거꾸로 세우는 동상……

## 둘, 오래된 만남이지만 다시 새로운 만남

길상사, 조각가 최종태, 범정스님, 시인 백석, 자야(김영안 보살), 김광섭과 김환기와 <성북동 비둘기>, 윤중식과 이중섭, 박수근과 박완서, 김의기, 김마리아, 김상옥, 이회영, 순종 황후와 일제에 끌려간 소녀들, 남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두려움에 떨던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



나눔만이 나눔을 막을 수 있다!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라!

길게 보면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걷는 독서》, 47쪽

# 신들과 함께 있기를

정미자(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역사는 인간들의 삶이다.

왜 그렇게 싸웠을까?

그냥 있는 대로 함께 살지!

여러 가지로 포장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독립운동사,

작지만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

서울 답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눈물이 남아 있었다.

그러다 큰 복수가 떠올랐다.

김상옥, 이은숙, 이회영……

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 ○○○……

그들도 신들과 함께 있기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걷는 독서》중에서

## 6·10 민주항쟁 기념일, 역사에 말을 걸다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2023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36돌에 '역사에 말을 걸기'를 하며 걸었다. 유난히 질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나무와 거리낌 없이 지지귀는 새들은 백석과 자야 김영한, 법정스님의 환생들일까? 길상사에서는 내내 맑고 향기로운 말들이 들려왔다.

맛있는 점심 후엔 상처 가득한 남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신한 아름다운 청년 김의기의 흔적을 지닌 한국기독교회관, 독립운동가 김상옥이 처절하게 싸웠던 지금은 그냥 골목길이 되어버린 곳, 독립운동가가 고문당하던 중앙정보부가 있던 곳, 해방 후에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끝 모를 고문을 받던 공간, 남산 예장공원에 있는 경술국치터, 독립운동가 이회영 기념관…….

아는 만큼 보인다던가? 즐겁게 소풍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던 남산이 오늘은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곳이였다. 그 상처를 보듬어줄, 길을 걸으며 내게로 온 씨앗 글귀들을 적어본다. 이 시간이 씨앗이 되어 늘 '현재'로 보듬어줄 수 있기를…….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말들은 모두  
이곳에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기 있는 증언을 해준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고문 없는 세상,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억6은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에 말을 걸 때만  
돌과 시멘트도 외쳐 답을 해줄 것입니다.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역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 기억 6에서  
난 꿈을 꾸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해. - 영화 <제비> 중에서



혁명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본성대로 돌려놓는 것이고  
참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 《걷는 독서》, 160쪽



#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하는가?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일대로 역사·문학기행을 다녀왔다. 법정스님이 세우신 길상사, 만해 한용운 스님이 기거하시며 민족지사들과 교류했던 심우장,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만행을 최초로 알렸던 김의기 열사가 몸을 던진 기독교회관 등 하루 동안 참 많은 곳을 견고, 보았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등을 고문해 일제 탄압의 상징이 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경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 일제의 포로가 되느니 자결을 선택했던 김상옥 열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신 곳을 찾아가 보았다. 허름한 골목길. 이곳이 독립운동가 김상옥 열사가 순국한 곳이라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의 역사기행에 해설을 해주신 서해성 선생님께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김상옥 열사를 위해 이곳에 표지석 하나 세워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목이 메시는 모습을 볼 때는 나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회영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섯 형제와 일가족은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서전서숙’,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많은 독립투사를 양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 마침 우리가 갔을 때는 ‘나는 이은숙이다’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아내분이었다. 솔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으나 기록을 남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투쟁 활동 중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자신뿐 아니라 동지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은 마지막 거사를 치르기 전 사진 한 장만을 유일하게 남겼다. 그래서 이은숙 여사가 쓴 《서간도시종기》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목적 달성을 노력하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회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독립운동가 등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인들이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문득 떠오른다. 우리의 역사 인식은 지금 어떠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부터 우리의 역사를 다시 세웠으면 한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일어선다.

-《걷는 독서》, 139쪽

# 기억, 함께 걷는 길 위에서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2023, 6월 서울의 거리가 뜨거웠다. 6·10만세운동의 역사와 6·10 민주항쟁의 역사가 어린 오늘, 6월 10일! 서울의 거리는 뜨거웠다. 춘천에서 출발한 아침 버스 안에서부터 우리 일행은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영화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제비>(시네마달)! 공동체영화 상영권을 어렵게 받아 오늘의 서울 역사기행 답사를 위해 간직해둔 필름이었다. 다시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영화 속 '은숙'을 뜻밖에 우린 이회영 기념관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이은숙이다!' 다른 듯 같은 두 사람이 겹쳐져 내 가슴속에 깊이 박혀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새삼스럽게 처음인 듯 다시, 깊이 만났다.



오늘도 길을 걷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와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힘든 발자국들은  
한 줌 이슬처럼 바람에 흩어지니,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 고독한 길을 지금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걷는 독서》, 857쪽



서해성 선생은 거리의 강연자로 나서 선동보리밥집 입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봄, 5·18민주항쟁의 시작점이었던 기독교회관 앞 ‘오월 결상’에서, 호젓한 숲대 그림 하나 표표히 다가온 골목을 지키고 있는 김상옥 열사 항쟁터에서, 남산 자락 예장공원 ‘기억의 터’에서 이회영 기념관 앞을 지키고 있는 남도의 외로운 소나무 앞에서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며, 울컥 떨리는 목소리를 삼키며, 귀밑머리 흰 머리칼 사이 땀방울을 훔치며 나직하나 강렬함으로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수년 동안 만남으로 서해성 선생님 강연을 들었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절절하게 전하는 그분의 강연은 큰 울림이 있었다.

우당 이회영 독립열사의 호를 기리며 ‘우당(벗집)’에서 오늘 당당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손 맞잡고 함께 서게 해주신 서해성 작가를 마음속에 담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당’과 ‘이은숙’ 그리고 ‘서해성’님의 벗이 되도록 오늘 6·10 역사의 길을 다시금 아로새긴다.



#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언제든 있다

함광연(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백석과 한용운의 삶을 돌아보고, 고문의 현장도 보았다. 독립운동에 앞장서 희생된, 알려지지 않은 분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이회영 일가의 삶을 돌아보고는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가? 돌아본다.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빴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는가? 독립운동가의 삶을 본받아 거창하게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행동을 하진 못하겠지만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리는 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우리 사회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왔는가? 이제 조금씩 무엇이 잘못 됐는지 밝히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바로잡지는 못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고, 흐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사회가 차츰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싶다.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걷는 독서》, 268쪽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흐름이 되어가는 사람.

-《걷는 독서》, 620쪽

# ‘백석’과 ‘이은숙’을 만나다

황현정(동내초등학교 교사)

길상사에서 ‘백석’을 만났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자야를 향한 순백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설처럼 남아 있다. 함흥 영생고보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백석, 그리고 1980년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말년의 백석. 모던 보이 백석, 시인 백석이 평범한 양치기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니, 그를 떠올릴 때마다 쓸쓸함이 격하게 몰려온다.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의 삶이란 어떤 걸까? 그 적막함을 헤아릴 수 없기에 눈을 감게 된다. 그의 시를 더 성실히 사랑할 수밖에.

이회영 기념관에서 특별전시가 있었다. 거기에서 ‘이은숙’을 만났다. “나는 이은숙이다.” 지아비를 따라 서간도까지, 험난한 노정을 헤쳐나간 ‘이은숙’의 이야기. ‘이은숙’이 ‘이은숙’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늠할 수 없다. 아, ‘이은숙’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깊은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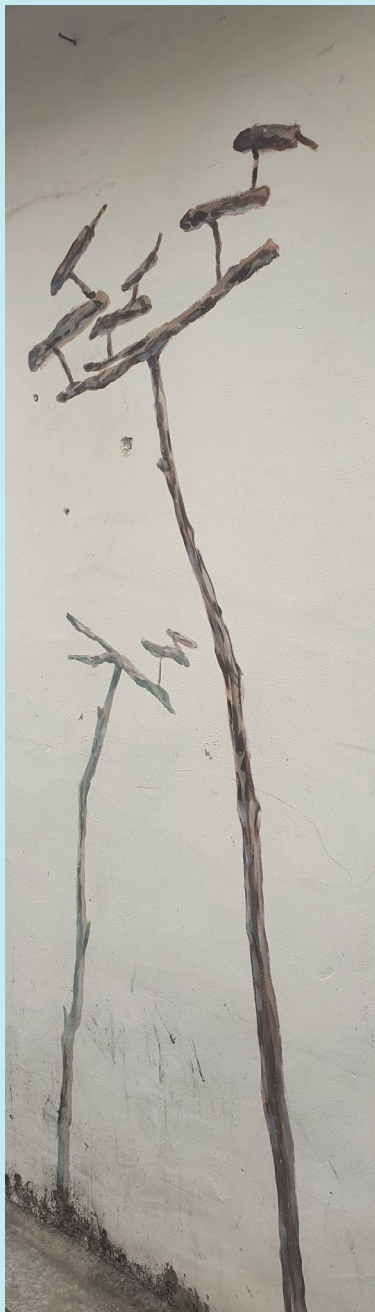
세로로 길게 길게 마음을 다해 써내려간 《서간도시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지만 ‘끝이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본다. 두 손 올려.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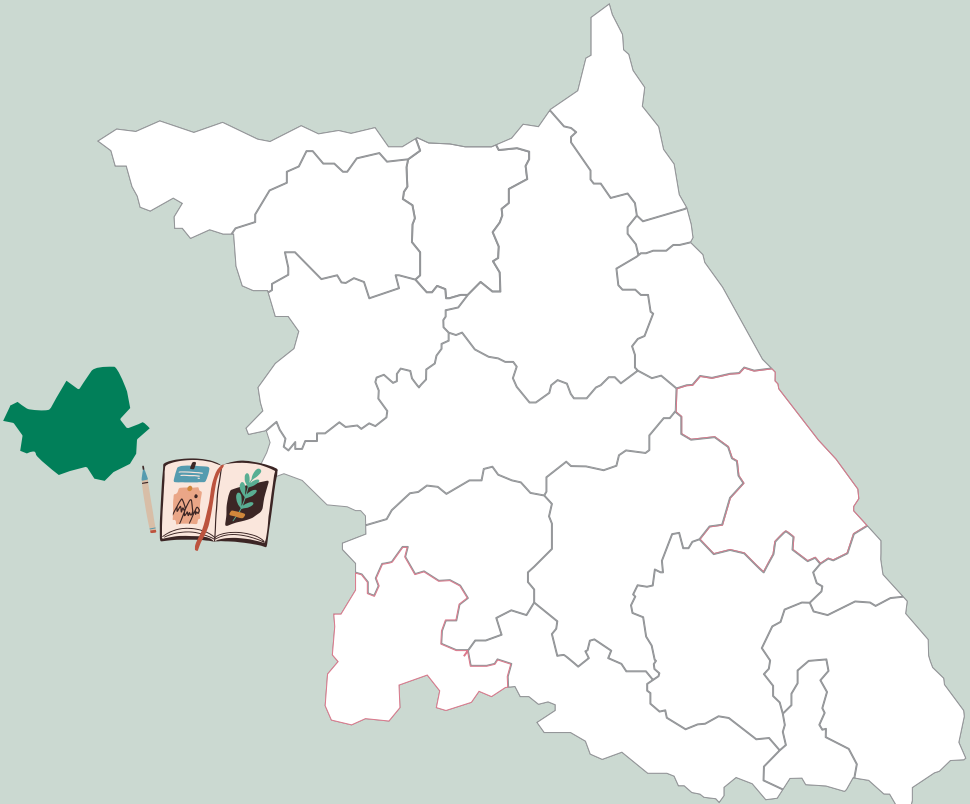
-《걷는 독서》, 31쪽



2023 인문학 여행



# 서울 역사길을 걸다(2)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9월 29일

성공회성당

대한문

서울광장

중화전





인화문터

덕수궁 윤교 터



대법원터(경성제판소)



독립기념사터



미국공사터(1883)



배재학당(1886)



보구여관(1887)



이화학당(1886)



증명전(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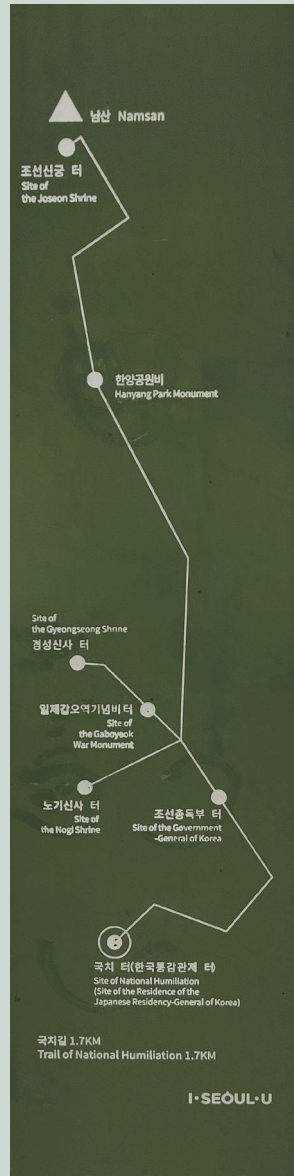
아라사공관(1885)



경교장(김구 선생)



‘인권길’은 옛 중앙정보부 6국 터(서울시청 남산 제2청사 철거지) → 중앙정보부 사무동(현 서울소방재난본부) → 중앙정보부장 공관 → 중앙정보부 남산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 → 중앙정보부 5국(현 서울시청 남산청사) 등을 돌아보는 약 930m에 달하는 구간이다.



남산권역터  
인권길(중앙정보부 공관) 구간 6  
이회영기념관



## 정동길 300m 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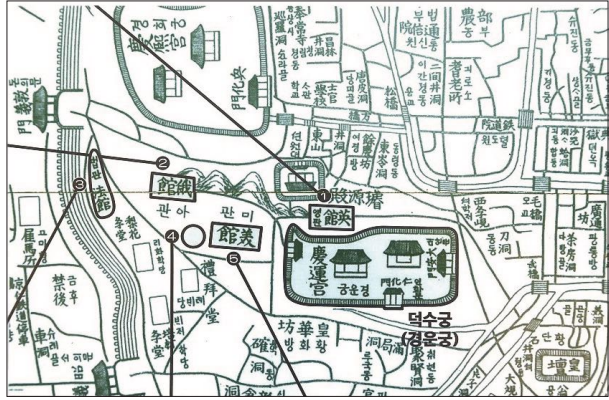
심금순(서상초등학교 교사)

뜨겁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인 가을빛이 완전한 날이다. 상반기 서해성 작가님과 서울 근현대사 답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서울 답사이다. 서울 답사는 늘 공부의 연속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일제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는 1937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체신청 청사로 지었다.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였던 귀비 엄씨 사당(덕안궁터)이 있던 자리다. 서울시는 담벼락 한쪽만 남기고 철거하여 기둥이나 벽면 일부만 기념물로 남겼다. 그래서 대성당이 시청 앞 큰길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리고 근대사의 굴곡 서울시의회 건물이 보인다. 이곳은 경성부 부립 부민관이다. 해방 직전 1945년 7월 24일 ‘애국청년 조만기, 류만수, 강윤국 등이 친일파 박준금 일당 연설 도중 폭파한 자리’라는 표지석이 남아 있다. 광복 후에는 미군이 사령부로 한국 전쟁 중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는 입법의 중심 국회의사당으로 쓰였다. 한때는 미래유산인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시의회 의사당과 사무처, 기자실 등이 들어서 있다.

다시 대한문 앞에서 왼쪽 길로 들어서면 세실극장이다. 세실극장의 지하에 있는 세실 레스토랑은 1980년대 민주화의 성지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인사들이 주로 이곳에서 만나 운동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 현대사의 각종 시국선언과 기자회견 장소로 애용됐다. 그 이유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 이 곳이 성공회성당과 연결되어 있고 명동성당과 같이 해외에 본부를 둔 종교시설은 군사정권이 받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노래가 이 헤어진 연인들 마음을 더 애뜻하게 하는 듯하다. 이 속설이 생긴 이유는 가정법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의 엄청난 일들



이 일어났던 정동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야기가 있어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 평일에는 줄지어 먹는다는 와플을 우린 어렵지 않게 맛보며 길을 따라 걸어갔다. 정동극장을 거쳐 증명전에 이르렀다. 덕수궁 화재로 고종황제가 머물렀던 증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이뤄졌다. 증명전 뒤쪽 언덕 위에는 고종이 세자와 함께 1896년 2월 11일 파천한 러시아공사관이 보인다. 1년 뒤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덕수궁으로 환궁했다. 정동은 고종을 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 일대는 근대 열강들의 외교 각축장이었다. 이 지역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 등의 공사관이 밀집해 있었다. 좀 더 걸어 올라가면 서울시립미술관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엔 경성재판소, 해방 후에는 대법원 청사로 쓰이다가 2002년부터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이곳은 많은 독립운동가가 재판을 받았다. 표지석을 통해서만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일제는 일본 학생들을 부산에서 만주까지 보름에 걸쳐 수학여행을 하게 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알기 위해 나의 가까운 과거를 알아야 한다. 서울 근현대사 답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서울을 더 많이 답사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열정적인 서해성 작가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생각하며 나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있는 것 같다.

#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침묵한다

윤선미(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서울시가 선정한 가장 걷고 싶은 길 1호는 덕수궁 돌담길로 행정구역상 '정동'에 속하지. 서울사람 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정히 손잡고 늦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끼며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싶다 했던가. 나도 그랬지. 초임 시절 좋아하던 친구와 돌담길을 걸으며 더 할 수 없이 행복했으나 그 길을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낭설대로 진짜로 헤어졌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지. 아름답고 추억 돋는 정동 길을 이순이 넘어 허벅지가 저리도록 다시 걸으면서 그 길은 개인 연애사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깊은 아픔과 슬픔이 발길 닿는 곳마다 스며있다는 것을 부끄럽고 민망하게도 이번 서울 답사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지. 서해성 작가님의 해설로 진행된 이번 역사현장 답사는 '길의 교과서' 정동길 걷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근대와 만나고 역사와 호흡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거처를 옮겨 살던 덕수궁 주변의 정동은 현재는 서울 미래 유산이 몰려 있는 문화와 낭만의 공간이지만 100여 년 전에는 힘없는 나라에 무능함까지 더해져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탓에 암울한 역사적 사건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부끄러운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황실도서관이었던 덕수궁 증명전

은 1904년 덕수궁 대화재 때 고종이 임시거처로 쓰다가 이듬해 이 건물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다니, 그저 빛바래고 낡은 건물로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곳이건만 거기에 역사가 입혀지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정동 길엔 부끄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을 따라서 걷다가 만나게 된 정동교회는 일제강점기 주권을 찬탈한 일제에 맞서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학생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3.1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며 항일 운동 횃불의 거점이 되기도 한 의미 깊은 건물이니 곳곳을 둘러보며 카메라에 담고 마음에도 담아본다. 또 경교장은 독립운동의 거목이었으며 분단을 거부하고 하나의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적 노력을 기울인 김구 선생이 마지막을 보냈던 건물이기엔 들어서서 순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옷깃을 여미고 손을 모으게 만드는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일제 침략기와 3.1운동 당시 기울어진 나라를 세우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자신을 던지며 스러져간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이나 기생들처럼 정작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며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서해성 작가님의 안타까움이 곧 내게도 전달되어 오늘날 그들



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답은 물론이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조차 어디로 향해야 할지 참으로 갑갑한 생각이 든다. 반면 친일하며 호의호식했던 권력자들은 해방을 맞아 그 죄를 척결하지 못한 치명적 오류 덕에 오히려 반공주의자로 둔갑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탄압하여 몰살하고 오늘에 이르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힘이 없으면 기록이 없어지며, 역사에 말을 걸 때만 돌과 시멘트도 외쳐 답을 해줄 것입니다.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역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는 서해성 작가님의 말씀

을 뼈아프게 공감하며 이름 없이 스러져간 역사 속 애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마음속 깊은 존경을 보낸다.

역사의식이 희미해지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저 건기 좋은 낭만의 길로만 기억할까 걱정되는 정동길! 그냥 걸어도 좋지만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걸으면 더 좋을 정동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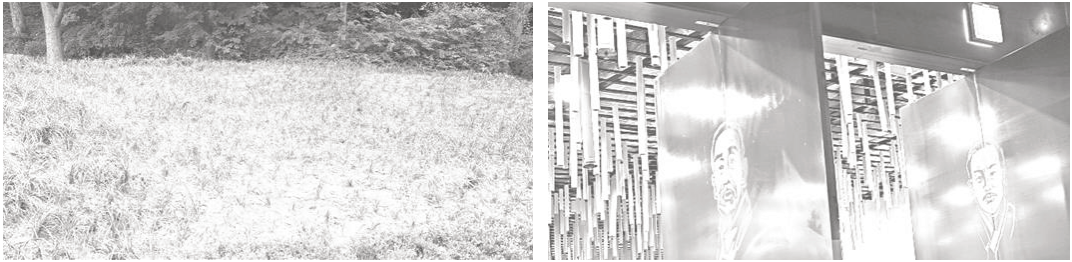
살아있는 모든 이는 죽은 자를 딛고 서 있다.

-《걷는 독서》, 104쪽



# 상실 시대의 유감

장만순(창촌중학교 교사)



## 하나, 텅 비어버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 답사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 올리신 글이 제 마음과 어쩔 그리도 똑같은지……. 하여 그대로 옮깁니다.

“임옥상 작품의 조형물을 말갱게 없애버렸다. 서울시에서 별 소문도 없이, 어떤 저항도 없이. 임옥상을 기억에서 지운다기보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의도가 아닐까. 흥범도 장군을 비롯해 항일투사를 지우고 싶어하듯. 그래서 친일은 확고하게 다지고! 친일의 죄와 성추행의 죄……“  
허망하게 사라진 조형물 터에서, 많은 생각이 밀려 한 장 찍었습니다.

## 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벚들의 모입터(우당) 이회영 기념관 입구 앞에서, 천장에 매달린 조형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석으로나마 고귀한 뜻을 기립니다. 온 국민이 온 마음으로 탄지 없이 고귀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셋, 대한성공회성당, 대법원터, 독립신문사터(1896), 경교장(1938)

서해성 선생님과 한명숙 선생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던 그곳에 생각을 붙어 넣어주셨습니다. 연수마다 상영한 버스영화관의 영화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 정동길, 근현대사 역사 현장을 걷다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2023년 9월 23일, '추분'에 서울 지역 근현대사 역사 현장을 다시 걸었다. 푸른 가을 하늘과 따가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내내, 우리 근현대사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처럼 '힘의 균형이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따라다녔다.

서울 정동길과 덕수궁, 고종의 길과 (구)러시아 공사관 길은 예전에는 주로 데이트를 즐기거나 먹고 마시며, 사진 찍기에만 바빴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며 펼쳐지는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현장이 되었다. 이번 답사를 하면서 생긴 새로운 습관은 바닥에 새겨진 기억의 표지들을 확인하면서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표지를 확인하면서 걷는 길은 눈이 부시게 푸른, 역사를 지키려 애썼던 사람들의 힘들이 스며들어오고,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되는 역사를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오후에 지난 6월에 걸던 경술국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이번 답사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일은 서울 남산 예정 공원에 설치했던 '기억의 터'가 불과 3개월 만에 사라진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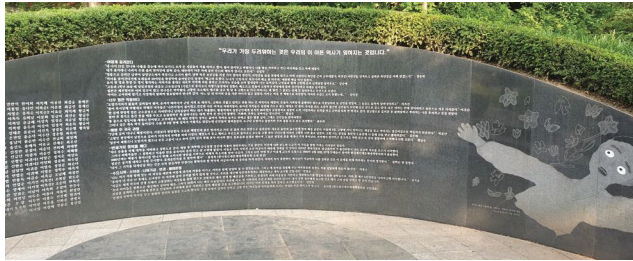


살아 있는 모든 이는  
죽은 자를 딛고 서 있다.  
-《걷는 독서》, 106쪽

정치의 본질은  
'약한 자 힘주고 강한 자 바르게'  
-《걷는 독서》, 140쪽

#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올 봄 아이들과 남산 둘레 길을 걷고 남산타워 야경을 보고 왔다. 내가 아는 남산은 그 정도였다. 그런데 남산자락 아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사 문화적 공간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덕수궁 대한문을 시작으로 대한성공회 성당, 경성재판소 터, 독립신문사 터, 아라사공서관 터, 경교장, 남산예장공원, 이회영 기념관 등 그야말로 산 역사의 공간이 남산 아래 모여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 많이 무시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추여탕 집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남산예장공원을 찾았다. 그런데 지난 답사에서 보았던 기억의 터가 사라지고 없었다. 기억의 터는 사회단체, 여성계 문화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19,755명의 국민기금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일본군 할머니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는 배움의 장이자 사색의 터가 되길 기원하며 조성한 곳이다.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과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그

림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돌에 새겨져 있던 곳이다. 지난 6월 이곳을 찾았을 때도 학생단체들이 찾아와 해설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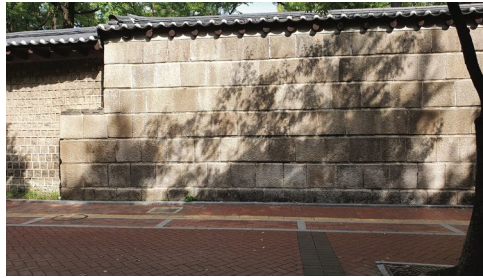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성 폭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강제 철거를 한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남산에 국치 터, 기억의 터, 기억 6 전시관을 기획하신 서해성 역사재생총감독님은 기억의 터를 반드시 되돌려놓겠다 하셨다. 전쟁과 폭력에 의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분명 사라진 기억의 터는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 기억 6 전시관에서 보았던 글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본다.

‘역사에 말을 걸 때만 돌과 시멘트도 외쳐 답을 해 줄 것입니다. 역사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때 역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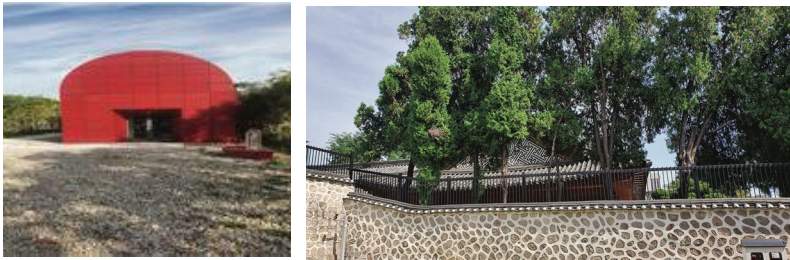
# 처음으로 다가 온 서울 역사길

최박희(간동중학교 교사)



화창한 9월, 서울 답사를 다녀왔다. 항상 서울은 가까이 있지만 가지 않게 되고, 해외 여행은 꿈꾸지만 서울 여행을 꿈꾸지 않게 된다. 이번 여정은 서울 정동 주변과 남산이었는데 예전에 가 본 곳도 있지만 이번에 처음 가는 곳도 있어서 나 스스로 자책감이 많이 들었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르면서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교육이 고대사부터 시행되다보니 근대 역사의 흔적인 서울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등한시 된 것 같기도 하다. 기껏해야 경복궁 정도나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넣을 정도이고 그 밖의 장소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해외여행 가면 각 나라의 왕궁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당연히 둘러보지만 서울의 역사 유적지는 거의 살피지 않게 되니 안타깝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꼼꼼하게 가르쳐야겠다는 나만의 다짐을 하게 되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서 미술관에도 다니고, 주변도 돌아다녔지만 돌담 성벽의 운교터는 이번에 작가님의 설명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서울 답사도 혼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는데 서해성 작가님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이곳저곳을 다니니 보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역사적인 장소인 증명전, 옛 러시아 공사관, 고종의 옛길 등은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싶은 곳이다. 서울 남산의 예장공원 기억의 길부터 주변 지역 탐방길도 교육적



인 장소로 동료교사들과 학생들과 다시 오고 싶다.

서울 곳곳에 있는 근현대 유적지와 남산의 역사 유적지 등은 많은 사람에게 꼭 가보도록 추천하고 싶고, 연수 기회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

# 서울 역사길, 인사이트투어를 마치고

홍정하(영서고등학교 교사)

9월 23일 너무 맑은 가을하늘 아래 “길의 교과서” 정동길 걷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어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다. 춘천서 버스를 올라탈 때부터 편한 리무진형 의자가 준비되었고, 버스 영화관에서 마련한 [라스트 필름 쇼]는 인도 소년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정말 멋진 영화였다. 보는 내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도착할 때까지 바깥 풍경을 제대로 못 보고 정동에 도착했고, 그나마 안 끝난 상태라 끊고 내리기 아쉬울 정도였지만 서울에서의 투어가 기다리고 있기에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열심히 따라다녔다.

총괄 안내를 맡은 서해성 작가님을 만나 서울마루(서울시의회)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덕수궁을 돌면서 대한제국의 큰 사건들이 굵직했던 을사늑약 및 복합상소 장소, 3.1운동, 6.10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던 장소. 대한성공회 성당 주한영국대사관, 윤교터, 대법원 터(경성재판소), 우리나라 감리교의 시초 제일교회(1885) 등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다시금 역사의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서 작가님의 설명은 정말 막힘없이 그 시대에서 사시다 오신 분 마냥 사실적이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참 많았다. 대한제국 당시 한 외교관에게 차를 대접하던 건물은 외국 건축양식 4~5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며 만든 건물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참 씩씩하기 짝이 없었으며, 강대국 앞의 대한제국이 얼마나 풍전등화 같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이후 증명전, 아라사공사관 터를 지나 경교장을 둘러 보았다. 특히 경교장의 창문에 난 총탄구멍이 아직도 웅한 마음을 부추긴다.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같은 분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살아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뇌리에 맴돌고 있다.

마지막 일정인 남산을 향해 다시 버스에 향했다. 남산에서는 국치터, 사라진 기억의 터, 인권길, 중앙정보부 별관, 기억6 전시관을 돌아보았다. 기억의 터

는 방송에서 잠깐 뉴스로 나왔던 그곳이었다. 6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특히 변화를 생생히 확인한 터라 너무도 속상해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삼 아쉽게 여겨졌으며 국가의 힘,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기억 6에서의 글들이 소리 없이 보여졌는데 읽어가면서 글자들의 외침 같은 느낌이 강해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이 느껴졌다.

마지막 이회영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났다. 그분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편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이번 연수는 일부 교사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연수로 많은 다른 교사들도 학생들도 들을 기회가 꼭 생기기를 바라며 연수소감을 마친다.





# 흐름

김산(시인)



나는 역사를 무겁게 여겼다. 사회탐구 과목을 정하면서 역사만은 피하고 싶었다. 한 체벌 교사가 있었다. 우린 거의 매시간 역사 교과서를 머리에 이는 별을 받았다.

대학에 왔다. 전공 필수인 바람에 역사 강의를 듣게 됐다. 바라지 않은 최고 학점을 받았다. 이유가 뭘까. 쉽고 재밌게 안내한 선생님 덕이다. 그는 교수 호칭을 바라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풍부한 이야기를 풀고, 다시 들을 뿐이었다. 최근에도 메일을 주고받았다. 나와 학문으로써 역사의 역사. 항상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두는 기사의 멋진 버스에서 <라스트 필름 쇼>를 봤다. 오전 7시 예술 영화라니. 몰입하기 힘들 줄 알았다. 인도 소년 사메이는 빛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다. 영화를 빛이라고 부르는 영혼은 별을 닮았다. 사메이는 시간이라는 뜻. 태양 제외 가장 가까운 별도 4년 동안 어둠을 걸어 이곳으로 온다. 소년은 화면보다 영사기 빛에 이리저리 손을 대보는 데 관심이 있다.

‘아이들에겐 혼자만의 비밀스런 시간이 필요하

다. 자기 안에 신성이 깨어나는 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기찻길에 유리조각을 놓고 빛을 비춰보다 이긴 아냐, 저것도 아냐! 하면서 던지고 깨버리며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

‘인간의 얼굴은 시간 속에 다듬어지고 성숙해온, 아니 그 자신의 첫 마음으로 완성시켜온 장엄한 그림이니’ 사메이가 부드럽게 표현하는 길을 발견하길.

폐기 필름이 산더미 같은 숟가락과 팔찌가 됐다.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는다. 숟가락이라는 차가운 대량생산, 당그랑거리는 팔찌는 무얼 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초입에서 사메이는 겨우 기차에 오른다. 꼬리 칸이 여성 전용임을 인지한 소년은 그들을 살피며 옆 칸으로 향한다. 모두 색색의 팔찌를 하고 있다. 필름이었던 것들. 창가자리 영롱한 팔찌는 그가 그토록 바란 빛을 투영한다. 빛은 이렇게나 가까이, 그러나 세상 끝처럼 느껴지는 꼬리 칸,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필름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으로 살아나 여전히 소년 곁에



있다. '살아 있는 한 희망은 끝나지 않았고 희망이 있는 한 삶은 끝나지 않는다' 사메이가 손가락질 잘하는 사람과 고운 팔찌를 찬 사람을 만나 동등한 길 걷길.

서해성 작가와 길을 걸었다. '가장 곧은길은 함께 걷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나를 숨 쉬게 했다. 그 틈으로 역사가 스민다. 다시 쓰는 역사. 다른 시선으로 본 역사. 역사는 연혁이며 자취다. 물 따라갈 연, 흘러가는 과정이다. 발자국처럼 친밀하고 낮은 흔적이다.

먼지 쌓인 역사책을 파라락 펼친다. 바삭거리는 낙엽 조각과 바랜 꽃잎이 살아나듯 튀어나온다.

'가을꽃을 밟으면 꽃은 발꿈치에 향기를 남겨준다 세상이 나를 밟으면 나는 걸음마다 씨앗을 심어가기'

9월 정동길에서는 어리호박별을 만났다. 은하수 같은 꽃땡강나무에서 충실히 별가루받이를 했다. 별 사진 찍는 친구는 학교 입구 양쪽 가장자리가 온통 꽃땡강나무인데, 어리호박별 온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했다. 우린 셋길로 더 가보자. 잠시 기후정의행진에 다녀온 나는 내내 맨 뒤에서 걸었다. 푹푹한 까치가 흘린 깃털. 바닷가 해초 같은 이끼 자국. 양산 씨워주는 사람. 나와 같이 뒤를 선호하는 사람. 모든 것이 새털구름처럼 흐른다.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걷는 독서》중에서

# 사라지다

이창래(강원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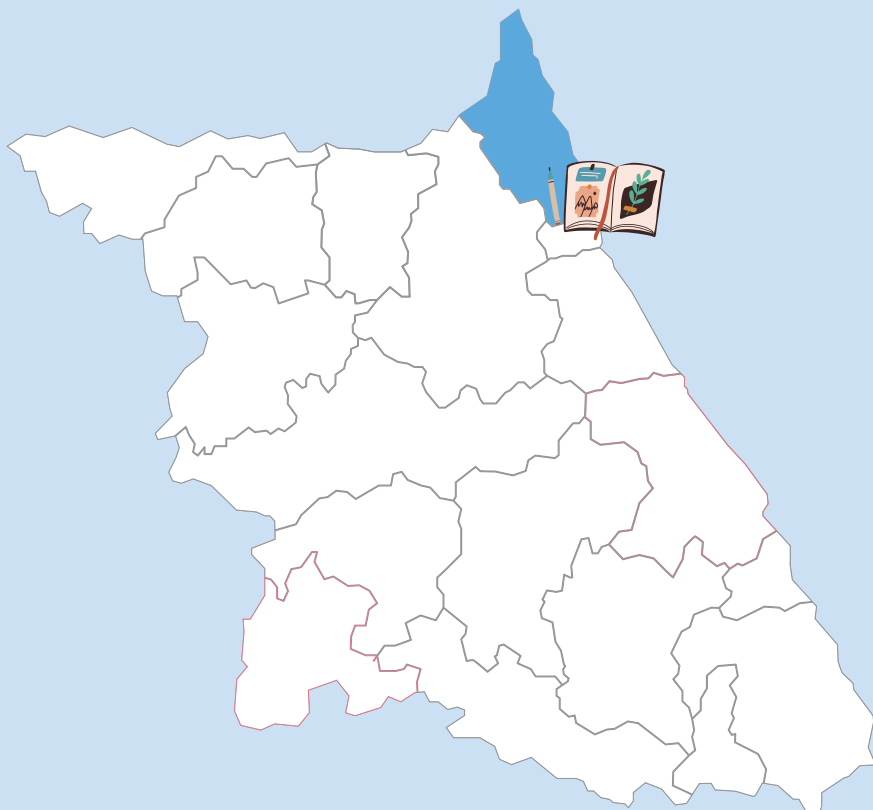


2023 인문학 여행

강릉·동해



옛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1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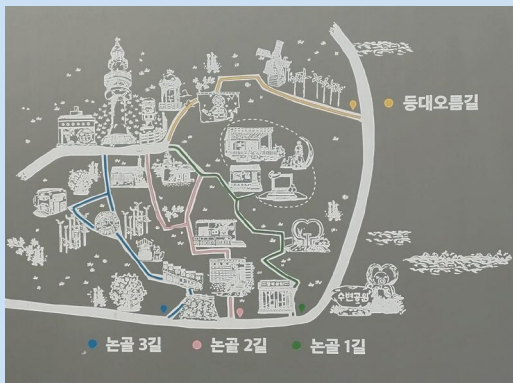
강릉 정동진



목호항 논골담길



목호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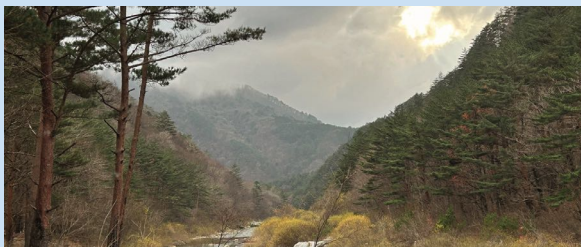




강릉 노추산 모정탐길



오늘도,  
오랜 기억을 거닐다.





# 정동진 바다부채길을 걷다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9월 초, 급성으로 허리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와 한 달 병가를 냈었다. 3주를 침대에 누워 지내며 이리다 갑자기 죽으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학교에 대한 책임감에 출근했다. 그러다 명예 퇴직 신청 공문이 온 것을 보는 순간 출력하여 퇴근해서 남편에게 명예퇴직을 하겠다 말하고 다음 날 아침 교감선생님께 나의 결정을 알렸다.

걷는 독서는 나의 교직 생활의 활력소였는데 이제는 더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다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꼭 참여하고 싶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매표소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경은 선생님이 긴 막대기를 구해 나에게 건넨다. 이 막대기를 의지하여 초입새의 길고 급경사인 가파른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일행은 이미 저만큼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짐이 될까 봐 털썩 겁이 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김경은 선생님이 나의 옆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말벗이 되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잠깐 쉬게도 해주었다. 230만 년 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천연기념물 437호) 지역을 정동진에서 심곡항까지 편도 2.86km를 70분을 훨씬 초과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아, 다행이다.

바다부채길은 흐린 날이지만 가끔 햇볕도 보여주고, 저 멀리 수평선도 바라보고, 파도는 세차게 몰아쳐서 내 가슴 속을 땡 뚫어 주었다. 기암괴석 사이에 잔잔한 풀꽃들이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했다. 교직 생활 37년을 마감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배려해주신 한명숙 선생님, 김경은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으로 살아낸 하루는 삶의 이야기를 남긴다.  
나만의 이야기가 없는 하루는 살아도 산 날이 아니다.  
-《걷는 독서》, 151쪽

## 독해(讀海)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정동’은 임금이 거처하는 한양(경복궁)에서 정방향으로 동쪽에 있다는 뜻, ‘심곡’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 정동진의 ‘부채끝’ 지형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다를 향해 펼쳐 놓은 모양과 같아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라 한다.

11월 초였지만 온화한 날씨 속에 파도 소리와 시원한 푸르름을 느끼며 걸을 수 있었다. 동해바다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200~250만 년 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라고 하니 그 신비로움이 더해져 걷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 듯했다. 길을 걷는 동안 해안 절벽에 피어 있는 작은 꽃더미를 발견했다. 늘 푸른 물결 소리를 들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 소리가 아름다워 담아와 12월을 그 소리를 벗 삼아 지냈다.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은 200만 년 동안 출렁이고 있었던 것일까? 바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모정탐길 입구 울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선생의 구도장원비 앞에 선다. 노추산에서 학문을 닦으며 쓴 글을 새긴 돌인 구도장원비에 이제 그 글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지만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할 만큼 학문에 정진한 울곡 선생은 아직 생생히 우리 곁에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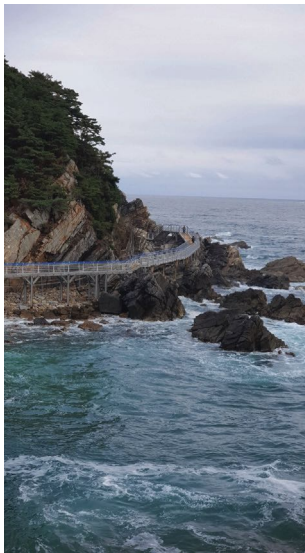
어떻게 살 것인가? 다만 걸을 것이다. 걷고 또 걸을 것이다.



삶은 어디서나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꽃이다.

-《걷는 독서》, 760쪽



해결할 것이 있고  
해소할 것이 있다.  
풀지 않으면 쌓여가는 것과  
놓아두면 풀려가는 것이 있다.  
-《걷는 독서》, 366쪽

얼음장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해맑듯  
어려움이 많은 마음일수록  
더 푸른 봄물로 흘러가리라.  
-《걷는 독서》, 822쪽

#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3년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올해의 마지막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은 대관령을 넘어 바다로 향했다.

동해의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바다부채길을 함께 걷는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첫 외출로 인문학여행을 나오신 선생님, 학급 내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 주 내내 상담으로 지친 선생님, 수능을 앞둔 아이의 입시로 인해 몸은 집을 나와 있어도 마음은 내내 아이 곁에 머무른 선생님, 그리고 오늘의 '나'는 마음에 췌켜이 묵은 먼지가 쌓인 듯 마음이 좀 무겁다. 흐린 하늘은 바다의 푸른빛을 더하고, 파도소리를 불러들인다. 구태여 일부러 꺼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마음을 나눈다.

묵호 등대마을에 오른다. 노추산 모정탑을 찾아간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 힘을 낸다. 돌탑이 가득한 징검다리를 차례로 걸어간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의 익숙한 풍경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때론 혼자, 너의 앞에서 혹은 너의 뒤에서. 묵호 등대마을의 벽화에 그려진 '오늘도 오랜 기억을 거닐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강원 교사 인문학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 나눔을 하다보면 유난히 뒷모습을 찍어준 사진이 눈에 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의 뒷모습을 정성스럽게 바라봐 준 것. 뒷모습을 담아준 마음이 새삼 몽클하다. 오늘도 오랜 기억을 함께 거닐었듯, 내일도 오늘의 기억을 함께 거닐고 싶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며 본다는 것  
어루만진다는 것은 열로 만지는 것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 간다  
-《걷는 독서》, 54쪽

# 다시 힘을 내는 걷는 독서

심금순(서상초등학교 교사)

2023년 11월 5일, 가을 단풍놀이도 시들해지고 바쁜 삶에 지칠 무렵 버스는 이른 아침부터 동해바다로 향했다. 강릉 정동진에서 바다부채길 걷기가 시작되었다. 바다 가까이 테크 길을 걸으며 바다도 보고 멋진 기암절벽을 보느라 연신 눈이 왔다갔다 바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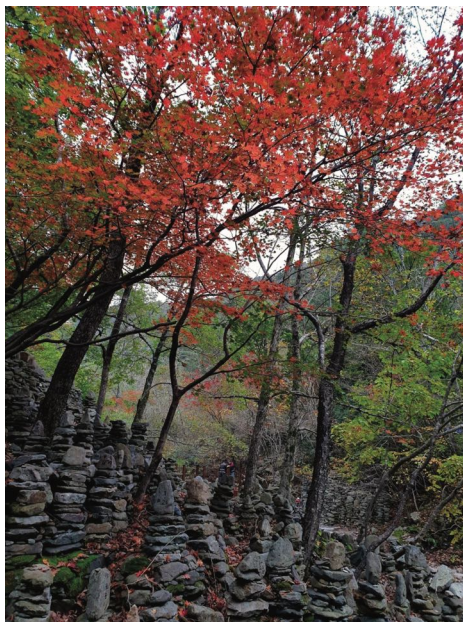
동해바다는 해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얼굴이 사뭇 다르다. 이날은 흐리면서도 언뜻 해가 비칠 듯하여 바다빛은 검푸른 회색을 띠었지만 걷기엔 시원했다. 깊고 깊은 동해 시푸른 바다는 볼 때마다 늘 강인함이 느껴진다. 어떨 때는 거침없이 왔다 미련 없이 가고 또 오는 파도는 무섭기까지 하다. 서해 바다에서 느낄 수 없는 동해바다의 매력일 수도 있겠다.

심곡항으로 빠져나와 동해에서 맛있는 해물찜을 점심으로 먹고 식당과 멀지 않은 논골담길로 바삐 걸음을 재촉했다. 논골담길은 언덕에 지어진 집 사이사이 길이 여러 갈래라 올 때마다 새롭다. 마침 구름에 숨었던 햇살이 바다에 조명을 비추니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져 여러 가지 푸른색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한 선생님께서 시원한 커피를 사주시면서 '신혼여행을 여기로 왔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라 함께 할 때마다 참 보기 좋다. 함께한 일행들이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라는 말에 멋쩍어하시는 주인공들 모습에 모두가 왁자지껄 한바탕 웃었다. 멋진 풍경 속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 참 좋다.

버스는 바삐 강릉 노추산 모정의 탑으로 향했다. 2년 전 걷는 독서 연수에서 모정의 탑을 왔었는데 그때는 단풍이 아직 남아 있어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 산골 이곳은 겨울도 빨라 단풍은 지고 대신 시원스러운 소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노추산 모정탐길이 두 번째라 익숙해서인지 가는 길이 멀지 않게 느껴졌다. 차순옥 여사는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자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말을 듣고



노추산 계곡에 들어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홀로 2년간 돌탑 3000여 개를 쌓았다. 그 이후 집안은 평온을 찾고 여사는 2011년 66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실제 거주했다는 집을 보면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고 나무로 지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더위, 추위, 벌레나 맹수가 나타날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 '살수나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밤이면 무섭고 겨울엔 얼마나 추웠을까 상상을 하니 감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꿈에 나타난 산신령 말 한마디에 탑을 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부질없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오직 남은 자식을 생각한 어미의 모정이 참 애뜻하고 절절하다.



나만을 위한 나일 때  
아 나는 얼마나 작으나.  
-《걷는 독서》, 143쪽



# 늦가을에 만난 바다부채길과 모정탑길

윤선미(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11월 오전의 정동진은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도 상쾌했다. 바다부채길은 처음 개방된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왔던지라 새로울 것도 없건만 올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기분은 늘 처음인 듯 날 들뜨게 했다. 출발지인 썬크루즈에서 심곡항까지 2.8km가 넘는 부채꼴 모양의 이 바닷길은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된 곳으로서 무려 230만 년 전 동해바다 탄생과 세월을 함께 해왔더니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은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스러지는 한없이 작은 티끌이라는 생각에 억겁의 세월을 묵묵히 지탱해낸 자연의 생명력 앞에 절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솟아난다. 여럿이 함께하며 걷는 길 내내 왼쪽은 동해바다의 질푸른 물결, 오른쪽은 기암 절경, 그리고 발 밑은 아찔하게 치고 올라오는 파도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비경으로 인해 지루한 줄도 힘든 줄도 모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맛있는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고즈넉한 늦가을 오후에 답사할 곳은 노추산 모정탑길이다. 노추산 입구에서 만난 울곡의 구도장원비 앞에서 수능을 앞둔 동료 교사 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작은 돌 하나를 비석 뒤쪽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탑이 쌓여진 산길로 접어들었다. 모정탑은 차순옥 여사가 남편의 병환과 두 아들의 죽음 등 집안의 우환이 계속되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3,000개의 돌탑을 쌓으면 우환이 없어진다는 꿈속 산신령의 계시로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발 700m 노추산 계곡에 여자의 몸으로 무려 26년간 돌 하나하나 지고 66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작은 움막에 기거하며 쌓은 돌탑이 3,000개라니! 집안의 평안과 죽은 자식의 안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저린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은 노추산 모정탑길을 돌아 나오면서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의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늦기 전에 꼭 말하고 싶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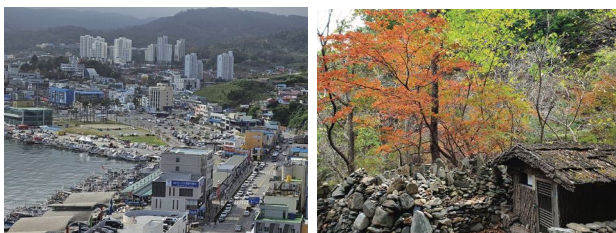


혼자서는 갈 수 없다.  
웃으며 가는 길이라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눈물로 가는 길이라도.  
-《걷는 독서》, 697쪽



# 오랜 기억을 거닐다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2023년 11월 5일.  
 바쁘고 힘든 일정에 지쳐 있던 그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해준 '2023강원교사인문학여행'을 함께 했다.  
 늘 그렇듯, 이른 아침 버스를 탔음에도 오고 가는 길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르게 했던 두 편의 좋은 영화들. <이터널 메모리>와 <여덟 개의 산>. 잃어가는 기억을 지키고자 노력하던 가족의 모습과 산을 훼손하지 않고 오랜 세월 기록을 해둔 책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함께 걸었던 바다부채길, 논골담길, 모정탐길……  
 자연이 오랜 세월 만든 바다부채길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만들어진 논골담길  
 어머니의 염원이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 낸 모정탐길……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고 했던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11월에 걸었던 그 길은  
 오랜 세월을 걸쳐 그 아름다움을 뽐내며 내게 말하고 있었다.  
 자연과 사람, 마음, 그리고 길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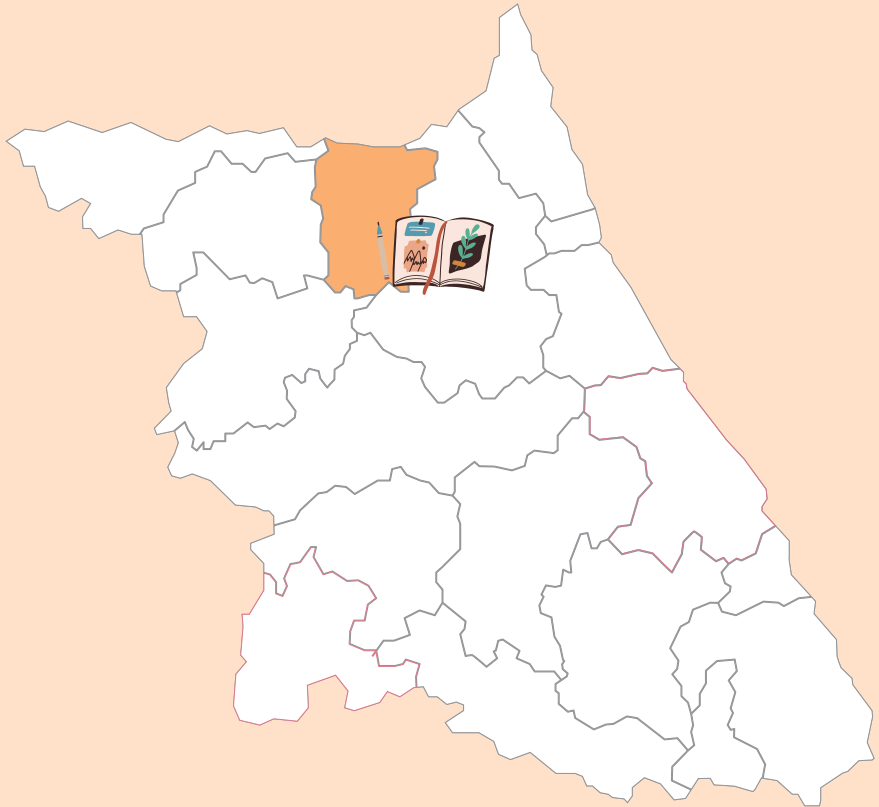
어떻게 곳곳이 견뎌내는가  
 그것이 위대한 삶의 비결이다.  
 -《걷는 독서》중에서

좋은 동행자가 함께 하면  
 그 어떤 길도 길지 않은 법이다.  
 -《걷는 독서》중에서

2022 인문학 여행



# DMZ펀치볼 둘레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4월 16일

DMZ편치불 둘레길

DMZ 통문

## DMZ편치불 둘레길

DMZ(비무장지대)의 길이는 248km이다. 그 길에는 9개의 도시가 접한다. 강원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도시가 걸하는데, 편치불둘레길은 민통선 안에 있는 양구 해안면 일대에 조성되었으며, 그 길이가 73.2km에 이른다. 총 4개 코스탐방로로 되어 있다. 해안면 마을을 빙 둘러 산자락에 조성한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숲, 을지전망대, 제4땅굴 등을 지나고 북한 땅까지 희미하게 볼 수 있다. DMZ편치불둘레길은 반드시 미리 탐방 예약을 하고 정해진 트레일 안에서 등산지도사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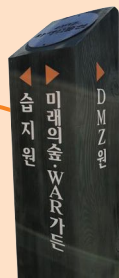
→ 걷는독서 인문학여행길, DMZ편치불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시작해 구시장 → 귀룡삼거리 → 만대2교 → 냉장쉼터 → DMZ자생식물원 → 성황당(쉼터) → 먼뫼재분기점 → 쌍솔 → 귀룡삼거리 → 안내센터로 돌아오는 제3코스 만대별판길은 총 21.12km로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 길에서는 성황당을 지키는 졸참나무 보호수를 볼 수 있고, 대암산 자락의 능선과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며 소나무 조림지 아래로 펼쳐진 만대평야의 탁 트인 경관을 볼 수 있다.



도솔산 성황당



대암산 계곡



“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 전쟁이 살지 않기를.”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다.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그냥 걸어라. 첫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내 영혼이 부르는 길을 그냥 걸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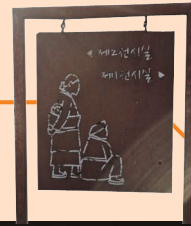
DMZ 자생식물원





백자박물관

박수근미술관



information

- 국가숲길 DMZ편치볼둘레길 [www.dmztrail.or.kr](http://www.dmztrail.or.kr)
- 숲길안내센터 033-481-8565
- 예약은 탐방 3일전까지. 코스별 20명 이상 시 숲밥 예약 가능
- \* 단체는 전화상담이 우선



# 도솔숲길을 걸으며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앞서 걸은 사람들이 후회했을지도 모를 그 길을, 길이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 걷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괜찮다. 빨리 걸어도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돌아가도 괜찮다. 돌아가며 만난 인생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 김은주의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본문 중에서

## 청명한 4월의 봄날

특별히 개방해준 도솔숲길을 걸으며 꽃말이 ‘비밀스러운 사랑’인 홀아비바람꽃과 꽃말이 ‘질투, 첫사랑 바람난 여인’인 얼레지도 만났다. 친구들이 떠나간 후 아무도 견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외롭지 않다. 내가 걷고 있는 모든 곳이 길이 될 수 있으며 이름 모를 야생화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며 걷다 보면 예쁜 꽃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하며 응원해줄 테니까 말이다.



그냥 걸어라.

첫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내 영혼이 부르는 길을

그냥 걸어라.

- 《걷는 독서》 중에서

# 가칠봉을 마주하다

김원영(강원교육연구소)



## 가칠봉

태고의 물 쉬임도 넘침도 없이 그저 물처럼 흘러보내고 참맑기 그지없다.  
바람꽃 개별꽃 노랑제비 투구꽃 얼레지 노루귀 오랑캐장구채.

하늘/바람/구름을 꿈꾸는 야생화는 까치발로 키 재기 한다.  
넉넉히 품어 야생화가 되었다.  
신선이 되었다.

그저 아래로만 흐르는 가칠봉 물줄기  
보는 이 하나 없어도 듣는 이 하나 없어도  
그저 유랑자 되어 그렇게 흘러만 가는 것.

난 그 골짜기에 홀로 앉아 가칠봉을 마주하는 座佛相이 되어 본다.



물은 세 걸음만 흘러도 스스로 맑아지듯  
내 안에는 마르지 않고 흐르는 치유의 힘이 있다.

-《걷는 독서》, 771쪽

# 나무(木)

김현숙(소양중학교 교사)

작년 가을 자신의 잎을 내어서 포근히 땅을 덮어주고 맨몸으로 추위와 바람을 맞아 온 양구 숲길을 걸었다. 그 나무들이 아직 잎을 트기 전, 4월 땅속의 기운을 받아 온몸의 수액을 저 가지 끝까지 끌어올리는 영혼의 소리를 느끼고 싶었나 보다. 나무는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했다. 그 이어짐에 가까이 가고 싶었나 보다. 그러나 근처도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두꺼운 낙엽 속에 피운 꽃들에 인사하느라고, 이름 모를 꽃들 이름 불러주느라고…….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자르면서 하늘과 연결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 연결의 끄트머리라도 느끼고 싶었나 보다. 그러나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양구 사람들이 팔다리를 보내면서 일궈낸 발들을 보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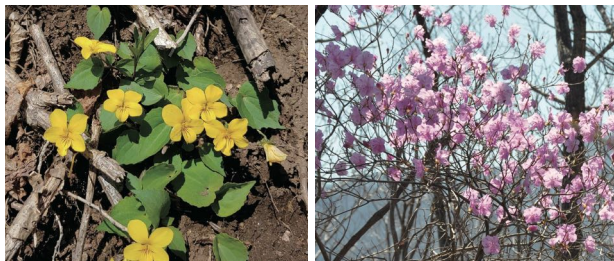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790쪽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함께 자랄  
나무 한 그루 심어요.  
기쁠 땐 안고 웃고  
슬플 땐 기대 우는  
나무 한 그루 심어요.  
-《걷는 독서》, 807쪽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올해 강원도 옛길 걷기 첫 산행으로 양구 해안 둘레길을 걸었다. 숲에는 생강나무꽃에 이어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고 산벚나무도 연분홍 꽃잎을 내밀고 있다. 해발고도가 높은 분지라서 4월에도 아침은 영하. 농부들은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까 파종에 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초보 농사꾼은 초여름 어린이날에 고추를 심는가 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8년이 흘렀는데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노란 리본을 달고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세월호 전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고 함께 분노하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억하라, 4월 16일!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작은 풀꽃들은 저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대리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은 과연 세상을 바꾸어 왔는가? 세상은 대리정치인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조금씩 바꾸어 왔을 뿐이다. 그래, 내가 정치의 주체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

-《걷는 독서》,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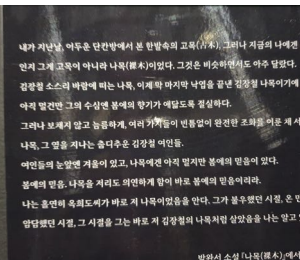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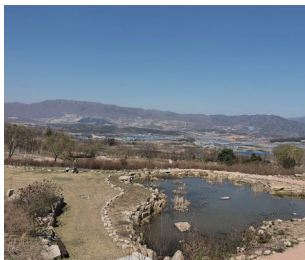
# 독지(讀地)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학교의 3월은 하늘 한번 올려다볼 겨를 없이 지나가 버린다. 코로나19는 여전한 위세로, 희망에 달떠 4월에 들어선 나를 가두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걸려 앓다가 격리에서 풀려나자 하늘은 물론 땅 한번 들여다볼 틈 없이 시간은 또 나를 지나쳐 갔다. 그리고 4월 16일. 지난가을에 왔던 양구를 다시 찾았다.

자유롭게 자라는 나무들 사이로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제 존재감을 일깨우듯 멈추지 않는 이룡폭포의 노래를 들으며 연둣빛 펀치볼(Punch Bowl) 둘레길을 걸었다. 계곡을 건너는 작은 나무다리에 이르러서야 폭포는 제 모습을 드러냈다. 계절마다 땅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았다. 전혀 다른 장소에 온 것처럼 새로웠고 싱그러웠다. 다만 DMZ 인근임을 일깨우는 철망과 지뢰 표지만은 굳건했다.

‘기적의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상 기록 남북철도>를 방영했다. 8월에 체험학습으로 학생들과 방문 예정인 ‘제진역’에서 북의 ‘감호역’까지는 10.5km. 철길을 따라 걸어도 금세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철망이 가로놓여 역시 갈 수 없다. 바라다보이는 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양구 펀치볼 둘레길도 같은 상황. 화면 속 통천군 충석정, 사선암을 보며 절로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이 떠올랐다. 학생들과 저곳을 찾아 <관동별곡>을 읊조려 볼 날





이 올까? 그날이 오길 염원하며 한 발 한 발 땅을 밟으면서 걷는 길. 땅을 잘 살피라. 거기, 생명이 있다. ‘DMZ 자생식물원’의 ‘DMZ 통문’을 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또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땅을 밟으며 걸었던 도솔산 계곡길. 이번 ‘걷는 독서’에서는 내 마음속에 그 고운 할미꽃 한 송이를 들여놓았다.

연분홍빛, 연둛빛 봄빛의 향연 한가운데서 만난 박수근 미술관. 그곳에서 〈나목〉의 화가까지 만나고 기분 좋은 고단함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오직 인간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존재다.  
 희망은, 인간의 영원한 불치병이다.  
 -《걷는 독서》, 792쪽



# 가야 길이다

박병두(강원교육연구소)

아마 20여 년 전에 양구 해안이라는 곳에 펀치볼이 있다고 처음 들었다. 그리고 오늘 강원교육연구소의 일원으로 '강원도 옛길 걷기'에 함께했다. 안내인의 설명을 따르면 펀치볼은 지형이 화채 그릇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사전에는 펀치 볼(punch bowl)이 '산간 또는 산허리의 우묵한 곳, 작은 분지'란다.

멀리에 보이는 을지전망대는 일명 '김일성고지'인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산 정상에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흘러 내려앉아 평지가 되었고, 속칭 '아이스크림고지'라고도 한다고 동행인이 알려주었다.(아이스크림 고지는 철원에 있는 고지 이름이고, 보통 집중포화로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아이스크림 녹는 것에 비유하여 쓰기도 한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처음 만난 노랑제비꽃은 세월호의 '노란 리본'을 닮은 듯도 하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이들의 아픔의 상징인 '노란 나비'와 유사하기도 한 느낌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박새, 처녀치마, 족도리풀, 여러 종류의 바람꽃 등 서로 계절이 봄임을 알려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색한 웃음을 머금게 하였다.

'DMZ 자생박물관'에서는 처음 보는 노란색 할미꽃과 히어리와 꺽쟁이풀은 사진으로 남겼다. 인간은 머문 곳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알고 있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지뢰 표지판의 경고는 '가야 길이다'라는 일반적 인간 내면의 철학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이 72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휴전' 상태임을 DMZ가, 어쩌면 추상적으로 지도상에만 있어야 할 북방한계선, 중앙분계선,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전'을 요구하는 이유다.



2022. 4. 16 (토) 아라 편지봉투이길, 박수근 12  
강원도교육연수원 형사맞춤형 직무연수과 강원도교육연  
수원 강연도 베품 행사물자광사를 견하여 아라편지봉  
투이길은 권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이  
둘러 자생 식기 식물은 살펴보았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슬만.

은 길에 아득 박수인 이슬만에 들렸다.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역사 속의 나무'를 강의 했다.  
 DMZ 숲을 걷는 시간이 식물자생지 기본위와 '순나무회'에  
 대해 설명. 풀꽃 내용은 좋아하는 차에서 \*  
 보충하려 했는데 기본적인 분위기라 생략했다. \*  
 몇년만에 갖가지 바람꽃, 연꽃지를 많이 보았다. \*  
 환하여서 큰 기운이리게 다가온 꽃은 순나무회비꽃이다. \*  
 상모초에는 남한산성 역사기행은 하였다. 큰개별꽃  
 군락사건을 흑백으로 정화하여 슬픔과 아픔을 담았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전과 이후는 숲이 달라져야 할까? \*  
 풀이 더 보이면 \*이전과 이후의 숲이 달라지지 \*  
 \*않았어야 했다. \* \*  
 \*꽃분향재를 인장 처리교체를 했는데 2경에는  
 물을 안수할 해 향안하고 코로나 국면과 맞닥뜨리면서  
 나 자신에 더 연연해 하며 8년을 지냈다.  
 '나무를 삼은 사람'로 박수인의 그림 속 크면공들드 으려  
 기침까지 많아서 관람할수 있던 것 이젠가.  
 '나무'에서 러 붉은  
 희망할수 있겠어.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2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은 4월 16일 양구 DMZ편치볼 둘레길로 시작했다. 봄별의 따스함이 손에 잡힐 듯한 계절. 양구로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올해도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구나’ 하는 내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변함없이 여행의 시작은 한명숙 선생님의 여는 말씀과 선생님들의 자기 소개였다. 준비되지 않은 인사를 주섬주섬 올리고 보니 나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을 기다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양구 편치볼, 인제 마장터, 고성 건봉사터 등 좋은 경치를 보고, 걷고, 답사하는 것도 좋았지만, 돌아보면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에서 나누는 선생님들과의 소소한 소통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내가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금질해준다. ‘생활’에 매몰되어 그냥 흘러가듯이 살다가도, 인문학여행을 통한 ‘멈춤’과 ‘성찰’로 나 스스로가 좀 더 고양되는 것인데, 마침 백석 시의 한 구절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가 떠오르기도 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폴 부르제)’ 책상 한





쪽에 이 구절을 적어놓고 보일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본다. 나에게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은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을 이끄는 여행이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걸으며 양구 펀치볼을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바닥에 엎드려 들꽃을 찍기도 하고,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 내다보이는 앞산의 불탄 모습에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함께 걸어 나가는 힘,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 하루였다.



경험은 소유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체험 속에 나를 소멸해가는 것이다.  
 -《걷는 독서》, 123쪽

# 비무장지대 생태 환경 들레길을 다녀와서

신영태(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오클라호마대학교 교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우리 민족의 여한의 상징인 곳을 찾았다. 인솔하는 한명숙 선생님의 이 인문학여행의 목적과 우리 국민으로서 바른 역사 이해하기의 중요성을 열강하시는 박준성 초청강사 역사학자의 말씀을 차 안에서 들으며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다.

가는 곳은 양구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의 들레길이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 화해 환경 탐색의 길’을 돌아보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자연을 보면서 찾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미국에서 정치학, 주로 아시아 중심과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견학은 내가 이론으로만 아는 한국 분단의 실체를 보게 되어 참으로 착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높은 휴식처에 올라가니 저 산 너머 북한이 보인다. 틀림없이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이었는데 어찌하여 70여 년을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어 놓은 이 선 때문에. 산 너머 저곳엔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 노래가 생각나고, 자연은 선이 그어졌든 말든 하나같이 닳았는데.

막막한 심정도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취하여 어느새 내 마음은 어린애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이것저것 꽃 사진 찍다가 아! 이 바위도 우리 고국의 시련을 함께 겪은 애환이 물려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내 마음은 1950년으로 되돌아가고. 나무도 꽃도 바위도 그리고 그 밑에서는 우리 오빠, 엄마, 아버지의 영혼이 아마 자연과 더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사계절 따라 피는 꽃과 나무들이 아마도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서 말해주려니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더 이 자연이 귀하게 보였고 잘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몇십 년 전에 배운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가슴에 와닿고. 암 그렇지, 찢어진 나라에도 봄은 오고말고. 그 대신 그냥 다시 융합되기를 기다리면서…… 인간이 한 일은 인간이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마지막 순서가 박수근 화백 미술관 방문이었다. 민족의 정서와 생활을 상징하는 화백의 그림은 오늘의 주제와 잘 어울렸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역사와도 잘 맞춤이 되니 이걸 구상하고 오거나 이즈(organize)한 여러 명의 능력과 진솔함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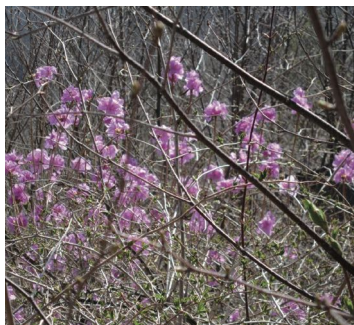
시 또 감탄했다. 경상도 시골에서 자란 나로서는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아주 익숙한 장면이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빨래하던 우리의 어머니들. 그 모습이 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언젠가는 나도 크면 해야 할 일이라고. 그 힘들어 보이던 광경이 오늘은 정다워 보인다. 그들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묵직한 마음이 없었다면 한국이 세계의 첨단을 걷는 IT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박수근 화백의 시골 풍경과 빨래하는 여인들의 그림과 더불어 갈라진 우리 민족의 한이 박노해의 한 가락 시에 함축된 희망이 보인다. “시련 속에서 계시가 온다.” 맞다. 옛 빨래 시련에서 우리는 전자왕국이 되었고 분단의 아픔을 디더 서고

세계 평화를 부른 대한민국이 될 거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즉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암 그렇지. 그래야지.

강원교육연구소, 한명숙 인솔자 그리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이 잘 짜인 프로그램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곧 가을학기에 강의할 아시아 정치와 국제정치 개론에 새로운 힘과 아이디어를 부어주었다. 이 여러 기관과 수고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잠깐 한림대 객원교수로 와 있는 나를 초청해주신 심재현 선생과 장유리 선생의 속 깊은 배려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나도 어떤 식으로 이 친절에 기여할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해본다.





# 평화의 길을 걸으며

심금순(서상초등학교 교사)

양구 DMZ 둘레길을 작년 가을에 이어 올해 봄에도 올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양구 해안 마을은 화채그릇처럼 움푹 들어간 편치불 지형이다. 이 지역은 아직도 전쟁의 아픔과 주민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숲 해설사의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북한과 4킬로미터도 채 안 떨어져 있을 정도로 북한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북한과 가깝게 마주하는 동네이기에 정부에서는 각지에서 흘러들어 온 정착민들의 집을 지어주었다. 일반 집들처럼 남향이 아닌 모두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착민들은 농사지를 땅이 없어 산을 개간해 땅을 마련하였다. 농사지를 땅을 개간하다 지뢰가 터져서 300가구 중 23가구의 주민이 지뢰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 둘레길을 걸을 때도 ‘지뢰 조심’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현실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었던 해안지역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DMZ 둘레길 걷기로 둘러볼 수 있다.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곳은 DMZ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숲이 보전되어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우리를 위로하며 맞아주는 듯하





다. 아래 남쪽 지방에서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다투어 피는데 여기는 산벚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DMZ 땅 아래에서는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며 다투어 피고 있었다. 키가 큰 나무들이 꽃과 잎이 나기 전에 야생화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서둘러 피어나는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떠올리는 날이었다. 뒤로 활짝 벌어진 꽃은 참 도도하게 보이는데 잎이 얼룩얼룩하고 뿌리가 30센티미터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열레지는 여기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닮은 것 같다. 열레지뿐만 아니라 꿩의바람꽃, 훌애비바람꽃, 노랑제비꽃, 남산제비꽃, 현호색, 땃잎현호색 등. 이렇게 예쁜 풀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었다.

이 땅에서, 이 숲에서 나는 것들로 현지 주민들의 손길로 만든 점심 숲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누린 오늘의 자유와 평화의 시간들이 참으로 고맙고 소중하며 앞으로도 이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없기를 나는 소망한다.



땅은 그대로 모순투성이 땅  
 여전한 것은 춥고 서러운 사람들  
 -《걷는 독서》 중에서

# 연둣빛 봄, 평화의 길에서

심재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걷는 독서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간 날은 금방 꽃이 필 것만 같은, 그러나 아직 꽃이 다 피지 않은 딱 그런 날이었다. 모임의 부드러운 주춧돌 김효문 선생님께서는 “양구 편치볼은 4월 말, 5월 초가 좋네요” 하시며 작년에 맨발로 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양구 DMZ편치볼 둘레길.

‘편치볼’이라는, 강원도에서는 낮선 이 외래어 지명(요즘은 글로벌한 지명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현대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름이다.

미국에서는 ‘잊힌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고도 한다는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7년 7월 27일 휴전협정까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이듬해 7월 휴전 교섭이 시작



봄이 오면 얼음 박힌 내 몸에 간질간질 새싹이 터오르고  
금방 꽃이 필 것만 같아서.

-《걷는 독서》, 68쪽



되고 남은 두 해 동안은 정전에 대비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 했던 ‘고지전’ 양상이었다. 그 고지전의 무대인 강원은 유엔 중군기자의 편치볼 명명처럼 한국 현대사의 한 허리를 깊이 파고든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가칠봉, 도솔산, 대암산, 달산령 등 높다란 산과 능선으로 둘러싸여 안쪽으로 완만한 타원의 구름 모양을 하고 있어 해안면 일대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중군기자가 말했듯이 편치볼처럼 보였다. 간질간질 새싹이 올라오는 부드러운 능선과 골짜기들이 한국전쟁 중 가장 치참하고 치열했던 ‘高地戰’이 벌어졌던 장소였다니,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이 겨우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반전이 있었다.

어쩌면 일상에서 유쾌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멀다는 이유로 불과 70여 년 전에 실재한 우리의 역사를 불편한 기억으로 치부하며 멀리해왔는지도 모른다. 양구 DMZ편치볼은 그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도 청포도 사탕 세 알처럼 연듯빛 봄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평화.



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 전쟁이 살지 않기를.

-《걷는 독서》, 532쪽

# 얼레지꽃에 대한 엘레지(Elegy)

양혜숙(방산중학교 교사)

연둣빛 분홍색 봄기운 살살 도는 햇살 좋은 날 양구 편치볼 둘레길을 걸었다. 잊고 있었다. 4·16 세월호의 아픈 날이란 걸.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 막힌 지 2년 만에 나선 나들이로 마음이 너무 달떠 있었다. 이렇게 아픈 기억도 행복한 순간에 슬쩍슬쩍 묻어가며 세월 따라 단단히 자리를 굳혀가는 건 아닐는지.

밀고 밀리며 치열했던 민족의 살육터에도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대규모 농사로 살림을 키워가며 아픔을 잊고 살고 있다. 마을을 보호하듯 둘러선 능선들에는 겨울을 견뎌낸 여린 야생화들이 꽃을 피워 마을에 봄빛을 따듯하게 비춰주고 있다. 개나리 피고,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목련은 우아함을 더한다. 남산제비꽃은 서울을 떠나서, 태백제비꽃도 태백을 떠나서 여기 해안에 뿌리를 내리고 봄 치장한 꽃들을 피워내고 있다.

투구제비꽃은 이제 더는 몽골군의 투구를 닮지 않았고, 홀아비바람꽃은 홀로 피어 있는 법이 없다. 평의바람꽃은 뾰족한 꽃잎을 꽃자루 가득 피워, 둥근 바람꽃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오롯하다. 노랑제비꽃과 분홍빛 얼레지꽃은 눈길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꽃잎 용단을 깔아놓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길 때마다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야생화 지뢰밭이다. 출입 금지 구역 철조망 앞에 아스라이 피어난 얼레지꽃이 살랑





바람에 금방이라도 꺾어질 듯 애처롭다.

두 눈 가득 꽃을 담고 가슴 가득 봄을 안고 돌아오는 길, 청명한 하늘 아래 파랑파랑한 퍼스트 클래스 리무진 버스에 앉아 느긋이 바라보는 바깥 풍경엔 가시철망에 닿을 듯 위태롭게 흔들리던 얼레지꽃들이 아른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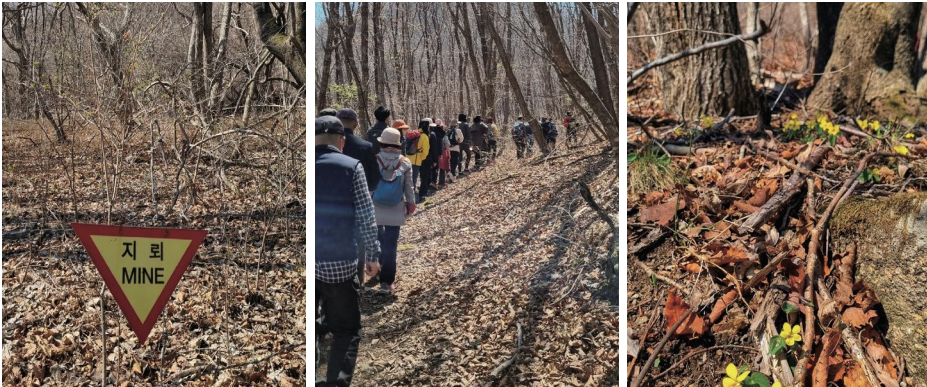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마음의 눈을 뜨고 미리 보는 봄.  
 -《걷는 독서》, 149쪽

# 가장 낮은 곳에서 봄이 오네

원영만(강원교육연구소)

양구 DMZ 평화누리길을 걸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지뢰(Mine) 표지판을 보니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위험이 따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평화는 구호나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로 현재진행형이다. 마음속으로 헤아려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지났다. 흔히 세상이 좋아졌다고 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가로막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모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제한된 산속 DMZ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롯이 햇볕을 받고 자라는 꽃을 보며 봄을 느껴본다. 꽃들은 나무들이 있을 내어 햇볕을 가리기 전에 서둘러 꽃을 피우며 봄을 알린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작은 꽃들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민중들이다. 권력과 자본을 움켜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느껴야 세상은 봄이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 봄이야, 질문하는 꽃들

유상열(강원교육연구소)



3·9 계절이 멈추었다. 현란한 역지는 위압적이었다.  
4·16의 질문을 함께하며 야생화를 만나러 나선다.

강원도 변방 외진 땅 격전과 대립의 산하 해안  
오히려 생생히 자생하는 야생화

굳은 땅을 풀어 심지를 박는 꽃들  
노랑제비, 현호색, 바람꽃, 개별꽃, 투구꽃, 얼레지.

이방인을 비춘다.  
봄이야, 앞을 보게.

얼레지는 7년 심지를 키워 꽃을 피워낸단다.  
얼레지는 7년이 꼬리처럼 자꾸 따라온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다.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걷는 독서》, 28쪽



#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장유리(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어쩌다 보니 마음을 잃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잃은 마음  
어쩌다 보면 다시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마음이 텅 빈 채 살아가려니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내게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생긴다면,  
그 시작은 인문학여행이고 싶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한 사람들.  
같은 도서를 읽고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다.

그 소중한 기억이 힘이 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올라, 2018년 그때 그 여름날의 시작처럼.





# 노랑제비꽃 하나가 되기 위해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2022년 4월 16일, 세월호 8주기에 양구 해안 편치볼 둘레길을 걸었다. 예전에는 습한 기운에 뱀이 많아 다니기 힘들었다는데, 돼지를 키우고 나서 뱀이 사라져 편안한 곳이 되었다는 해안은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 터라서 편치볼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 비무장지대였던 터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길은 낙엽이 많이 쌓여 걷는 내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폭신했다. 둘레길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대가 높아서인지 해발 600미터 이상에서 많이 자란다는 노랑제비꽃이 길가에 주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둘레길을 걸으며 만난 들꽃들, 7년을 기다려 핀다는 열레지꽃, 바람꽃, 현호색 등 쉽게 보지 못했던 꽃들이 지천이었지만 내게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었던 길이었다. 길에서 낭송해주셨던 <노랑제비꽃> 시를 다시 읽어본다.





노랑제비꽃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다 - 반칠환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었던 돌레길에서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많이 떨  
고 견딘 세월호 유족에게도 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본다.



겨울은 위로부터 으슬으슬 내려왔지만  
봄은 아래로부터 으쓱으쓱 밀어옵니다.  
겨울은 얇은 자에게 먼저 몰아쳐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견딘 자에게 먼저 옵니다.  
-《걷는 독서》, 86쪽

# 꽃 피어오는 너를 위하여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양구 편치볼 둘레길을 두 번째로 찾았다. 추운 지역이다 보니 아직 나무에 연둣빛 잎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노랑제비꽃. 예전 강원도에 발령을 받고 홍천 가리산에 갔을 때 지천에 핀 노랑제비꽃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이제까지 제비꽃은 보라색인 줄로만 알았는데 노랑제비꽃이 있다니 엄청난 충격이었다. 온 산을 뒤덮었던 노랑제비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산을 조금 더 오르자 얼레지꽃을 볼 수 있었다. 분홍빛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있는 꽃의 자태가 아름다웠다. 안내자분께서 얼레지꽃은 7년을 기다려 핀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잎이 하나 나고 꽃대가 올라오며 나머지 잎이 나고 꽃이 핀다. 매미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 7년을 기다려 땅으로 올라와 허물을 벗고 한 계절 살다가는 데 이 얼레지꽃도 그렇다니 그 오랜 기다림이 대단하고 너무 소중한 발아래 보이는 잎과 얼레지꽃을 혹시라도 밟을라 걷는 발길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을 오르며 흰색의 가냘픈 들바람꽃, 홀아비바람꽃을 만났다.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 사이 땅을 헤치고 함초롬히 피어 있는 바람꽃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아~ 이래서 야생화의 매력에 빠지는구나 싶었다.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 나무처럼 굽직한 칩닝쿨과 다래 넝쿨이 사람 손을 타지 않아 하늘 높이 얽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래오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DMZ 너머 보이는 북녘의 산과 들을 걷는 날을 고대해본다.



겨울을 뚫고 왔다.  
우리는 봄의 전위.  
이 외로운 겨울 산천에  
봄불 내주고 쓰러지기 위해  
불계 왔다.  
내 등 뒤에 꽃피어 오는  
너를 위하여.  
-《걷는 독서》 중에서

# 내 삶의 푸른 심표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스물여섯 길벗이 함께 걷는 편치불 둘레길은 DMZ 국립자생식물원에서 시작했다. 길에 들어서서 처음 만난 꽃은 뜻밖에도 노랑제비꽃이었다. 흰색과 보라색의 제비꽃은 알고 있었지만, 노란색의 제비꽃은 처음이다. 노란색에 매료되어 걷다가 고깔제비꽃, 태백제비꽃도 만났다.

길을 나서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7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보라색 얼레지, 하얀 털로 제 몸을 포장하고 대지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귀여운 우산나물, 도솔산 이룡폭포 계곡의 물소리, 계곡 옆 순백색의 바람꽃, 평의바람꽃, 홀아비바람꽃…… 봄의 한복판에서 경이로운 만남!

편치불 숲의 품에 안겨 온몸으로 봄 햇살 받으며 걷는 하루, 내 삶의 푸른 심표였다.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처럼 좋은 선물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 즐겁게 노래하는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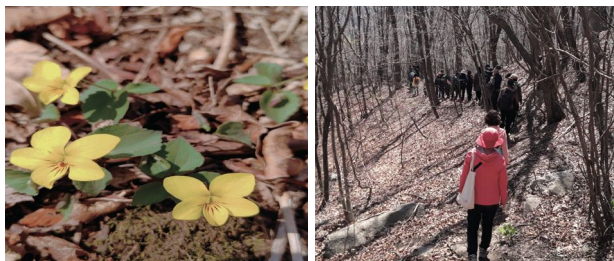


심표가 없는 악보는  
노래가 될 수 없다.  
내 삶에 푸른 심표를.  
-《걷는 독서》, 624쪽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걷는 독서》, 24쪽

# 기억, 0416! 걸으며 생각하며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봄 숲에 깃드니 나도 봄이 된다. 봄이 된 가슴이 마냥 흥겹지 않음은 잊을 수 없는 날 0416! DMZ편 치불 둘레길을 걷는다. 기억의 노란 리본처럼 노랑제비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가슴이 떡떡해진다. 지난가을, 이 길을 걸으며 새봄에 다시 찾으리라 다짐했던 건, 아직껏 쇠불이 파편조각과 철조망이 가로지른 삭막한 여기,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땅에도 못 생명의 풀꽃이 피어날지 궁금했다.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에 우리를 맞은 노랑제비꽃은 눈이 부시다. 아직은 꽃도 새싹도 없는 마른 잎 더미를 헤집고 산기슭 어디서라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만가만 피워내는 꽃들의 빛깔은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가슴 예이다.

얼레지, 분홍빛 화사함이 오히려 가슴 저린 꽃. 7년을 땅속에서 웅크리다가 일곱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두 잎 단출하게 돌아낸 자리 꽃대 하나 피워 올려 봄을 가득 담아 고개 숙인 애절함이 오히려 서글퍼진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여기저기 쇠불이가 묻혀 있는 메마른 땅을 비집고 가너린 꽃대 올려 순박의 꽃 한 송이 피워내는 바람꽃, 무수한 봄꽃들 앞에 새삼 숙연해진다.

올봄에 다시, 길을 걷는다. 오래된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마주침과 만남의 순간들이 막혔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오래된 시공간, 오래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앞선 과거'로 돌아 나오는 길을 찾아 나선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 501쪽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걷는 독서》중에서



# 꽃 지뢰

황석용(강원교육연구소)

DMZ에 가면 알레지꽃  
긴장된 땅 뚫고 솟아  
지뢰처럼 터지네

둘레길을 걸으며  
지뢰 밟을까 봐, 알레지꽃 밟을까 봐  
발끝에 자꾸만 힘 들어가네

나닌 숲에도 햇살이 골고루 들면  
수줍었던 머리 젖히고  
알레지꽃 웃으며 줄지어 월북하네

철조망으로 막아도 소용없고  
국가보안법도 가볍게 넘어가며  
분단을 조롱하듯 꽃 피어 터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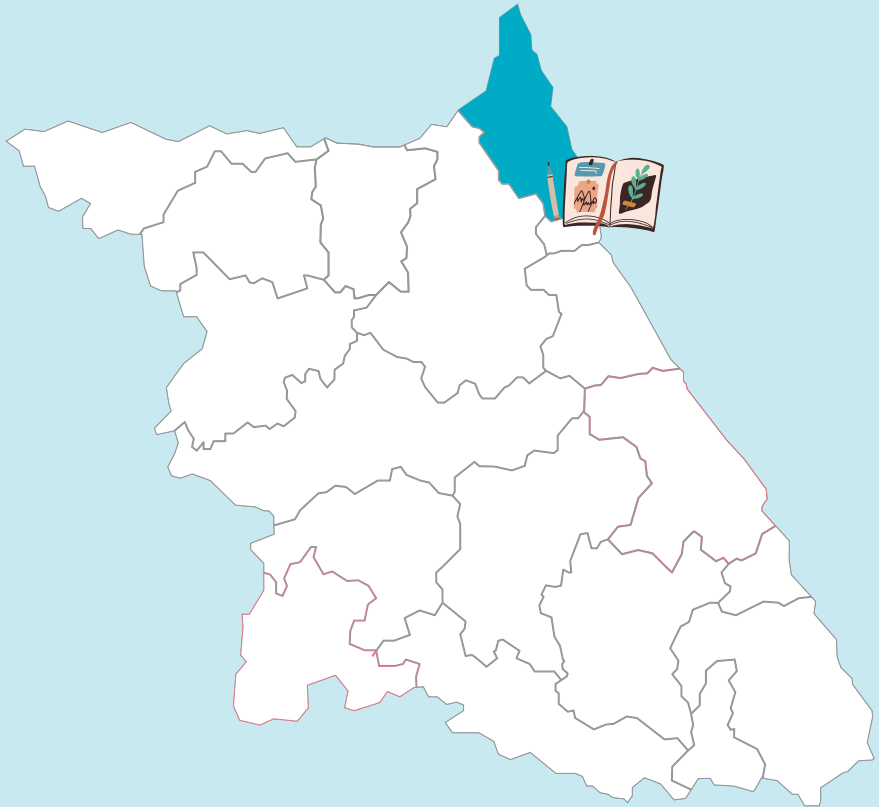
중전선언 평화협정  
변죽만 울리던 한반도 평화는  
다시 회귀하며 맴돌겠지만

알레지꽃 천지사방에 퍼져  
제비꽃 바람꽃과 어깨를 견고  
봄 전령으로 넘어가네

2022 인문학 여행



# 마장터 옛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5월 7일

고성 건봉사터

부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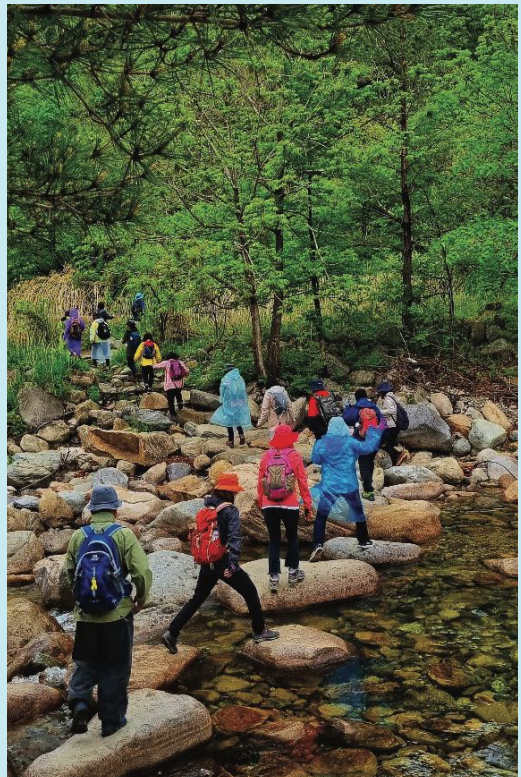


## 인제 마장터 옛길

### 인제 마장터 옛길, 새이령 가는 길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고성읍 토성면 사이에 놓인 고개, 대간령이다. 셋령 혹은 새이령으로도 불리는 대간령은 지금의 도원리와 용대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진부령과 미시령이 생기기 전에는 이 고개로 인제의 임산물, 고성의 소금과 생선이 넘어가고 넘어왔다. 경사가 완만하고 산세가 험난하지 않아 우마차와 상인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다. 여기를 넘어가는 말이나 사람이 쉬어가는 마방과 주막이, 장터인 '마장터'가 생기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도원리 마을이다. 지금은 한두 가구만 남았을 뿐이다.

도원리에서 시작해 향로원 힐링마을, 대간령 갈림길, 대간령 주막터, 마장터, 소간령, 박달나무섬터를 이어지는 12.5km, 이 대간령을 넘어가는 오르막 옛길은 사람의 발길로 다져졌다. 이젠 그 흔적마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정표가 있어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옛길은 나뭇잎에 가려지도 하고, 굴러든 바위에 감춰지기도 하지만 샘물 맛이 끝내줬다는 옛주막터에 이른다.





#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길에서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마장터 옛길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대관령을 넘어 고성군 도원리에 이르는 12킬로미터나 되는 길이다. 과거 보부상들이 말에다 물자를 싣고 걸었던 길이며 출발지는 박달나무 쉼터이다. 인제 천리길을 걷는 동안 날이 흐렸다가 보슬비도 내려 우비를 입었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기도 했으며 돌아올 땐 환한 햇살을 비추어주었다. 숲길이 시작되면서 바위와 돌이 많아 힘들 때도 있고 개울이 많아 징검다리를 원 없이 건너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숲길은 서어나무 군락지에 들

어서며 쪽쪽 뻗은 나무 사이로 폭신평신향 바닥으로 피곤한 발을 감싸주기도 했다. 연두초록한 봄의 나뭇잎들의 숲길을 걸으며 우리 집에 있는 으아리를 여러 포기 만나 반가웠으며 얼레지, 바람꽃, 노랑제비꽃, 은방울꽃, 수줍은 듯 물방울이 맺힌 연분홍 철쭉도 만났다. 천리길을 걸으며 과거 보부상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나의 삶 또한 이 숲길의 굴곡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보았다. 혼자 떠난 천리길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 둘이서 손잡고 돌아왔으니.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둘이서 오라.  
또 다른 나를 만나  
둘이서 손잡고 돌아오라.  
-《걷는 독서》, 431쪽

# 노동의 발자취가 서린 길

김소영(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등산화를 샀다. 마장터 옛길을 걷기 위해. 하루 1만 보 걷기 운동이 인기를 끌 때나 지금이나 나의 걷는 양은 하루 권장량에 턱없이 못 미치고, 등산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태백산행을 마지막으로 멈춘 지 오래다. 그런 내가 이번 걷는 독서에 참여 의지를 불태운 것은, 역시 독서보다 '걷기'에 주안점을 둔 다짐에서였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다를까, 초짜는 초짜다. 미리 공지된 우비도 미처 챙기지 못해 첫 코스인 건봉사에서부터 난감하기도 했고, 산에 오르는 중 개울을 건너는데 영서틀러 곤혹스럽기도 했다. 나름 연소자라는 꼬리표가 무참해지는 순간으로, 때마다 여러 선생님의 따뜻한 도움으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지금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우여곡절 끝, 마장터에 들러 오래전 사람들로 북박거렸을 그 시절을 상상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보양계 차오른 안갯길이 환해지고 비를 피해 숨어 있던 새소리도 명랑하게 울린다.

나는 그간 얼마나 자연에서 멀었던 걸까? 동네의 잘 닦인 돌레길이 아닌, 인적이 드물었기에 풀이며 곤충들이 제 집이다 마음 놓고 재잘거리며 살아왔을 인제의 산길. 이번 기행에서 피나무, 팽이풀, 열레지 등 5월 봄꽃이 가득한 자연을 찾았다. 그간 몰랐기에 눈여겨보지 않던 꽃무리를, 이제는 내 마음의 정원에 모신다. 다시 눈멀어 삶에서 너무 멀리 왔을 때마다 풀잎 하나 쭉 뜯어 새콤히 입맛 다셔야겠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멀어져 왔던가.  
열심히 공부해 진리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삶에서 멀어지고  
너무 많이 나에게게서 멀어져 왔다.  
-《걷는 독서》, 231쪽

지상의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뼘이라도  
자기만의 정원을 가져야 한다네.  
-《걷는 독서》, 747쪽



# 건봉사지에서

김원영(강원교육연구소)



안개 안개 안개숲 한가운데  
 건봉사지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가히 산중일학(山中一鶴)이로구나  
 천년을 지켜온 老松  
 臥佛되어 거꾸로 자라나고  
 억겁의 세월 손때 묻은 대웅전 창문살  
 연꽃으로 환생  
 천년의 修道 부족함 없을진데  
 고요 수행 적막 환생 적멸 득도(得道)……  
 건봉사지 枯死木 아래  
 生과 死가 함께 노닐고  
 사는 것만큼의 색깔로  
 숨 쉬는 것만큼의 모습으로  
 민들레 훌씨 되었다



어디서도 회의가 구름처럼 일어나고  
 무얼 해도 불안이 안개처럼 서성일 때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잃을 것만 같을 때  
 침묵과 고독의 성소를 찾을 일이다.

-《걷는 독서》, 790쪽

# 노동-마장터

김현숙(소양중학교 교사)

길이 없는 길에 길을 내면서 등짐을 지고, 말에 짐을 싣고 해산물과 농산물을 교환하던 물물 장터길. 수천 년 노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래서 산신터도 쌓인 돌담 하나하나에도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오는 듯했다. 가끔은 기생도 그 길에서 노래하고 춤췄겠지? 자식들 학비 대려고, 노부모 봉양하려고, 조금 더, 더 걸어갔겠지. 그리고 진부령 계곡에서 주는 차고 맑은 물에 그들의 발도 씻으면서 노동요도 불렀겠지? 한참을 지나온 지금도 그 길이 가슴에 소곤소곤 이야기 걸어온다.



인간의 노동과 영혼과 생의 시간이 담긴  
 돈을 벌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돈을 그러모은 부유한 자의 영혼이  
 행복하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걷는 독서》, 414쪽

# 문화유산은 공공자산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불이문은 1920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건봉사 절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조 건물이다. 절터 입구에는 승탑이 모여 있는데 이 역시 다수가 도굴되고 현재 5분의 1 정도 전해오고 있다.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넘어 문화유산은 우리가 온전하게 후세에 전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도 심각하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후대에 복구는 되겠지만 원래의 역사 문화적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린 사찰은 강원도에서만 25곳에 이른다고 한다.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상원사 등은 미군과 한국군에게, 건봉사는 유엔군에게, 선림원지 동종(804)은 한국군의 월정사 소각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들 다수는 17세기 이후 복구되었으나 몽골 침략으로 파괴된 경주 황룡사,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남원 만복사(2020년 연구소 오월 답사 중 들름)는 아직도 폐사지로 남아 전쟁의 상처를 말해주고 있다.

\* (참고자료: 불교평론, 도운수)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다. 현장이 변하면 진실도 변한다.”

-《걷는 독서》, 1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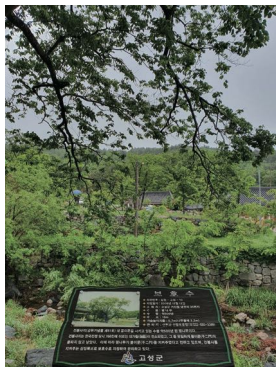
## 독목(讀木)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오월을 여는 연듯빛 지천의 산을 찾은 날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토록 늦은 답사기를 적고 있는 오늘도 비가 내려 봉의산의 신록을 한층 푸르게 덧칠하고 있다. 스스로의 게으름과 일 별임에 대해 자성하며 보낸 오월이었다. 여전히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암리 복숭아밭을 찾아 붉은 장미 위로 붉은 해그늘이 드리우도록 복숭아 속과를 할 때, 도랑의 무성한 풀내음 속에 어린 날의 나를 떠올리며, 욕심내지 말고 복숭아나무 가지에 적절하게 두 개, 또는 세 개의 어린 복숭아 열매를 남겨두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늘로 솟은 열매도 안 되고, 장가지가 뺏어나온 가지에 가깝거나 가지 끝도 아닌 곳의 열매여야 했다. 어느 위치에 복숭아 열매를 남겨야 할 것인가를 읽으려 복숭아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백겸의 <접목설(接木設)>이 떠올랐다.

(전략) ‘오호라,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





로 바뀌니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는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도다.

내가 여기에 이르러 느낀 바가 있었다.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돌이켜본다 하여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리는 일은 나무의 옛 가지를 잘라 내버리듯 하고 착한 마음의 실마리 짝을 끊임없이 움터 나오게 하기를 새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닦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후략)

고성의 건봉사에서 마주한, 전쟁에서도 홀로 살아남은 500년 된 팽나무와 인제 천리길에서 스쳐간 서어나무 군락지의 나무들, 접목을 해서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복숭아나무를 떠올려보는 날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여기서 그만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지금 스스로 그어버린 그 선이  
 평생 나의 한계선이 되리니.  
 -《걷는 독서》, 165쪽

#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박병두(강원교육연구소)

늘 먼지 같은 인생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오롯이 혼자 운전, 초행길에다 그것도 빗속을  
글 읽기보다 어려운 '네비'읽기에도 서툴러서  
빗소리보다 더한 투덜거림을 뒤통수에서 느끼며 건봉사에 안착.

오백여 년 수령의 팽나무 덕에 한국전쟁에서도 불타지 않았다는, 속세와의  
절연을 상징하는 불이문(不二門), 육바라밀에 더 보태 십바라밀 석주, 부처님  
의 진신 치아사리, 그리고 부도(浮屠)전을 뒤로하고 다시 사바(娑婆)세계로.

인제 마장터길(안내 표지판은 '인제 천리길'-인제군의 모든 길을 합하면 천  
리 정도에 이른다!)을 걸으니 나 자신 자연의 일부임에 새삼 안도감을 느  
끼다.

처음 듣고 보는 '떨가지'라는 풀, 수명과 관련된 듯한 연령초꽃, 낙엽송이라  
고만 알고 있던, 잎을 간다고 해서 잎갈나무, 부뚜막을 보양게 바르던 백토,  
짱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낭당 돌무더기, 맑디맑은 계곡물가 바위틈  
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돌단풍 등.

도시 주변 야산에서는 보기 드문, 어찌면 볼 수 없는 무수한 풀과 나무들을  
보면 저절로 숙연해지고 뭔가가 정화되는 묘한 기분에 젖어 들게 하던 마장  
터길!

그리고 유통기한 한참 지난 '인제곰배령곰취막걸리' 한 사발이 자연과 인간  
의 공존을 돈독히 해주는 가교 역할이 아닐까!





# 팽나무 같은 희망을 품고 서어나무 세상으로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5월 8일,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은 먼저 고성 건봉사로 향했다. 한국전쟁 중 불타버린 천년고찰 건봉사에 남아 있는 유일한 건축물 불이문(不二門) 옆에는 500년 팽나무가 긴 세월을 함께 서 있었다. 건봉사를 둘러본 후 일행과 함께 팽나무에 등을 기대어 쉬는데, 촉촉한 빗방울 때문인지 질푸른 녹음과 진한 흙내음이 우리를 절로 미소 짓게 했다. 언제든 등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있을까?

팽나무. 숲길이나 마을길을 걷다 보면 종종 팽나무가 마을의 당산목, 노거수로 자리 잡은 것을 보곤 한다. 제주 4·3의 현장에서도 폭낭(팽나무의 제주 이름)이 지켜보고 있었고, 세월호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팽목항 또한 팽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팽나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삭이) 패다, (꽃이) 피다’라는 데서 왔다. 고성에서 진도 팽목항을 지나 제주까지 우리의 아픈 역사와 연관 지어 생각하니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과 희망이 떠올라 눈길로 손길로 팽나무를 매만지고 왔다.

인제 마장터 옛길에는 서어나무 군락지가 있다. ‘숲속의 보디빌더’로 불린다는 서어나무가 온몸을 비틀 듯 서서 숲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카메라에 절로 손이 갔다. 다음 날 ‘김지하 시인’께서 향년 81세로 별세하셨다는 기사에, 숲속에 버티고 서 있던 서어나무 한 그루가 떠올랐다. 서어나무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의 버팀목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큰 뿌리를 내리고 가신 것이리라.

서어나무. 사실 서어나무 자체는 목재든 약재든 열매든 큰 쓸모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딱히 베어 쓸 일이 없었기에, 끈질기게 살아남아 남쪽에서는 흔하다고도 한다. 그런데 서어나무 군락지 자체는 ‘숲이 변해가다 터는 변하지 않는 안정화 상태인 극상림’을 나타낸다고 하니, 서어나무숲이야말로 김지하 시인께서 지향하신 ‘자유와 민주주의 세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



었다.

‘서어나무’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백악정에 서어나무를 식수하신 이야기까지 이르렀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전에 식수하신 느티나무와 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서어나무를 식수하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존중과 배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권 교체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쓰다 보니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건 독서 후기가 되었다. ‘서어나무 군락지’와 같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팽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희망을 품어 본다.

# 물 치고 나는 새처럼 사뿐히

신영태(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오클라호마대학교 교수)

어제 산행을 했다. 인제에서 고성까지라는데 (우리 끝까지 가진 않았다. 시간 문제로) 마장터 라고 옛날 고려시대부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물물교환하던 곳이란대. 버스로 왕복 세 시간 걸려서 중간에 건봉사라는 절도 방문했다. 사리 구경도 하면서 몇 년 전 중국에서 석가(?)의 손가락을 보관했던 사찰이 다시 떠올랐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었고 사방엔 야생초들이 비가 왔음에도 쭉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이쁘다. 그래도 “내가 더 이쁘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교수가 거짓말 하면 쓰나. 너네만큼은 이쁘려고 노력한다. 거창한 엄나무에서 기도 좀 받고. 오르락내리락 숨차게 걷는 것은 그런대로 힘만 들었으나. 문제는 찰랑찰랑 깨끗한 개울물이 계속 흐르는 돌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이다. 나아 뭐 물에 좀 빠져도 생명의 위험은 없으니 문제없으나 동행한 20명에게 폐가 될 것은 물론이고 그 깨끗한 물을 더럽히기도 싫고.

더욱이 중요한 건 내가 창피한 거다. 이 할매가 왜 따라와서……. 다음에 안



데려가면 어찌나……. 하여 옛 실력을 발휘하여 무슨 서커스 줄 타는 여자처럼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균형을 잡고 몇 개의 징검다리를 물 치고 나는 새처럼 아주 사뿐히 오르곤 내려앉았다.

일에 집중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격이라 난 그 좋은 예쁜 장면을 걷는 데 집중하느라 고만 사진을 거의 못 찍고 말았다. 그래도 간간이 휴식 시간에 몇 개 찍었으니 여러분 보시고 내가 꽃처럼 예쁘가 판단해주세요. 너무 솔직하면 무례입니다. ㅎㅎ

PS. 오늘은 하루 종일 집(방)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비도 오고 다리도 불만을 표시하고. 이렇게 무상세월 보내도 되나, 좀 불안합니다.



# 걸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심재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이렇게 많은 소원과  
 이렇게 많은 기원이  
 이렇게 많은 길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걸어보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어도 좋아요.

세월에, 바람에,  
 잘게 부서지고 쪼개진 돌멩이들이  
 가는 길마다 발걸음을 붙잡듯  
 자꾸 미끄러트려요.  
 쉬엄쉬엄 가라고,  
 답소 나누며 천천히 가라는 것처럼요.  
 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천천히 걸어요.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794쪽



오클라호마대학에서 오신 세련된 시니어 신영태 교수님과 저는 너무 천천히 걸었나 봐요.

강원도 걷는 독서 선생님들이 30분은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선생님의 선생님, 인솔자 역할을 하시는 한명숙 선생님께서

개울에서 발 씻고 오라며, 먼저 따뜻한 국을 끓여놓으시겠다며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어쩐지 눈물이 핑글.

이런 따뜻함에 어쩐지 조금 더 미안해지고, 조금 더 많이 고마워졌어요.

저도 오늘 이 마음을 담아 마장터 옛길 걸으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준 평행봉을 꼭 기도했어요.

걷는 독서 선생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 작은 것들 서로 젖어 봄이 되듯이

유상열(강원교육연구소)

도둑이 몽둥이를 들어도 꽃은 피고 지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올 터  
말도 소도 멈춘 한 시절 굽이진 태백산맥 장터길에 오른다.

걸어 걸어 길은 끊긴 듯 이어지고  
구곡양장 첩첩산중을 이어오는 새 울음  
비탈에 내리는 물소리에 젖어 내린다.  
흘러내린다.  
그래서 내린천인가.

이 맑은 울림  
바우나리의 조용한 노래  
산과 물의 화음 먼 데까지 골골이 적시고  
끝까지 퍼지고 온 바다에 이르기를

밤이 되면 어두워 또렷해지는 바람의 결 숲의 소리 별들의 이야기  
함께 젖어 흘렸을  
어깨로 등으로 모여 앉은 바우나리 곁으로  
나도 젖어보고 싶네.

인제 좁쌀, 수수 고성 가자미와 젖어 밥상에 오르고  
명태는 설악 눈물과 햇볕에 젖고 말라 팔도로 나선다는데

작은 것들 서로 젖어 밥이 되고  
길 되고 밭 되고 봄이 되듯.



비바람 속에서도  
명랑한 얼굴로 피어나는  
눈부신 꽃들에 경배!  
-《걷는 독서》, 180쪽



## 5월의 푸르름 속으로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강원 옛길 답사 두 번째 일정은 건봉사지와 마장터 옛길이다. 지난번 한명숙 선생님께서 이번 일정은 7시간 코스라 말씀하셔서 편하게 걸으려고 가벼운 등산복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순간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아~ 망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오늘 출갓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제는 내가 첫 발령을 받고 4년을 지낸 곳이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속초, 고성을 주말이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드나들었다. 나는 아마도 오늘 인제의 옛 추억을 많이 더듬을 것만 같다.

먼저 합강정 휴게소에 들러 합강정을 둘러보았다. 인북천과 내린천이 합쳐지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합강정, 이곳에서 가족이 없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 별여제를 지내던 중앙단과 박인환 시비를 보았다. 서른한 살 짧은 생을 살다간 박인환 시인. 수려한 외모에 옷을 잘 입었던 박인환 시인이 나타나면 경성 일대가 시끌시끌했다던데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을까?

비가 내려 일정을 바꿔 건봉사를 먼저 둘러본 후 마장터 옛길을 걷기로 했다. 옛길 걷기는 박달나무 쉼터에서 시작한다. 개울을 건너고 서어나무 군락지를 지나 좁은 산길로 계속 접어든다. 주위의 초록의 신록은 너무나 아름답다. 길가에 핀 연영초, 은방울꽃, 피나물꽃, 바람꽃, 별꽃 등 그야말로 야생화 꽃밭이다. 함께 걷는 분들의 나무 설명, 꽃 설명도 곁들여진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리 잘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보이는 꽃도 예쁘지만 연둣빛, 초록빛 빛깔들이 눈을 더 사로잡았다. 이래서 5월의 신록은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 그 푸르름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간다. 계속 이 길을 걷고 싶어진다. 마른 나뭇잎 사이에서 피어올린 연둣빛 빛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잎을 올리기 위해 긴 겨울 추위와 목마름을 이겨 낸 5월의 신록에 경의를 표한다.

이 푸르름을 좀 더 오래, 두고두고 음미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길을 함께 걷고 싶다.



아름다운 것들에는 치열함이 어려 있다.

아름다움은 치열한 앓음에서 탄생한다.

-《걷는 독서》, 296쪽

#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길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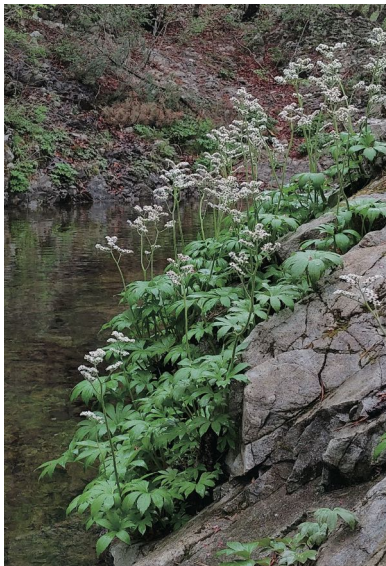
영동과 영서의 산물을 교류하고 말[馬]을 거래했던 곳 마장터는 인제 천리길 17-2구간 인제군 용대리와 고성군 토성면을 잇는 길에 있다. 인제 박달나무 쉼터에서 시작한 길은 여러 번 개울을 건너야 하고 대부분 계곡이 있는 숲길이었다. 서어나무숲과 샘터, 새이령 고갯마루의 서낭당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마장터에 도착했다.

마장터는 고즈넉하고 평온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돌단풍이 고운 자태로 바위 위에 피어 있고, 그 앞을 흐르는 개울이었다. 연둑빛 계곡의 물과 돌단풍의 아름다운 조화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소설 속 주인공 ‘빨간 머리 앤’은 자수정을 보며 제비꽃의 영혼을 얘기했다. 마장터의 돌단풍, 연영초, 황매화에 깃든 영혼을 생각해본다. 이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침묵이 필요한 걸까? 걷는 독서의 시간은 세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깊은 자아와 만나는 시간이다.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밤하늘의 별들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걷는 독서》, 770쪽



# 새이령 옛길에서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오래 전부터 마음 두었던 새이령으로 길을 떠난다. 새이령, 셋령..., 가만히 읊조려보면 입 안 가득 푸르름이 절로 배인다, 오월의 싱그런 나무들과 풀꽃, 골짜기 맑은 물길 사이사이로 펼쳐질 숲길이 떠오른다. 새이령은 인제군과 고성군을 넘나들던 옛길로 진부령, 한계령과 함께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이다.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라는 뜻에서 옛사람들은 셋령(새이령)이라 불렀다지. 이후 한자로 표기하며 아름다운 고개 이름인 '큰셋령'은 대간령(大間嶺)으로, '작은셋령'은 소간령(小間嶺)으로 불린다.

푸른 기쁨이었네. 그토록 바라던 새이령길을 사전답사하며 4월에, 그리고 5월에 내 좋은 이들과 함께 다시 걸었네. 4월 숲은 연두와 하양과 노랑이다. 봄바람에 한들대던 바람꽃 하얀 무리와 햇살아래 노랑나비처럼 찬란하던 봄매미꽃(피나물꽃)이 무리진 숲길에 걷는 이의 마음도 나비처럼 설렌다. 5월 숲은 연초록이다. 달이 바뀌는 봄 내내 가장 키작은 풀꽃으로 변함없이 도반들을 맞이하는 꽃은 은방울꽃 무리이다.

고교 시절 교문을 들어서면 진입로 옆으로 은은한 향기 머금은 채 종소리가 들릴 듯 줄을 지어 피어났던 교화였지. 그해 오월엔 은방울꽃 한가득 피어나



나로 가득 차 숨 쉴 수조차 없는 마음에

푸른 바람이 드나들도록.

비우지 않는 증은 울릴 수 없으니.

-《걷는 독서》, 444쪽

던 건물의 흰 벽에 붉은 글씨 피 흘리듯 휘갈겨 있었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하곶길에 그 벽은 분홍이었다가 끝내 다시 흰벽이 될 수 없었던 그 시절 선연한 기억 너머엔 5월이면 어김없이 은방울꽃 종소리가 아프게 떠오른다.

작은 셋령 고개마루, 오래된 음나무 우뚝 선 자리 소박한 서낭당이 걸음을 붙든다. 마장터를 향해 고개를 넘나들던 술한 장꾼들 잠시 숨 고르며 땀을 훔치며, 얼마나 많은 간절함을 여기 묻었을까……. 고개 숙여 나의 바람도 거기 묻는다. 하, 시절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염원을 들으며, 엄혹한 가시는 닳고 닳아 듚직한 기둥으로 오가는 이들의 맺힌 가슴 보듬는다. 서어나무, 이깔나무숲 노란비로 떨어 지는 가을날 다시 찾을까……. 너 거기 오래오래 기다려주렴.



# 5월은, 걷는 독서의 달

황석용(강원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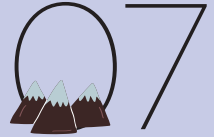
5월을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노천명의 시 <푸른 오월>에 '계절의 여왕 오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도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서두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많이 알려져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인디언 쇼니족은 5월을 '딸기 따는 달'이라고 합니다. 생산적인 삶을 중시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4월과 5월은 혁명과 항쟁으로 폭력과 야만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봄일 뿐 아니라, 꽃 같은 아이들을 어처구니없게 잃은 슬픈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과 5월을 부를 때, 그 슬픔과 저항과 분노를 딛고 미래를 향한 5월은…… '걷는 독서의 달'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봄.  
마음의 눈을 뜨고 미리 보는 봄."  
-《걷는 독서》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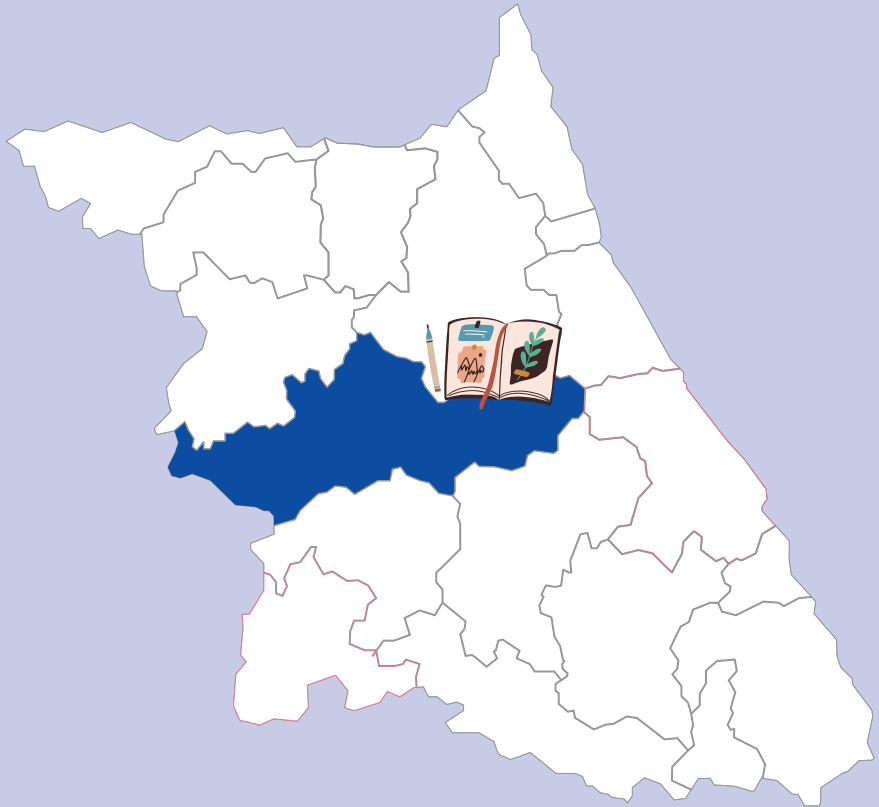


2022 인문학 여행

구룡령



옛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6월 11일

홍천 서면

동학농민운동전적지

구룡령 옛길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따듯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돌처럼 무거운 날.  
고뇌가 바위처럼 누르는 날.  
가을 강에서 물소리 듣는다.  
강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강은 노래를 잃어버리니.  
돌 하나 품고 흐르는 저 강물처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구룡령 정상



선림원지





#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2015~2018년까지 흥천 내면 구룡령로에서 직장에 근무하였는데도 금요일 퇴근하면서 그곳을 나와 주말을 춘천에서 가족과 보내느라 가보지 못했던 구룡령 옛길을 걷는 감회가 새로웠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면의 아이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던 생곡막국수도 스쳐 지났고, 빨간 양귀비꽃 무더기가 자주 보여 인상적이었다.

잠깐 정차한 내면의 오대산 막국수에서 자줏빛 꽃이 탐스럽게 핀 아까시 세 그루도 만나고, 식당 간판을 새롭게 단장한 사장님과 반가운 인사와 행복하시라는 덕담을 나눔도 좋았다.

집집마다 화단에 예쁜 꽃이 가득하고 내가 근무하던 곳도 결눈으로 슬쩍 바라보니 건물과 푸르고 싱싱한 운동장가의 정원이 보였다. 내가 떠나온 이곳을 따뜻하고 좋은 느낌으로 재회함에 감사하며 모든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구룡령 옛길을 걸으며 숲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답디나무들, 새소리와 이슬에 젖어 빛나는 거미줄을 만났고, 이어지는 가파른 S자형 길을 혼자 등반하시는 85세 어르신을 만나 계속 걷지 않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는 삶의 연속성의 가르침을 얻었다.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걷는 독서》, 31쪽

# 산이 수목화처럼

김원영(강원교육연구소)

九龍嶺에서  
산이 수목화처럼 엮리어  
쉽사리 微動조차 허락지 않는다  
온 숲이 內面의 고요함에 빠져 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엇이 그리 경건하기에  
거룩하게 양팔 벌려 推仰하고 있을까  
발가벗고 알몸으로  
차디찬 비바람 맞는  
계방산의 층층이나무  
아래  
주목 아래 산철쭉  
아래  
소나무 아래 진달래  
오늘도  
五里霧中 雲海에 빠진다

# 이 ‘옛길’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김정민(봉의중학교 교사)

나무를 보았다. 고요히 혼자 걸을 만한 오솔길을 따라 자꾸자꾸 나무가 보였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다. 국수나무인지 산수국인지 말발도리인지 산조팝인지 백당인지 고추나무인. 또 저만치 혼자서 꽃이 저버린 진달래인지 꽃이 피면 터널을 이루는 산철쭉인지, 어린 동희에게 보여주던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을 상상하며 혼자 중얼거려 본다. 나무를 보느라고 개를 쳐들고 한참을 걷는데, 여기저기서 꽃 이름이 불린다. 앵초다, 금마타리아, 감자난초네, 초롱꽃도 있어…… 민백미꽃? 나도수정란? 처음 듣는 꽃들도 들린다. 그래서 가끔 땅을 내려다보았다. 십터에서는 함박꽃도 만났다. 무수히 달린 버찌 열매를 따서 입에 넣어 본다. 이그, 시고 쓰다. 자꾸 달다고 하는 그니들이 별로다. 떡순이인 내 눈엔 먹음직한 수리취만 보일 뿐이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누군가의 배낭 속에 들어 있는 향긋한 취떡이 빨리 먹고 싶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는 거뭇하게 꽃대가 올라온 조릿대숲이 나왔다. 대나무에 핀 꽃 처음 본다고 좋아했더니, 아, 대나무는 평생 한 번 꽃을 피

우고 열매를 맺고 나서 죽는 거란다. 이런, 꽃은 선물이어야 하는데 제 생명과 바꾸는 제물이라니, 마음 한 곳이 쓸쓸해진다. 조릿대가 번식력이 좋아 토종식물을 해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저것이 처음부터 산을 망가뜨릴 심산으로 탄생하지는 않았을 터, 몇십 년 만에 고생하여 꽃을 피우고는 제 생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요즘은 별게 다 마음이 쓰이고 그렇다. 조릿대야, 수고 많았다.

쪽 걸어 내려오면서는 제법 큰 나무들이 보인다. 안내판에 ‘까치박달’이 많다고 해서 두리번거려 본다. 까치박달을 만나기 전에 아름다리 벗나무들을 많이 보았다. 산벚들은 꽃도 좋지만 수간이 아름다워서 만나면 참 반갑다. 자작나무인지 가래나무인지 오리나무인지 단풍인지 고로쇠인지 물푸레인지, 정확하게 아는 건 쪽동백과 개다래뿐. 또 《어린이 나무도감》을 상상 속에서 펼쳐 본다. 그러다 ‘독서의 어머니’께서 서어나무를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멋진 기둥이 있다니. 유화 물감을 문대어놓은 듯한, 조각칼로 거칠게 긁어 놓은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794쪽

듯한, 물결무늬 줄무늬에 온 마음을 뺏겼다. 같은 수종이라도 무늬가 다 다르다. 신의 조화가 아니고는 해석하기 어렵겠다. 서어나무, 내 취향이야. 조금 흥분이 되었다.

금강소나무를 껴안는 사람들이 환하게 예쁘다. 한동안 세속의 휘둘림에 고단했을 얼굴들이 한 시간 걷는 동안 해맑은 어린아이로 변하고 있다. 이것 또한 숲의 힘일 게다. 애막골에서도 흔한 싸리꽃 덩굴이 구룡령 옛길에서는 천연기념물처럼 귀해 보인다. 명승길이라서 더 좋아 보이는 걸까. 선림원지를 둘러보고 내려올 때, 좋은 길도 있는데 굳이 축축한 산길로 돌아오던 길에서, 산초인지 제피인지 향을 좇아 이파리를 떼어 얼굴에 붙이며 까르르까르르 웃어대던 소녀 같은 얼굴들도 귀엽다. 숲이 주는 은혜를 제대로 입은 듯하다. 산 아래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가서도 저 순하다순한 미소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마을로 돌아가 혼자자 되면 어쩌나. 불에 묻은 이파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데. 같이 있으니 이렇게 재미난걸.

역사는 가르치려거든 걷게 하면 될 것 같다. 아홉 용이 굽이굽이 넘어 다녔다는 '구룡령'에, 보부상들이 산을 넘다 힘들면 쉬었다는 '반쟁이'에, 백두대간 좋은 곳은 다 파헤쳐 제국을 살찌웠던 일제의 '삭도'에, 옛길을 따라 걷다보니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역사가 내 몸에 쌓인다. 내 땅 네 땅 정하려다 묘에 묻혔다는 묘반쟁이, 금강소나무가 아름다운 솔반쟁이, 묘지의 땅을 다지는 횃돌이 많았다는 횃돌반쟁이, '반쟁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스토리텔링이 저절로 된다. 진정 살아 있는 교육이다. 서석 동학농민전쟁 유적지에서 함께 묵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내려왔던 순간도 참 좋았다. 시들었던 역사의식이 단비를 맞는 순간이었다. 조곤조곤 말씀으로 감동 주신 박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최근 내 가슴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 성실한 신자는 아니면서도 성사를 볼 때마다 이 구절에서 '정화'가 일어난다. 형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누군가 신비의 빛을 뿌려준다. 선림원지 내려오는 길에서도 누추한 내 어깨 위로 축복처럼 안개비가 뿌려졌다. '걷는 독서'에서 함께 걸은 벗들과의 시간이 내 영혼에 축축하게 스며들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제대로 카타르시스! 몸과 마음이 벌써 맑아졌다. 그리하여 나는 '걷는 독서'를 추앙한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을 추앙하겠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다 관계에서 오는 것,  
관계만 튼튼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걷는 독서》, 814쪽



# 편파성은 당연하다

김현숙(소양중학교 교사)

언제부터인지 동전의 양면, 이중성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이번 독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도로 인근에 몇십センチ 쌓인 낙엽 위에 초여름 초록의 나뭇잎이 무성한 숲길을 보았다. 마무리와 시작이 함께하는 곳, 시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리 보이긴 하지만 시작과 마무리는 늘 함께하고 있었다. 삶도 그렇지 않을까? 출발선이 엄연히 다르다고 늘 생각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못 보고 희희비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과 악도 늘 함께할 수 있다. 공감도, 모든 이 세상의 진정성도. 내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관점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 어쭙잖은 상념인데 이것이 내가 받은 이번 산행의 화두이다.



꽃이 지는 건 꽃의 완주이듯  
죽음은 삶의 완성일 뿐.  
삶이 반대는 죽음이 아니다.  
삶의 반대는 다 살지 못함이다.  
-《걷는 독서》, 782쪽

# 백두대간 운무와 문지기 할아버지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구룡령 옛길 답사를 준비하기 위해 두 차례 사전답사를 다녀왔다. 10년 전 두어 차례 걸었던 기억은 이제 가물기물하다. 첫 번째 사전답사는 구룡령 정상 등산 시점에서 백두대간을 잠시 걷다가 강릉에서 열리는 유천초 희망 대 행진 참가 때문에 돌아와 양양 갈천분교 하산지점을 둘러보았다. 구룡령 서면 입구 문지기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하기로 협조를 구했다. 두 번째는 서석면 풍암리 동학농민운동 전적지를 둘러보고 흥천 구룡령 정상에서 양양 서면 하산지점까지 걸었다. 등반로는 무난하고 빠른 걸음으로 1시간 30분 걸렸다. 20명 이상 이동하면 2시간 30분 정도 예상된다. 10분 거리에 있는 선림원지 입구 주차장소도 점검하고 여기서 선림원지는 800미터.

백두대간을 굽이굽이 다가온 시원한 ‘운무’와 식사 장소에다 돌배술까지 제공해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린다.



힘들어야 힘이 들어온다.

-《걷는 독서》, 180쪽

# 돌 하나 품고 흐르는 저 강물처럼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홍천 동학농민 전적지는 맑고 파란 유월의 하늘을 이고 거기 있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든 전적지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평화로운 자태로 말이다.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전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자작고개에는 그들이 흘린 피가 자작자작하였다 하여 '자작고개'라 명명했다는 설(說)이 있었다. 전쟁의 상흔 뒤에는 언제나 이런 가슴 시린 이야기가 따르는 것 같다. 잘 정비된 세상의 아침을 걸어 출근할 때마다 뉴스에서 전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오른다.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인류의 잔혹함은 코로나19보다 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한다. '평화(전쟁, 분쟁 또는 갈등이 일절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가 깃든 풍암리 동학농민 전적지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였다.

구룡령 옛길을 다 넘어 '걷는 독서'를 기획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점심을 먹을 때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런데도 신록 속에서 우리 일행은 많이 웃으며 그 시간 속에서 오롯한 행복과 평화를 걸어 올랐다.



마음이 돌처럼 무거운 날.  
고뇌가 바위처럼 누르는 날.  
가을 강에서 물소리 듣는다.  
강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강은 노래를 잃어버리니.  
돌 하나 품고 흐르는 저 강물처럼.  
-《걷는 독서》, 623쪽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사찰이 번성할 당시 한 끼 쌀 씻은 물이 계곡을 따라 하류까지 이르러 미천골(米川谷)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說話)가 전해지는 선림원지에 다다랐다. 5월에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세계 기아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미천골의 설화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굶주리는 일이 사라지기 또한 간절히 염원하였다.

‘걷는 독서’를 운영해주신 선생님들과 강원교육연구소 선생님들, 한림대학교 인문학센터 선생님들, 함께 걸으며 스승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찌해야만 함’은 최선을 다해 분투하라.  
- 《걷는 독서》, 377쪽

# 단단하게 얽히고설킨 삶을 떠올리며

박병두(강원교육연구소)

6월 11일 토요일! ‘포문동(抱問童) 2022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의 세 번째 과정 ‘동아시아 불교 전래의 역사/홍천에서 양양까지’ 답사에 함께했다. 원영만·황선희 선생님 덕분에 구룡령 정상에 가쁘히 넘었다. 600미터 정도에서부터 가지거리 10미터 운해를 뚫고 오르는 순간순간은 마치 이슬을 먹고 구름을 밟으며 산다는 신선들의 보금자리, 선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춘천에서 오신 일행에 합류하고, 산림청 해설사의 구수한 입담을 뒤로하고 구룡령 옛길 정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안개 자욱한 시원한 날씨 만큼이나 가벼웠다.

매번 산림 속 숲길을 따라 걸을 때면 처음 보는 듯한 꽃이며 풀, 나무들을 만나고,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새롭게 눈길을 주게 되는 기쁨과 경이를 느끼게 된다. 이번에도 민백미꽃, 금마타리, 노루발 풀꽃…… 무엇보다 수십 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조릿대꽃을 보게 되었다. 누구는 백사(조릿대잎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산다는)를 살피고, 나는 봉황

(대나무 열매만을 먹는다는)의 울음을 기대한다.

생존의 몸부림이자 경이로움인 듯한 ‘벼랑을 거머쥔 솔부리’를 보면서 노동자의 단단한 삶과 얽히고설킨 민중의 삶을 떠올린다. “천해야 세상을 볼 수 있고, 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천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세상 구석구석에 사는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며, 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는다.

‘결초보은’의 고사에 얽힌 풀 한 무더기를 발견하고 사진으로 남겼는데, 풀이름은 끝내 물어보지 못하고……. 답사 준비팀이 정성껏 마련한 상추, 곰취, 수육, 막걸리, 돌배술에 그만 눈이 멀어서?! 태풍과 홍수로 산이 무너지면서 덮어버렸다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석등, 부도, 홍각선사탑비 등을 보고 ‘복원’의 문제점을 가늠했다. 스님들이 많아 쌀 씻은 물이 남대천까지 흘러가서 미(米)천골이라고!



#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는 길 위에서

심금순(서상초등학교 교사)

인디언 달력에서 '6월은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이라고 한명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며 구룡령 옛길 걷기의 화두를 열어주셨다. 백두대간 한 구간인 구룡령 옛길을 걷기 위해 숲으로 걸어갔다. 능선을 따라 뿌연 안개가 숲을 에워싸고 있어 새벽 같기도 하고 저녁 같기도 하여 시간의 경계를 잊어 버린 듯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같다. 산신령이 나올 것 같다. 비가 내린 뒤 숲에는 거미가 부지런히 만든 거미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구슬비> 노래에 나오는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가사가 확 와닿을 정도로 생생하다. 거미줄 하나를 발견한 후부터 거미줄은 계속 눈에 띄었다. 고요한 숲을 걸으며 온 감각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머무를 때 비로소 대롱대롱 걸린 거미줄도 보이고, 청초한 분홍색 앵초도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100년에 한번 피고 죽는다는 조릿대(산죽)꽃을 처음 보았다. 아마 그렇게 대밭 전체가 꽃을 피웠으니 한꺼번에 고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같아 마음이 숙연해진다.

구룡령을 내려올 때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구룡령 옛길을 혼자서 씩씩하게 오르시는 어르신을 만났다. 그리고 구룡령 아래 골짜기에 사시는 어르신도 만났다. 마당과 채마밭은 주인의 손길이 매일 닿은 듯이 정갈하다. 그리고 지나가는 객들에게는 무엇이든 내어주는 후한 인심을 베풀고 사시는 것 같다. 두 어르신을 보며,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걷기를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정갈하게 늙고 싶다.



자주, 그리고 환히 웃어요.

가끔, 그리고 깊이 울어요.

-《걷는 독서》 중에서

## 구룡령 옛길, 대간(大幹)에 서서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2년 6월 11일 구룡령. 해발 1,013미터, 고개를 넘던 용(龍)이 쉬어갔다는 그 옛길을 따라 걸었다. 내가 20대였던, 그 언젠가 들러봤던 휴게소는 이제 문을 닫고 정상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이동통로가 남아 있을 뿐이고, 안개 속에 우리는 길을 나섰다.

체로키족은 6월을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이라고 했다. 한명숙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인지, 이슬이 걸린 거미줄마다 길을 함께 나선 일행에게선 탄성이 터진다. ‘거미줄 하나에 터지는 감동이라니…….’ 모두들 보물을 찾은 듯 조심조심 거미줄에 다가서서 휴대전화를 들이댄다. ‘아, 진짜 이 여행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여행이 아닐까?

인문학(人文學)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 분야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결국 인간만이 지니는 본성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것. 그것은 백두대간 숲길에서 만난 거미줄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태도가 인문학을 바로 세우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감자난초, 앵초, 싸리꽃, 나도수정란풀. 이런 작은 야생화 하나하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존재하기도 한다. 아니 반대로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가 지워지기도 한다. 바라보자. 기억하자. 마음에 담자. 그리고 그 작은 존재를 지키자.

구룡령 옛길, 대간(大幹)에 서서 가슴에 새겨본다.



생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원이고  
생각의 방향이다.  
-《걷는 독서》, 78쪽





## 2022. 6. 11 (토) 강진 옛길 걷기 - 구룡령, 선암원지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4시 30분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4분 이내에 택시가 없다는 신호가 계속된다. 끈기 잡고 앉은 아내를 깨워 차를 탔다. 5시 죽미역에서 방삼리행 첫 전철을 탔다. 청양역에서 ITX 정중. 남중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옛한방병원까지 갔다. 호반재휴관에서 출발하는 보대보다 일찍 도착했다.

동홍천 IC에서 나와 서쪽으로 갔다. 풍암리 전동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렀다. 강진로 동학농민혁명비나 서상전투를 살펴보았다. 세워있는 램이 동학혁명 기념탑이나 유언을 했다. 잔디광장을 돌아 비스르가면서 행정목처럼 익숙한 광천무를 불렀다.

비면 창호 '연대말쑥' 정서 구름한 수목사당을 찾아 구룡령으로 갔다. 안개가 많이 끼었다. 구룡령 정상에 서면 늘 연대산까지 백두대간 구간을 못 걷는 것이 아쉽다. 백두대간 구룡령 - 전침령 구간을 일부만 다다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이동암이 처음 세웠다

대간 위 옛구룡령 정상에 만났다.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서 양양군 서면 갈천리를 잇는  
 고개다. 버스로 구룡령을 넘을 때마다 지금같은 이 고개가  
 예전 사람이 갔던 고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옛길을 따라가 보면 알았다.  
 구룡령 옛길은 전혀 다른 길이다. 내면에서 2대산 줄무늬를 따라  
 1894년 강원도 정부내를 지방 통치농민회의 천주거점지다. 양양의 북부  
 민초들이 백두대간을 넘어왔다. 양양에서 넘어와 양수를 풀기 위해  
 고개를 넘어 넘어온 고개를 선제가 만든 길사 했으며 좋았다.  
 산길은 길의면서 낮은 산에서는 보기 힘든 민백미꽃, 큰양초, 큰개쑥, 큰개쑥,  
 갈대밭을 보았다. '나르후지산'로 보았다. 보기 힘든 민백미꽃, 큰양초, 큰개쑥, 큰개쑥,  
 몇몇은 풀꽃, 나무이름을 잘 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아래 갈밭에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알았어진다. 지가 밟아한 것만 있지만 확실히 좋은 것만 있다.  
 하산해서 수목과 취향을 전심을 알았다. 혼자 사는 91세 노인네가 자리를  
 세우고, 김치로 된 흰밥 채소도 뜯어가게 하였다. 마당앞에 있는 들메나무에서  
 딸 들메를 잡고 술을 한잔하였다. 정겹하고 깨끗하게 쉬었다.  
 선암원리는 예전야 버스로 갈라지거 않았다. 삼흥사당, 승랑이단,  
 석등, 승랑비가 상당히 좋은 풍경이 산재물들이다. 지원사당이 개 쉼터라고  
 짐작된다. 가까이있는 도의사사가 선암원리 전전사, 승산사 타 연천,  
 강릉의 승산사 타 연천사키 다사 쉼터에 보아야겠다. 서서 강릉승산사  
 이야 부탁받았다치고 선암원리는 중이할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  
 알지못한 이변가 있다. 홍천에서 6시쯤 서남해 버스를 탔다. 6.24(수)로  
 은 줄무늬 산이나 비슷하게 강원도 통치농민회의 역사기록을 한다.

# 구름 속의 산책

양혜숙(방산중학교 교사)

더운 날씨에 타들어가는 긴 가뭄 속에서도 구룡령 숲은 촉촉이 안개비가 내린다. 연무에 싸인 숲속은 판타지 영화의 배경이라 해도 좋을 듯 몽환적인 분위기다. 걷는 독서는 이렇게 매마른 삶을 단비로 적셔주는 휴식과 힐링의 시간이다.

춘천을 출발하여 흥천 서석 동학혁명군 전적지 위령탑에 들렀다. “생각을 말자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동학군 목숨 다 바친 자작고개 역사를.” 자작고개 노래비에 새겨진 가사를 가슴에 새기며 구불구불 뱃재를 넘어 아홉마리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구룡령 고개에 올랐다. 고개마루에서 산림청 소속 자부심 넘치는 숲해설가의 위트 있고 해학 넘치는 안내를 듣고 구룡령 옛길로 접어들었다.

숲은 항상 어머니의 품과 같은 치유의 공간이다. 쉬이 남의 눈에 떨세라 굽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앵초, 감자난, 나도수정난, 금마타리의 꽃들을 활짝 열어 환영해주고 싸리꽃, 함박꽃의 은은한 향으로 감싸준다. 5~6년에 한번 꽃을 피우고 사라진다는 조릿대마저 꽃을 내어준다. 꽃들의 향연에 취해 걷다보면 수백 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하늘 향해 우뚝 자란 우람한 자태의 금강송들이 인간의 품으로 잴 수 없는 백두대간의 기상을 보여준다.

아흔아홉 굽이 구룡령 옛길 정상에서 양양 갈천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절반 지점이라는 뜻의 반쟁이들을 만나게 된다. 묘의 회다지에 쓰이는 횃돌이 많



비바람 속에서도  
명랑한 얼굴로 피어나는  
눈부신 꽃들에 경배!  
-《걷는 독서》, 183쪽

이 나온다는 횃돌반쟁이, 금강송이 군락을 이룬 솔반쟁이, 양양과 홍천의 경계를 정할 때 양양 땅의 경계를 더 넓게 하려고 뛰어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는 젊은이의 묘가 있는 묘반쟁이 등 이름은 정겹지만 그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마음 짠하다.

구룡령의 품을 떠나 칩이 많이 나와 곤궁한 시절 칩으로 연명했다던 갈천을 지나서 선림원지로 향한다. 미천골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승려들이 공양 때 먹을 짬 씻은 물이 계곡을 온통 뿌영계 만들 정도로 번창했던 사찰은 산사태로 매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세기에 와서야 발굴되었고 지금은 삼층탑, 승탑, 석등, 홍각선사탑비만이 남아 통일신라 말기의 사찰임을 알려주고 있다.

돌아오는 길, 펑펑한 다리와 나른한 전신과는 달리 마음은 촉촉해지고 머리는 춘천의 쨍한 날씨만큼 맑아져 있다. 뜻맞는 분들과 마법의 숲 구름 속으로 소풍 다녀온 값진 하루다.



# 안개 숲 너머 풍경을 그리다

원영만(강원교육연구소)

해발 800미터부터 안개가 길을 막는다. 가지거리 5미터 내외. 해발 1,013미터 구룡령 정상까지 안개 숲이다. 높은 고개를 넘을 때면 항상 겪는 일이다. 수십 년 전 전교조 회의를 끝내고 한밤중에 혼자 차를 몰고 철원 수피령을 넘어 집으로 갈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갔던 기억이 언뜻 스쳐간다. 오늘은 동행이 있어 든든하다. 살다보면 혼자 결정하고 홀로 걸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가끔은 사망을 가늠할 수 없는 희뿌연 안개 속 같은 세상에 주저앉기도 한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삶의 등대가 필요하다. 먼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다.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 켜켜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나무, 풀, 꽃 그리고 이 길을 오르락내리락했을 동물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 지나온 긴 세월을 말해주듯 평온한 숲속에 아름답드리나무들이 즐비하다. 곳곳에 생을 다하고 쓰러진 나무들이 숲한 생명의 은

신처나 거름이 되고 있다. 참나무, 서어나무, 산벚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모두 햇빛을 받기 위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숲에서도 생존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침엽수인 소나무는 성장이 빠른 활엽수와 경쟁에서 밀려 바위틈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숲속과 달리 자본 권력의 사적인 이윤을 위해 만인을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노골적인 폭력 착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며 조금씩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지만, 실감 나지 않는다. 이만큼 왔다고 여겼는데 어느새 그 자리가거나 뒤쳐진 느낌이다. 언제나 자본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리라.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안개처럼 희뿌연 자본의 세상을 걷어내고 서로 연대하며 함께 걸어갈 세상은 어떤 풍경일까. 안개 숲을 걸으며 생각해본다.



# 밥이 하늘이다

유상열(강원교육연구소)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공원의 조성물은 빈약하고 그 의의를 표현하는 데는 많이 아쉬웠다. 그러나 사는 곳 가까이 이런 기념비가 있다니 막연했던 역사적 항쟁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밥이 하늘이다’는 동학의 구호가 절대왕권을 부정하는 구한말 백성의 근대적 주체 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로 다가왔다. 더구나 동학의 조직 형태가 각 지역의 연합체라는 설명은 자치적·민주적인 상당히 발전적인 가능성을 가늠해볼게 된다. 그때는 패퇴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이렇게 품어 오고 있는 게 아닐는지?

산행을 하며 자주 만나던 풀. 감자난의 꽃을 만나고 엉뚱 맞고도 친근한 이름을 알게 된 것도 펍 반갑고 흐뭇한 일이었다.

양양의 치레 주민들께서 서·석·으로 기억하고 일깨우시고 맑게 빛나는 미소로 깊이 두었던 돌배주를 내어주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따듯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걷는 독서》, 105쪽

# 오래 오래 설렘이 있는 길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6월은 인디언의 언어로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이라며 일정을 소개해주셨는데, 우리가 탄 버스는 거기에 맞춘 듯이 늘 타던 백두산 호랑이가 아닌 스파이더맨이 그려져 있었다.

굽이굽이 구룡령 옛길을 ‘걷는 독서’는 내게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쳐 깨치는 일정이었다.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구룡령 옛길-선림원지로 이어진 이번 일정은 유난히 내게는 오래오래 새겨져 기억될 것이다. 오르막 5분 정도에 다음부터는 내내 내리막길이라는 안내는 늘 산길에서 오르막길이 조금 더 버거웠던 내게 조금 나름 만만하게 느껴졌는데, 낙엽으로 덮여 푹푹 빠지고 안개인지 보슬비인지에 젖어 미끄러운 길은 발밑만 보고 걷는데도 미끄러지고 부딪치고 돌에 차이느라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지금도 내 몸은 몸으로 부딪쳐 깨친 이치를 3일이 지나도록 오래오래 새겨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걷는 것이 곧 삶’이라고 얘기해준다.

길을 걸으며 만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오대 막국수 앞 붉은 아까시꽃, 5~6년 정도에 한 번 죽을 만큼 힘들 때 꽃을 피운다는 조릿대꽃과 잎 뒤에서 수줍게 핀 함박나무꽃, 백두대간 길을 가로질러 자신의 기량을 뽐내던 수많은 거미줄과 싸리나무꽃, 흰색과 분홍색이 한 나무에 함께 피어 있는 병꽃이다. 그



머리로 외우고 익힌 지식은 쉬이 잊혀진다.

몸으로 부딪쳐 깨친 이치는 오래 새겨진다.

-《걷는 독서》, 543쪽

리고 옛길의 오래된 서어나무의 멋진 근육과 입구에서 본 돌에 쓴 글씨들, 보슬비 내리는 선림원지의 탑들과 거기에서 만난 서어나무꽃……。 모두가 오래오래 문득문득 나를 설레게 할 것 같다. 걷는 독서를 마무리하며 내게 걷는 독서는 바로 다음 한 구절이다.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멀지 않은 법이다.  
-《걷는 독서》, 5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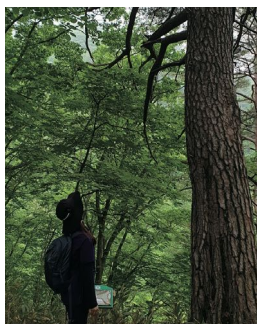


# 다시 걷고 싶은 길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걷는 독서 마지막은 구룡령 옛길 걷기이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선 걸 보았는데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버스는 한적한 시골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른 아침 밭에 나와 일을 하는 분들이 보인다. 끝없이 이어지는 감자꽃밭과 새로운 모종을 심기 위해 정갈하게 갈아놓은 밭고랑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이 한없이 펼쳐진다. 제일 먼저 풍암리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 도착했다. 1894년 지주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식량이 없었던 농민들은 전국에서 들고일어났다. 여기 서석도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전투가 치열했고 고개에 동학농민군의 피가 자작자작하게 고였다 한다. 비록 관군에 포위되어 농민군은 흩어지고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1894년 그분들의 투쟁 정신이 이어져 지금 내가, 우리가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위령탑 앞에서 묵념을 드렸다.

해발 1,000미터 고지에 위치한 구룡령은 여름 새소리와 운무가 자욱해 숲의 신비감을 더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오가던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을 금강송, 참나무, 박달나무 등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 아름다운 나무와 야생화가 가득한 구룡령 옛길을 가족과 다시 한번 걸어야겠다.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걷는 독서》, 8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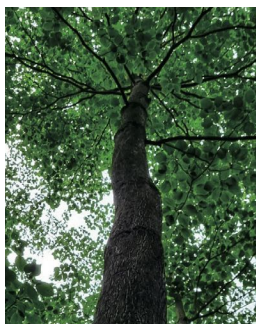
#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 6월! 구룡령 옛길 여정의 첫 번째 장소 서석 동학혁명 위령탑에 도착했다. 햇살이 머리 위에 쏟아지는 청명한 날 한산한 공원에서 동학의 슬픈 역사 강의를 듣는다. '밥이 하늘이고, 사람이 하늘이다.' 동학의 정신이 위령탑 앞에서 있는 나의 작은 가슴에 스며든다. 동학혁명 희생자의 피가 자작자작했다던 자작고개, 위령탑 앞에서 짙은 추모의 묵념, 눈물이 핑 돈다.

서석으로 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옥수수밭, 보리, 도라지, 감자와 인삼……。 푸른 작물들이 자라는 넓은 대지는 어머니의 품처럼, 고향처럼 따뜻하다. 농부의 고된 시간과 바람과 비, 햇살이 하늘인 밤을 만들고 있다. 밥은 하늘인 사람을 기른다. 以天食天(이천식천), 만물은, 사람은 하늘처럼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운무에 싸인 백두대간 구룡령 옛길에 들어섰다. 거미가 자아낸 거미줄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고요와 적막의 깊은 숲길은 우리 일행의 웃음소리로 즐겁고 행복하다. 금강송, 참나무, 벚나무, 박달나무, 서어나무……。 형용 못할 큰 나무들의 위엄과 경이, 숲의 진실과 마주한다. 나무와 꽃, 숲이 전하는 속삭임을 듣는다. 걷는 독서의 시간, 동학의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거대한 자연 앞에 겸손해지며 나의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790쪽

#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되니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그랬다,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하루 한 대. 비포장 구룡령을 한 시간 남짓 터덜거리며 넘어갔다. 창촌 버스터미널에선 주인도 없는 보따리가 몇 꾸러미 차에 오르고, 버스는 딱히 정한 데 없이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 정차를 하곤 했다. 반가운 인사와 버스기사님 너스레가 오가고 주인 없던 꾸러미들이 내려졌다. 더리는 신문과 약봉투도 전해졌다. 하루 한 번 오가는 버스가 산골마을 삶을 끌어가는 소중한 전달자였다. 구불구불 고개를 넘어 양양군 서면 갈천리, 치레마을 입구 갈천분교 교문 앞이 종점이었다. 주말의 텅 빈 운동장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며 한나절을 빈둥대다 보면 양양읍에서 출발한 버스가 데리러 왔다. 홍천읍에서 새벽밥을 지어먹고 출발하여 저물녘에야 양양 미천골 선림원지를 찾아들었다. 그새 30년 세월이 흘렀다.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는 달, 6월.’ 강원도 옛길 역사문화생태 답사의 올해 마지막 여정은 구룡령 옛길이다. 그 옛날 정겨운 터덜버스 대신 안락한 관광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포장된 도로를 달린다. 굽이치며 오르다 고개마루 가까이 가니 안개와 구름 속으로 버스가 천천히 스며든다. 한참을 안개 속을 오르다보니 내 몸도 마음도 마치 구름 속 산책을 나온 듯하다. 양구에서부터 먼발치로 바라만 보던 백두대간 능선길을 20여 분이나마 직접 걷는 길 앞에서니 설렌다. ‘대간에 서서’ 무슨 작정을 한 것도 아니건만 그저 백두대간에 올라 양 옆에 끝없이 펼쳐질 산맥들을, 능선들을 바라보고 싶었다. 하나, 대간을 걷는 내내 바람결에도 안개와 구름은 건히지 않고 눈앞에 길만 내보여 준다. 자칫하면 길을 놓치고 안개구름 속을 헤맬 듯하다.

길을 잃는 즐거움! 문득 걷는 독서를 시작하던 첫 마음이 떠오른다. 코비드 상황이 악화되며 잠시 나아갈 길이 안개 속 같았다. 깊은 성찰과 연대의 목소리가 모였다. 두 해 전 봄, 책으로 맺어진 교사들이 책 밖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주변과 이웃의 삶을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며, 도외시했던 자연의 숲으로 걸어 나왔다. 걷는 독서의 시작이었다. 강원도의 옛길을 찾아 과거·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공간의 길, 바다의 길을 함께 걸었다. 아직도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은 아득하고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묵묵히 걸어야 할 이유이다.

홍천과 양양을 넘나들던 구룡령 옛길의 고개마루, 갈전곡봉 갈림길에 섰다. 이제부터는 능선길을 떠나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굽이치는 내리막이라도 능선길을 걷는 몇 배로 힘이 들 텐데, 어찌면 안개 속의 내리막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한 발씩 천천히 내던져 준다. 화사한 앵초와 금마타리, 소박한 감자난초, 산죽꽃무리가, 우람한 나무등걸의 얽힌 뿌리들이 발걸음을 붙든다. 앞만 보고 바삐 걷는 삶을 저절로 멈추어 들여다보게 하는 작고 작은 것들의 힘을 마음에 담는다. 나와 그대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중에서

# 박달나무

황석용(강원교육연구소)

백두대간 구룡령 옛길을 가다보면  
내 삶같이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에  
삶을 힘겹게 붙들고 서 있는  
아버지 같은 박달나무 고목 한 그루

경동맥이 서서히 막혀온 1933년생,  
식민, 전쟁, 독재의 거친 역사를 감당해온

구순의 아버지는 쓰러졌으나  
아버지 혈관같이 물관, 체관이  
마르고 뒤틀어졌어도  
박달나무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네

사주에 나는 나무, 아버진 불이었고  
어린 나무에 붙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이기도 했지  
품성이 단단해 다듬이 방망이가  
되기도 하는 박달나무  
방망이 같던 아버지는 언젠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시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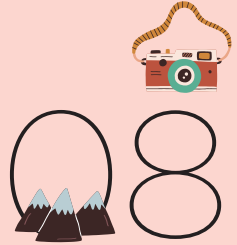
하지만 숲, 세상은  
85세에도 날아가듯 산을 오르시는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수백 년 위풍당당한 황금송,  
미려한 몸맵시로 선 서어나무,  
층층이 선림원지 석탑 같은 층층나무

저마다 ‘함께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들처럼  
진정 자유롭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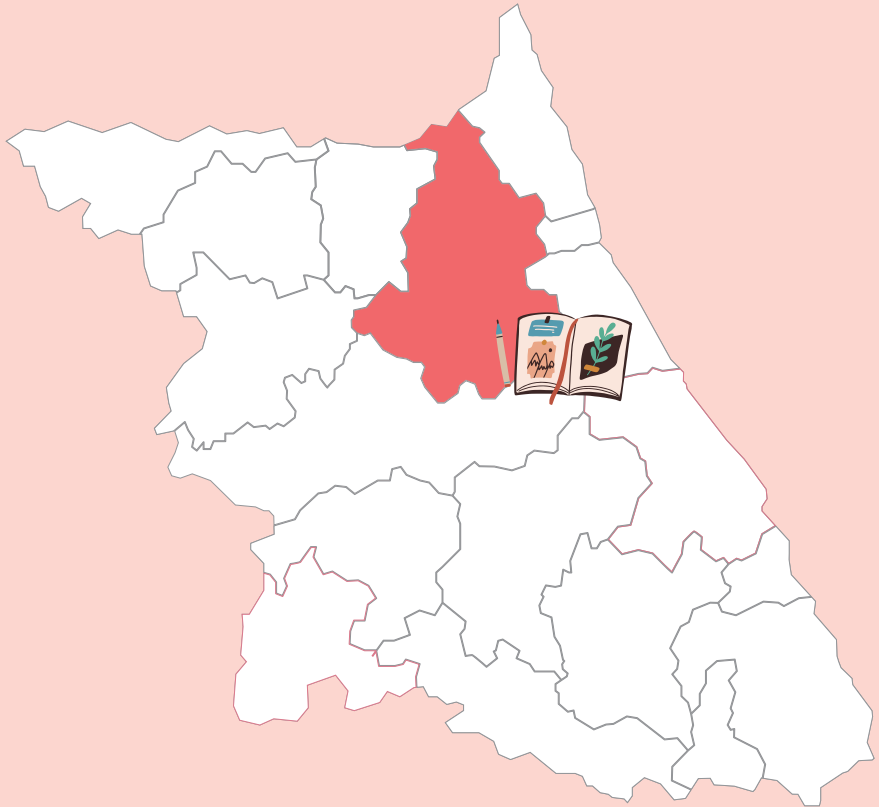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걷는 독서》중에서

2022 인문학 여행



내설악

옛길을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9월 24일

인제 합강정



인제 합강정은 인제에 지어진 최초의 누정으로 1676년에 건립되었다. 앞에는 또하나의 작은 누각이 있는데, 그곳에 합강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미륵불의 코를 떼어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코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합강정 주변에 박인환 시비, 강원 중앙단, 합강미륵불, 합강정휴게소가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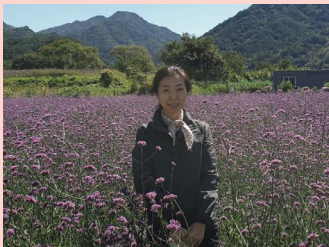
한국시집박물관





백담마을

백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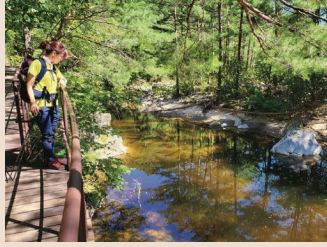
가을별이 너무 좋아  
기만히 나를 말린다.  
네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 546쪽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 34쪽

선생先生님이란  
앞서 사는 님.  
먼저 진리를 살아내고 앞선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이 그리워라. - 660쪽







수렴동 계곡

영시암





# 인제 내설악, 작은 도토리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9월 별이 참 좋은 날.

인제 내설악 백담사에서 영시암으로 가는 숲길을 걸었다.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 어디다 시선을 두어야 할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주고 그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잎들이 더욱 초록초록 연두연두하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의 땀을 씻어주니 행복을 느낀다.

밭밑에 도토리가 여기저기 보인다. 올해는 도토리가 풍년인가 보다. 어느 해 가을에 치악산을 갔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들의 양식을 가져가지 마세요.-치악산 다람쥐 일동-” 그것을 보고는 웃음도 나왔지만 우리 인간은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니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먹거리 나눔도 하지만 그 작은 도토리 안에는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다. 도토리 한 알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숨 쉬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지금은 작은 도토리지만 미래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함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다.



나는 이 지상에 비밀히 던져진 씨앗 하나.

아무도 모른다.

내 안에서 무엇이 피어날지.

-《걷는 독서》, 39쪽

# 백담사에 홀로 머물다

김원영(강원교육연구소)



## 백담사에

달맞이꽃 눈인사하고 어둠 장막에 가려진 백담사에  
 호롱불 밝혀놓고 향불 지켜보며 잠 못 이룬 길손아  
 합장한 섬섬옥수에 흘린 눈물 연꽃으로 피어나면  
 더러는 잊으리라 그 언젠간 잊으리라  
 속삭이던 별빛마저 잠들고 초승달도 기운 백담사에  
 등춧대 밝혀놓고 등춧대 지켜보며 시름하는 길손아  
 합장한 두 손 위에 흘린 눈물 촛농처럼 흘러내리면  
 불자의 소맷자락 끝으로 여명의 빛이 피어나리라.



신독(慎獨), 홀로 있어도 삼감.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이다.  
 -《걷는 독서》, 267쪽

## 정점(頂點)과 정점(靜點)

김현숙(소양중학교 교사)

세상에 정점이라는 것이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진행이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사물과 인간은 어떤 형태로는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 과정의 역동과 고통이 정점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번 수렴동 계곡에서 자연의 정점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다. 나뭇잎은 가지에서 그 초록을 한껏 먹고 낙엽으로 지기 전이었고, 계곡물은 외부의 어떤 것도 담지 않고 자신만의 순결로 빛나고, 강변의 돌들도 이끼 하나 없이 자신만의 빛깔로 순백과 황갈의 정결함을 드러냈다. 그 정점에 머물렀던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지는 못 했지만 오세암에서 민족과 자비의 삶을 고뇌하신 한용운 선생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선생님의 삶의 어느 순간을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욱되겠지만 이번 산행은 순간의 정점(頂點)에서 정점(靜點)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기만히 나를 말린다.  
네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걷는 독서》, 546쪽

# 한용운의 길 따라 내설악을 걷다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최근 한용운이 걸었던 내설악을 세 번이나 걸었다. 처음에는 백담사에서 수렴동 계곡을 지나 봉정암에 다녀왔고, 두 번째는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오세암에 다녀왔다. 두 번의 사전 답사를 바탕으로 이번 설악산 옛길 걷기는 현장 선생님들과 백담사에서 영시암으로 걸었다. 내설악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사색하며 걸었던 만해 한용운의 길을 따라 그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며, 역사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만큼 진보한다고 생각해본다.

## 한용운의 생애

충남 홍성 출신으로 본명은 정옥(貞玉), 아명은 유천(裕天).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萬海, 卍海)이다.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하여 처음에는 절의 일을 거들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오세암에 머무르면서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선(禪)을 닦았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고 돌아와 1905년 백담사(百潭寺)에서 한문으로 된 불경을 우리

말로 옮기는 일을 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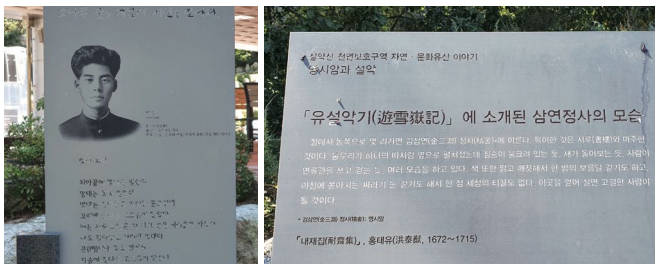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으로 갔다. 그곳에서 독립군의 훈련장을 돌며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는 불교계를 대표하여 33인에 참여하고, 이로써 3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1926년 《님의 침묵》을 발간하며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노래하였다. 1927년 일제에 대항하는 단체였던 신간회(新幹會) 결성을 주도하여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京城支會長)을 겸직하였다. 1944년 6월 29일 성북동의 심우장(尋牛莊)에서 중풍으로 별세하였다. 동지들에 의하여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되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골이 안치되었다. 친하던 벗으로는 이시영(李始榮)·김동삼(金東三)·신채호(申采浩)·정인보(鄭寅普)·박광(朴珖)·홍명희(洪命熹)·송월면(宋月面)·최범술(崔凡述) 등이 있었으며, 신채호의 비문은 바로 그가 쓴 것이다.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밤하늘의 별들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걷는 독서》, 772쪽





〈유설악기(遊雪嶽記)〉에 소개된 대로 청명한 가을 하늘을 이고 선 영시암 앞에 서니 맑고 깨끗한 설악의 정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그곳을 얻어 살지는 못하겠지만 가끔 찾는다면 그때마다 조금씩 맑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유설악기』에 소개된 삼연정사의 모습**

절에서 동쪽으로 몇 리 가면 김삼연 정사(精舍)\*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서루(書樓)와 마주한 것이다. 봉우리가 하나의 띠처럼 옆으로 펼쳐졌는데 짐승이 웅크려 있는 듯, 새가 돌아보는 듯,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걷는 듯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 색 또한 맑고 깨끗해서 한밤의 보름달 같기도 하고, 아침에 쏟아지는 싸라기눈 같기도 해서 한 점 세상의 티끌도 없다. 이곳을 얻어 살면 고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 『내재집(耐齋集)』(홍태유洪泰猷, 1672~1715)  
 김삼연 정사(精舍)\*: 영시암

*無我*: 김연수의 《일곱 해의 마지막》 중 '무아(無我)를 위한 공무여행'에서 인용함.



# 설악, 우리의 우리는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을 따라가는 길. 인제 내설악 백담사를 지나 영시암으로 간다.

올해 이른 봄날 시작하여 유난히 많이 찾은 길이라 눈에 보이는 길모퉁이 하나하나 낯익고 정겹다. 온화한 가을 햇살과 청명한 바람 아래 계곡을 따라 숲길을 걷는다. 인제 한국시집박물관에 들러 '길 위의 인문학-시와 그림의 조우' 프로그램을 함께해서인지, 아니면 좋은 분들과 함께한 덕분인지 들꽃 하나 들여다보고 나무등걸 어루만지는 눈길, 손길이 숲길 따라 이어진다. 길 옆에 세워진 김창흡의 한시를 함께 읽어가며 황장폭을 지나 사미대에 이르렀을 때, 한명숙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애처로운 동자승의 이야기에 빠져 들기도 하였다. 뭔가 평화롭다. 오늘의 걷는 독서는 더없이 평화롭다. 햇살 조각마냥 바닥에서 반짝이는 도토리가 그렇고, 쑥부쟁이와 까실쑥부쟁이를 구분해보며 걷는 숲길이 그렇고, 한쪽에 작게 마련되어 관심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설담당 부도탑과 설봉스님 부도탑이 그러했다. 사람의 손을 거친 것보다 하늘과 땅에서 내린 것, 도토리와 바위틈의 들꽃과 늦은 오후 계곡의 윤슬이 더 반짝거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우린 잔잔한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더할 뿐이다.

그냥 오늘, 설악산의 우리는 조연이다. 주인공은 가을 산에 미뤄두고, 오늘은 편히 발길 가는 대로 걸어보는 것. 그냥 산의 품 안에서 시선 닿는 대로 바라보며 걷는 것뿐이다. 바라보며 걷다보면, 나도 조금은 가을 산을 닮아가지 않을까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며 본다는 것.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걷는 독서》중에서

# 가을 마중-영시암 가는 길

양혜숙(방산중학교 교사)

가을 마중을 다녀왔다.

인제 합강 박인환 시비 앞에 잠시 멈춰  
 〈세월이 가면〉 노래 함께 부르며 감상에 젖었다가  
 합수머리 바라보며 세월을 견딘 보살상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이내 말갈계 익어가는 꽃사과에 눈길, 손길 다 빼앗겼다.

시집박물관에서 시집 표지 디자인 체험으로  
 길 위의 인문학 감성을 북돋우며  
 이른 아침부터 달떠서 비어버린 속을  
 한껏 가꾸어놓은 벼베나 꽃밭에서 산채비빔밥으로 채우니  
 금강산도 식후경 구절이 절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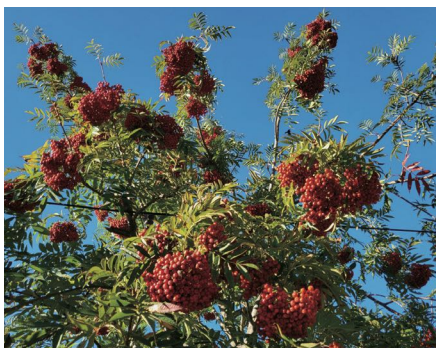
백담사로 이어지는 내설악 계곡 따라  
 구불구불 휘잡아 도는 투명한 물살은  
 반들반들 매끈한 암반처럼  
 깔끔하게 상념들을 쓸어버리고.  
 수렴동에 울려 퍼지는 청명한 물소리는  
 영시암 독경 소리보다 귀를 즐겁게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 속도로. 깊이 깊이.  
 -《걷는 독서》, 476쪽

여름 색을 떨쳐내지 못한 나뭇잎들도  
황금색 가을 햇살이 비추니  
노란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하늘빛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물수제비 툭툭 튀어 부서지는 잔잔함을 바라보니  
일상으로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햇살 가득한 날  
영시암에서 맛있는 초가을 매력에 함박 반하고 말았다.



# ‘끝도 없이’가 아닌 ‘지금 완전히’ 걷기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을을 가득 담은  
살살이꽃, 버들마편초, 별개미취 반겨주는  
설악의 옛길을  
눈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과  
온몸을 어루만지는 기분 좋은 바람으로  
더 바랄 것 없는 가을의 한가운데  
영시암까지 가는  
구불거리는 길을 함께 걸으며  
구부러지고 구부러지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았다.

걷는 독서에 참여하며 내 삶은 뭉근하게 익어간다.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 《걷는 독서》, 34쪽



# 가을 문턱에서 내설악 품에 안기다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2022년 9월 24일! 오늘 걷는 독서의 첫째 여정은 인제 합강정 휴게소이다. 합강정 정자보다 중앙단이 눈길을 끈다. 중앙단은 역병 등으로 죽거나 억울하게 죽어서 제사 지내 줄 사람이 없는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를 올렸던 제단이라는 역사 해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단 앞에서 선조들의 인정(仁政)의 자취를 느낀다. 중앙단 앞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과 세월을 노래한 박인환 시비(詩碑)는 이 공간을 한층 더 따뜻하게 한다. 인북천과 내린천이 만나 합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반짝이는 물결은 황홀한 아침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백 개의 담(潭)이 있어서 백담계곡이라 명명된 곳, 계곡을 걷는 길에 옥색의 깊은 못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너비가 넓은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은 너무 맑고 곱다. 버스 안에서 설악에서 나고 자라고 생을 마감한 이성선 시인의 얘기를 들었다. 시인의 <별을 보며>라는 시가 탄생한 이유를 알 듯하다. 계곡의 바람과 물, 숲은 이내 나의 몸과 정신을 맑게 정화하고 심을 선물한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영시암에 도착했다. 경내는 여행객이 있어도 한가하고 평화롭다. 산속 고요를 깨는 불경 소리 들으며 사찰 뒷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세계는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다. 너무 많은 일이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설악의 품에 안긴 오늘이 너무 좋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멀어져 왔던가,  
 열심히 공부해 진리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삶에서 멀어지고  
 너무 많이 나에게게서 멀어져 왔다.

-《걷는 독서》, 232쪽

# 내설악에 깃들다, 돌 셋!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9월, '아주 기분 좋은 달'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일컬었다지. 구월의 숲은 평화롭다. 물빛도 산빛도 하늘 흰 구름도. 계절이 건너가는 시간, 질푸른 초록들은 한풀 나긋해진 햇살과 공기와 바람결에 실려 은은한 연녹빛과 옥빛으로 부드럽게 마음을 감싼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인증비가 반갑다.

봄여름, 그리고 한겨울 눈 쌓인 설악을 걸었다. 이토록 고요한 평화와 여유로운 가을 햇살 아래 설악은 사뭇 새롭게 다가선다. 단풍의 화려한 빛깔로 치닫기 전의 고요로운 평화. 아슴하게 잊었던 느낌들이 가만히 솟구친다. 물수제비 하나가 일렁이는 저 투명한 물빛 위로 번지는 잔잔한 파문처럼. 이 골짜기에 돌 하나로 남은 이들처럼 그냥, 그대로 한없이 스며도 좋겠다.

돌 하나, 이성선 시비. 설악에서 살며 설악을 노래하다 마침내 설악의 골짜기에 먼지가 된 시인. 백담사 물가에 고졸한 돌 하나로 남은 시인의 삶을 생각한다. "내 하늘의 별을 너무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다리를 빨리 건너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 나뭇잎 한 이파리에도 우주를 느꼈다던 사람, 설악산 산양 같은 순한 눈으로 더없이 맑은 영혼을 간직했던 시인.

돌 둘, 설담당 부도탑. 만해 시인이 오가던 영시암, 오세암 가는 길 숲속에 숨은 듯 아담한 부도탑. 18세기 무렵 심원사를 개칭하여 백담사로 이름 지었다지. 주변엔 사미승의 애뜻한 전설이 어린 사미소와 사미대가 있구나.

돌 셋, 설봉당 부도탑. 1960년대 내설악에 들어와 평생을 보냈다지. "영시암 복원을 시작하고 입적 때까지 농사짓고 순례길을 정비하며 글씨 쓰고 참선하는 주경야선으로 손톱 밑의 흙과 승복의 떡물이 지워진 날이 드물었다……." 도윤스님 부도비의 한구절이 애잔하다.

그리고 영시(永矢)암. 삼연 김창흡. 오래전 가족 잃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그가 다짐한 '영원한 약속'을 그려보며 오늘은 햇살 좋은 요사채 마루에서 나를 말린다. 살다가 살아가다가 언제든 홀연히 떠나올 수 있는 길, 내설악 영시암 가는 길!



말씀은 가만가만, 걸음은 나직나직, 마음은 한들한들  
-《걷는 독서》, 553쪽



# 군말

한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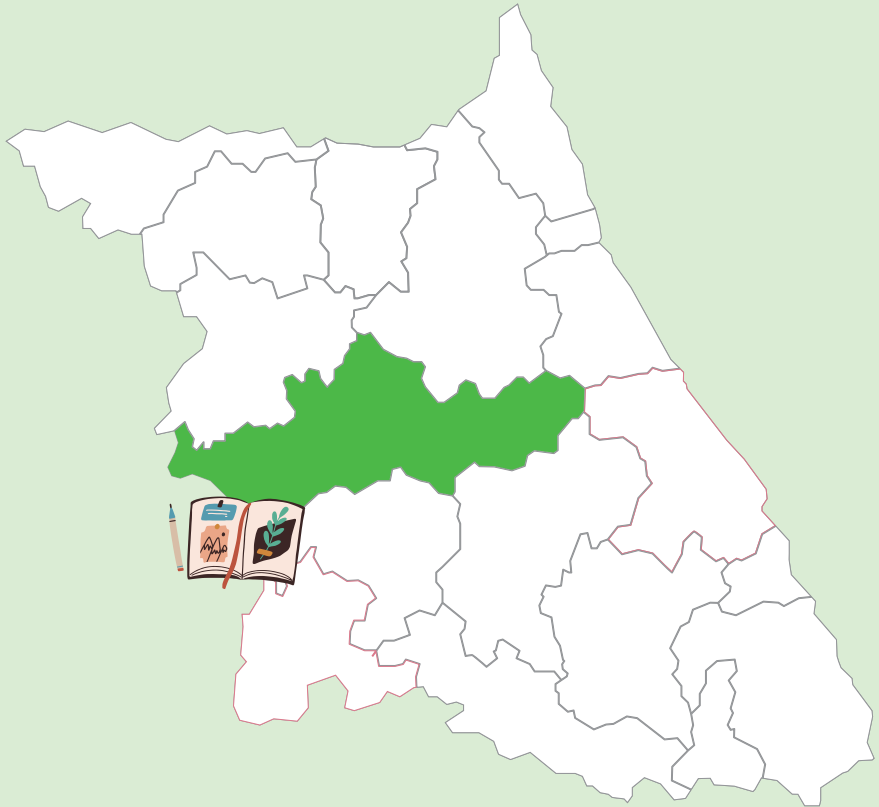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이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이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戀愛)가 자유(自由)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희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詩)를 쓴다.



2022 인문학 여행




# 남한강가 폐사지를 걷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10월 30일

청룡사터

## 남한강가 폐사지

남한강변에 위치한 여러 폐사지는 당시 조창이나 수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군사적 방비나 수로를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수량이 많아 배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겠으나 여울이 기다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때 강변에 있는 사찰의 승려를 동원하여 해결하였을 것이다. 남한강변의 사찰은 이런 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영화를 누렸을 것이다. 남한강 유역의 신륵사를 비롯한 고달사지, 흥법사지, 거둔사지와 중원지역의 청룡사지, 내동리사지, 탑평리사지, 정토사지 등이 그렇다. 이들 사찰이 심산유곡 면산을 배경으로 하진 않았지만 십여 리 안팎의 거리를 이어가면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자리 잡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문경새재를 넘어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친 신립 장군을 무너뜨린 후 밀물처럼 남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진격하면서 절집들은 잿더미로 변했다. 또한 일제 식민지하에 절터에 남아 있던 많은 유물이 일본인에게 대부분 약탈된 문화재 수난의 현장이기도 하다. 남한강 유역의 사찰은 대부분 폐사지로 남아 있다. 천년 역사가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는 돌덩이 유물만 절터를 지키고 있다. -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거둔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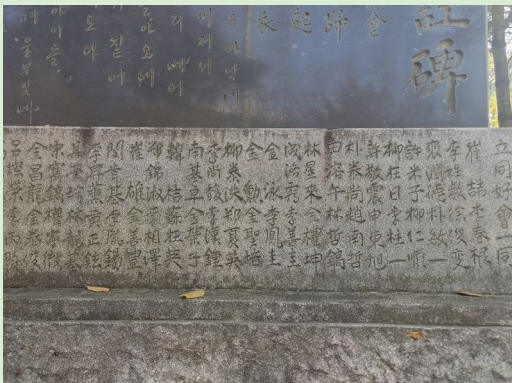


손곡 이달 시비

田家少婦無夜食 (전가소부무야식)  
 雨中刈麥林中歸 (우중예맥임중귀)  
 生薪帶濕煙不起 (생신대습연불기)  
 入門兒子啼牽衣 (입문아자제견의)

시골 밭집 젊은 아낙네 저녁거리 떨어져서  
 비 맞으며 보리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에 습기 짙어 불길마저 꺼지도다  
 문에 들자 아이들 옷자락 잡아당기며 울부짖네.

법천사 터





흥원창터



선시대 원주의 주요 관창(官倉)은 읍내에 있는 사창(司倉)과 별창(別倉)을 제외하고 북창(北倉)[안창(安倉)], 서창(西倉)[흥원(興原)], 동창(東倉)[주천(酒泉)] 등 3개 창고가 있었다. 이 중 서창은 흥원에 있었기에 흔히 흥원창이라고 불렀다.



# 세월은 흘렀지만 역사적 자취는 남아

김선희(우석중학교 교사)

10월 30일(일) 깊어가는 가을, 푸르른 하늘 아래 유난히 햇볕이 따스한 날에 남한강가 폐사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울긋불긋한 나뭇잎이 부드러운 바람 한 자락에도 우수수 떨어져 한 편의 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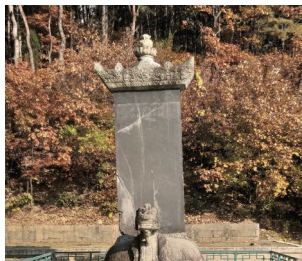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중부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남한강 길이 중요하였다. 남한강변에 위치한 여러 폐사지는 당시 조창이나 수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군사적 방비나 수로를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가물면 강물도 줄어 여울목을 오르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수로를 파거나 밧줄을 걸어 사람의 힘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경우, 강변에 있는 사찰의 승려를 동원하여 해결하였을

것이다. 남한강변의 사찰은 이런 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영화를 누렸을 것이다.

청룡사지, 거돈사지, 순곡시비, 범천사지, 흥원창 등을 돌아보며 아은 길재의 시조가 떠올랐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세월은 흘렀지만 폐사지의 역사적 자취는 남아 가을날 나의 인생에서 욕심을 털어내고 내면의 성숙을 다지는 발판이 된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걷는독서》, 511쪽

# 만추를 걸으며 내 영혼이 깊어졌다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남한강가를 중심으로 원주와 충주 지역의 폐사지를 찾았다.

초록빛이 가신 늦가을의 거둔사지는 낮은 산자락 아래 넓은 터를 자리하고 있다. 푸른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천년 느티나무가 지키고 있어서인지 거둔사지에 발을 들여놨을 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신라 3층석탑과 금당터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내 키보다 훌쩍 큰 석불대좌에 기대며 상상해본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놓고, 지붕을 올린 다음 단청도 꾸민다. 가로세로 몇 칸인지 확인한 다음 연꽃무늬 곱게 새긴 창호문을 달아 본다. 제법 웅장한 거둔사의 금당. 오른쪽으로 돌아들며, 금당의 벽화도 그려넣어야겠지. 하이!

바람이 분다. 처마 끝에서 깨끗한 풍경 소리가 들리고, 바람과 함께 천년 느티나무에선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아니다. 지금의 천년 느티나무라면 그땐 어린 나무이겠구나. 구석에 홀로서 있는 별로 크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나무였겠구나 싶다. 머리를 파르라니 깎은 어린 승려가 마당을 쓸다가 작은 느티나무에 기대어도 보겠지. 저 멀리 황학산 자락 아래로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불목하니가 등짐 가득 땀감을 이고 내려오는구나.

늦은 가을[晩秋], 폐사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사라진 절의 가을을 떠올리는 시간. '걷는 독서'의 길을 함께 걸으며 내 영혼이 깊어졌다.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790쪽



# 남한강 폐사지를 걷다

양혜숙(방산중학교 교사)

남한강 물길 따라  
폐사지를 걸었다.  
석탑 하나  
석등 하나  
비문 하나 남아서  
숨씨 좋은 석공의 기예와  
스쳐 간 스님들의 도량을 전한다.

소소히 이는 바람에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비 맞은 도승 앞에  
물고기던 여의주 떨구어 준  
어설픈 청룡의 전설을 전한다.

천년을 한자리  
고찰의 흥망성쇠 지켜보며 애면글면  
그만 속이 텅 비어버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드문드문 찾는 이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는다.

보물은 모두 빼앗기고  
석재들만 뒹굴뒹굴  
넓디넓은 터에  
당간지주 홀로 남아 오롯이 서 있고  
가을 햇살을 아래  
소복소복 피어난  
구절초, 쑥부쟁이, 노란 국화가  
화려했던 고사(古寺)터의  
쓸쓸함을 덜어준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걷는 독서》, 553쪽



# 그 쓸쓸함이 고요하고 아름답다

윤선미(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10월 마지막을 하루 앞둔 가을날, 인문기행으로 남한강 유역 폐사지 답사를 다녀왔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하늘 높이 달린 단풍잎과 바닥에 나뒹구는 농익은 단풍잎이 너무나 아름다워 반사적으로 휴대전화 사진기를 연신 눌러댔다.

답사는 바쁜 여정이다. 한 곳을 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답사는 지식만 주워 담기 바쁘고 그 깊은 의미와 감성까지 담지는 못하며 쫓기듯 끝나버린다. 그런데 이번 청룡사지를 시작으로 거둔사지, 순곡시비, 범천사지, 마지막 흥원창을 돌아보는 답사 여행은 마치 느린 걸음의 산책 같은 답사 여행이었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오랜 풍상을 겪으며 우뚝 서 있는 천년 부도탑과 3층석탑, 석조 조각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풀과 나무, 꽃들도 보이고 새소리 물소리가 들린다. 더불어 산책 같은 답사길에 시가 있으니 금상첨화다. 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 길가에 돌이 되어 쓸쓸히 서 있는 시비에서 순수함에 끌리게 되었던 신경림 시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원주 거둔사지에서 마주한 천년 묵은 거대한 느티나무가 너무 인상적이다. 거대하고 높은 느티나무 앞에 너무 작은 우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기나긴 역사에 점 하나 찌고 티끌같이 살다가는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애써 거스르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며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마저 하게 된다. 특히 거둔사지 하수로에서 발견했던, 묵은 허물을 벗어 던지고 빛나는 피부로 자연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갔을 뱀조차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나를 경탄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한때 조창과 수운의 중요한 역할은 물론 군사적 방어 기능으로 영화를 누리  
고 번창했을 남한강변 화려했던 사찰들은 지금은 흔적만 남긴 거대한 폐사  
지로 늦가을 정취와 맞물려 그 쓸쓸함이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단풍이 있고, 무엇보다 감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한 답사 여행이었지만 폐사지의 쓸쓸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 하루  
였다.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걷는 독서》, 268쪽

# ‘들꽃이 되어’, ‘잔돌이 되어’ 걷기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2022년 10월의 끝자락에  
남한강을 따라 늘어선 폐사지 터를  
역사의 ‘홍망성쇠’ 이야기들을 들으며 온몸으로 걸었다.

날씨는 다시 봄이라 믿어도 좋을 만큼 화창하고 맑고 따뜻했는데,  
절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하지만 이미 아픈 현실이 되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태원 대참사 뉴스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걷기에서는 청룡사지에서 낭송했던 신경림의 시와  
손곡 이달 시의 구절이 가슴에 남는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의 <목계장터> 중에서

시골 밭집 젊은 아낙네 저녁거리 떨어져서  
비 맞으며 보리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에 습기 짙어 불길마저 꺼지도다.  
문에 들자 아이들 옷자락 잡아당기며 울부짖네.  
- 손곡 이달의 <보리 베는 노래> 중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존재이다.

-《걷는 독서》, 634쪽

#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다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10월의 마지막 휴일, 올해의 마지막 걷는 독서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남한강을 따라 남아 있는 폐사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첫 일정으로 충주의 청룡사지를 방문했다. 청룡사지 앞에 도착하니 문화재 해설사분께서 나와 계셨다. 해설사분과 함께 청룡사지 보각국사탑까지 걸어가는 길은 낙엽이 있어 늦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청룡사지에 도착해 마주한 보각국사탑비의 부조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세월이 마모된 부분은 마모된 대로, 바람을 등져 원형이 보존된 곳은 원형 그대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어 좋았다. 청룡사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거쳐하는 곳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장했던 고찰이기도 했는데 전란으로 소장하고 있던 많은 불교 경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 청룡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지만 아름다운 문화재가 있어 그 시절이 절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거둔사지를 방문했다. 7,500평 규모의 절터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했다. 김효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청룡사지와 거둔사지를 보며 느끼는 것이 없냐고 질문을 던지셨다. 충주시에 속하



는 청룡사지는 비록 작은 공간임에도 문화해설사가 있지만 7,500평 넓이의 거둔사지는 그 규모나 유물로 보나 빠지지 않음에도 문화해설사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곁들이면 거둔사지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도 커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불교 경전에 아늑다라 삼막삼보리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행복, 자유를 얻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는 일체중생을 다 그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내라 하셨다 한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凡所有相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실체가 없다. 모든 상이, 상이 없는 것을 안다면 곧 부처를 본다.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마음을 낼 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한 부처님의 말씀을 거둔사에서 떠올려 보았다.



영혼이 말하게 침묵하여라.  
광야가 말하듯, 사막이 말하듯,  
밤하늘의 별들이 말하듯,  
영혼이 말하게 하여라.  
-《걷는 독서》, 773쪽



# 폐사지, 과거로의 시간여행

최주미(양구중학교 교사)

2022년 10월 30일! 오늘 걷는 독서는 유적 답사이다. 우리는 충주 청룡사지, 원주 거둔사지와 손곡 이달(李達) 시비(詩碑), 법천사지, 고려와 조선시대 세곡 창고 흥원창을 답사한다. 수년 전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법천사지에 유적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고, 경내가 공사 중인 것 외에는 예전과 변함없는 길이었다. 햇살은 봄기운이고 풍경은 만추 빛인 가을날! 역사 해설과 시(詩), 영화가 있는 여정은 여는 걷는 독서의 시간처럼 풍요로운 하루를 선물한다. 청룡사지의 보각국사 탑,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등 수려한 유물을 보며 그 옛날 거장의 섬세한 손길과 마주한다. 유물

은 순간 옛날로 나를 안내한다. 그래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표현을 쓰나 보다. 유물을 보는 감동도 좋지만 옛 절터가 주는 편안함도 인상적이다. 누군가는 옛 모습을 복원해놓으면 관광객이 많을 텐데 하며 복원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으나 나는 고즈넉한 폐사지가 마음에 든다.

거둔사지 천년 고목 느티나무 아래 앉으니 3층석탑과 부처를 모셨던 금당터가 눈에 들어온다. 부처의 가르침이 충만한 곳이어서일까? 잡다한 생각이 사라진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세 번째 남한강 폐사지 여행은 역사를 전공하는 딸과 함께 와야겠다.



시간은 모든 것을 쓸어가는 비바람,  
 시간은 아름다움을 빛어내는 거장의 손길.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걷는 독서》, 280쪽

## 1. 초등학교

<b>신영숙</b> 장학초등학교	<b>심금순</b> 서상초등학교	<b>황현정</b> 동내초등학교
-------------------	-------------------	-------------------

## 2. 중학교

<b>고미정</b> 봉의중학교	<b>김희선</b> 남춘천여자중학교	<b>정연실</b> 봄내중학교
<b>권영미</b> 남춘천여자중학교	<b>박채원</b> 화천중학교	<b>주민주</b> 봄내중학교
<b>김경은</b> 우석중학교	<b>박혜진</b> 유봉여자중학교	<b>최경화</b> 소양중학교
<b>김선희</b> 우석중학교	<b>양혜숙</b> 방산중학교	<b>최박희</b> 간동중학교
<b>김소영</b> 남춘천여자중학교	<b>윤선미</b> 남춘천여자중학교	<b>최주미</b> 양구중학교
<b>김재순</b> 춘성중학교	<b>임수호</b> 유봉여자중학교	<b>한명숙</b> 남춘천여자중학교
<b>김정민</b> 봉의중학교	<b>임지훈</b> 남춘천여자중학교	<b>함광연</b> 남춘천여자중학교
<b>김정은</b> 남춘천여자중학교	<b>장만순</b> 창촌중학교	<b>홍광자</b> 남춘천여자중학교
<b>김현숙</b> 소양중학교	<b>정미자</b> 남춘천여자중학교	

## 3. 고등학교

<b>고영진</b> 흥천여자고등학교	<b>라상숙</b> 춘천고등학교	<b>최인숙</b> 봉의고등학교
<b>남궁두</b> 양구여자고등학교	<b>박명희</b> 성수고등학교	<b>홍정하</b> 영서고등학교

## 4. 그외

<b>김원영</b> 강원교육연구소	<b>유상열</b> 강원교육연구소	<b>박준성</b> 역사학연구소
<b>김효문</b> 강원교육연구소	<b>이창래</b> 강원교육연구소	<b>김산</b> 시인
<b>박병두</b> 강원교육연구소	<b>황석용</b> 강원교육연구소	
<b>원영만</b> 강원교육연구소	<b>황선희</b> 강원교육연구소	
<b>신영태</b>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오클라호마대학교 교수		
<b>심재현</b>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b>장유리</b>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수기집 2

펴 낸 날 2024년 2월 20일

펴 낸 이 서정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장)

기획 김효문, 한명숙, 심재현

프로그램 매니저 심재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부센터장)

제작 여름 출판사

펴 낸 곳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033-248-3217

※ 이 책은 인문학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및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2017S1A6A3A01079517)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워크숍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아젠다인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의 줄임말이자,  
한자로는 抱問童이라하여 순수한 물음을 품은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학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선생님과 학부모, 인문교육NGO단체와  
함께 인문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인문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같이 되새겨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 강원교사 인문학여행은

지역에 기반하여 강원 교육의 미래에 대해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고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옛 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강원역의 역사와 문화, 일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2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